



1

1977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77. 1호

(루게 351)



## ◆◆◆◆◆◆◆◆◆◆ 차 례 ◆◆◆◆◆◆◆◆◆◆

|   |    |
|---|----|
| 영광찬란한 새해에 .....   | 2  |
| 인민의 어버이 (외1편).....  | 4  |
| 오직 한마음 .....  | 5  |
| 작가들도 대자연개조의 총진군길에 펼쳐나서자! .....                                      | 6  |
| 혁명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는 주체적 동화, 우화 문학건설의 길 .....                            | 8  |
| 우리 시대 농민의 전형을! .....  | 11 |
| 시가의 총창을 비껴들고 .....  | 11 |
| 교양적이고도 흥미있는 동화창작의 해로! .....   | 12 |
| 투쟁과 혁신으로 부르는 전투적인 노래를! .....  | 12 |
| 창작과 학습의 해로 .....  | 13 |
| 어떤 역경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목숨으로 옹호보위한<br>항일유격대원들이 우리 문학의 주인공이다 ..... | 14 |
| 해당화 .....   | 17 |
| 우리가 서야 할 자리 .....   | 42 |
| 접동새 .....   | 56 |
| 탄부의 손이여 .....   | 61 |
| 전변의 새 기슭 .....  | 62 |
| 분 노 .....   | 63 |
| 양읍천 맑은 물이 령 넘어오네 .....  | 64 |

# 영광찬란한 새해에

장엄히 머리를 쳐든 백두의 산정우에  
붉은 노을빛을 눈부시게 없으며  
밝아오는 새해의 아침  
우리의 마음처럼 정갈한 흰눈이 내린  
락원의 강산에서  
끓어넘치는 흠모의 마음들이  
어버이수령님께 삼가 세배의 큰절을 드리며  
평양의 하늘가로 달려가고있어라

1977년의 조국이어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따라 우리는  
얼마나 높이 올라섰는가  
새해의 희망찬 언덕에서  
궁지높이 지난해를 돌이켜보노라  
저 백두고원에서부터 양덕령의 굽이굽이를 넘어  
열두삼천리벌을 지나 연백벌의 한끝까지  
만풍년의 금빛옷자락 펄럭이며  
저 창공에 이마를 맞대고 솟은  
800만톤이상의 황금메부리  
그우에서 농민들이 춤추며 보내던 큰웃음은  
승리한 주체농법의 해빛아래  
풍요한 가슴을 활짝 편 조선의 모습이 아니 었던가

저 푸른 공간을 가득 채우며  
은빛 합성탑들의 숲이 설레이는  
대화학지구와 건재지구의 웅자들  
어버이수령님께서 거니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셨던  
맑은 물우에 어마어마한 뿌리를 내리고  
아슬히 솟는 수력언제와 화력발전소들  
빛을 뿜는 보화의 산악들과 대형기계의 동음소리들  
대건설로 전진한 조국의 자랑찬 모습이어

사상, 기술, 문화  
세 폭의 붉은기발 머리우에 휘날리며  
당중앙의 부름따라 혁명의 북소리 높이  
로동계급화, 혁명화의 진군길을 다그친 해였노라  
마치와 낫, 총창을 더 높이 추켜들고  
조국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튼튼히 다지며  
도발자 미제에게 불벼락을 안기며

우리의 승리의 기치이신  
혁명의 태양 **김일성** 동지  
저 노을빛처럼 찬란한 미래를 펼쳐주시며  
보다 큰 승리와 위훈으로 부르시는  
1977년의 새해 아침  
솟는 해처럼  
뜨거운 충성의 불덩어리를 가슴에 안고  
조국의 산과 들을 바라보아라  
자연개조 5대방침의 빛발따라  
푸른 물은 산룡선을 따라 마지막이랑을 적시고  
구름우에 솟은 산발들에  
기름진 다락밭들이 펼쳐지는 나라

무연한 천리옥야를 규격포전으로 다듬고  
큰물을 막아 뺏어가는 천리제방들  
이 땅의 산과 강, 간석지들을  
모두 주체의 한빛으로 단장시키며  
보다 아름다워진 락원의 강산에서  
저 1,000만톤의 황금메부리가  
세월을 앞당겨 하늘높이 솟아나고있어라  
신들메를 조이고 이 새해에 더욱  
대건설의 북소리 강산을 울리며 돌격해갈 불타는  
마음들  
완충의 해, 들끓는 전투장들로

기관차들은 땅을 구르며 달려가고  
일떠선 대동강발전소의 아슬한 언제우에서  
무산과 덕현, 은률과 그 모든 채굴장들에서  
우리는 승리자로 크게 웃으리라

아, 내리는 눈송이들을 맞으며  
새해에 들어서면 언제나  
꽃피는 리상, 크나큰 포부와 희망으로  
가슴 부풀어 해돋이 바다처럼 설레이며  
우리 앞에 내세운 목표  
그것들을 어떻게  
빛나는 열매로 실하게 거두어  
어버이수령님과 당중앙에 크나큰 기쁨을 드릴 것인가  
우리는 언제나 이 물음앞에  
땀땀이 대답하며 살아온 근위전사들

저 어두운 남녘의 하늘아래  
도시와 마을, 감옥과 지하에서  
민주의 새날을 부르며 싸우는 형제들이 있어  
우리가 맞는 새해의 해돋이가  
통일의 다리를 놓으며  
그들과 손잡을 영광의 시각에 잇닿아있으리라

우리 이 땅위에 사는 생의 목적  
우리 혁명하는 최고의 리념  
그것은 우리를 한품에 안아키워주시고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리는것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크나큰 기쁨을 드리는것

어버이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신년사의 전투적강령은  
심장의 붉은 피를 끓여주어라  
총진군 돌격의 나팔소리로 강산을 울리며  
공장과 광산, 불꽃 튀는 초소마다에  
우리와 번개, 폭풍과 창조의 불길을 지펴주며

가장 빛나는 영광의 자욱으로 새기리라  
인류가 경탄과 부러움의 눈길로 쳐다보는  
빛나는 력사의 령마루에  
조국을 올려세우리라  
민족 대경사의 날, 조선의 날  
어버이수령님 탄생 예순다섯돛을 맞는 이해에  
가장 큰 기쁨을 이 강산에 수놓아  
어버이수령님께 우리 드리리라

아, 혁명의 태양이시며  
행복의 영원한 품이시며  
인민을 언제나 승리와 영광으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우리는 뽀아넘치는 충성의 마음을 담아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흠모의 마음을 담아  
뜨거운 인사를 드리여라  
-어버이수령님이시여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김시권

# 인민의 어버이 외 1 편

1

때로는 눈내린 초소의 오솔길을 걸으시고  
늦가을 차디찬 시내물도 건느십니다  
-그 동무를 꼭 만나보고 갑시다  
-동무들이 보고싶어 왔소.  
이 땅의 끝에서 끝까지  
안개낀 부두가 날저문 진펄길...  
어디나 인민들이 사는곳이면 다 찾으십니다

2

-동무들의 손을 잡은 내가 행복하오,  
그리도 환히 웃으시며 만족해하시고  
-동무들과 있으니 떠나고싶지 않소,  
그리도 기쁘시여 자리를 못뜨시고  
다정히 의논하시며 이끌어주시며  
언제나 인민들속에 함께 계시는 수령님!

3

가시는곳 만나시는 사람마다  
그 모두를 금싸래기처럼 아끼시고  
그 모두를 한품에 안아주시는  
한없이 친근하고 자애로우신 수령님,  
  
-동무들이 제일 귀중한 보배들이요.  
-동무들을 위해 아낄것이 없소.  
우리모두를 똑같이 보살피시고 사랑하시며  
세상 좋은것 맨먼저 인민에게 주십니다.

4

-부모 없는 아이들 생각에 잠이 오지 않소.  
-인민이 조밥을 먹을 때면 우리도 조밥을 먹어야  
하오.  
인민의 아픔을 그렇듯 아파하시며  
쉽도 끼니도 잊으시며 바치시는 한평생,  
  
-모두 잘살게 되었다니 내 마음이 놓이요,  
-기계로 농사지으니 평생의 시름이 풀리오,  
인민에게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고  
행복을 누리는 우리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5

찾아오시여 사랑을 안겨주시고  
함께 계시며 고락을 나누시고  
떠나가시며 은덕을 베푸시며  
한평생 인민을 위해 바쳐오시는  
우리 수령님!

6

-백두산에서 싸울 때에는 이보다 더 험한 밤길을  
걸었소.  
오늘도, 행복한 오늘도 험한 길을 가시니,  
아, 험한 길을 가시며 사랑만을 주시니  
그 끝을 다 헤아릴길 없는  
크나큰 그 사랑 눈물속에 받아안으며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인민이 이 땅에 삽니다.  
  
아아, 인민의 어버이  
우리 수령님!

## 오직 한마음

아버이수령님을 모시는 마음

모시는 마음에 티가 없으니

하는 일에 것처럼 진정이 있어라

아버이수령님을 받드는 마음

받드는 마음에 빈틈 없으니

하는 일에 것처럼 보람이 있어라

아, 아버지수령님을 따르는 마음

따르는 마음이 불같이 뜨거우니

이 세상 못해낼 일 하나 없어라

받는 은혜 누리는 행복 끝이 없어

언제 어디서 그 무슨 일을 하건

한목숨 바친대도 다할길 없어

들에 한이삭의 열매를 가꾸어도

공원에 한송이 철이른 봄꽃을 피워도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릴 한마음뿐

자나깨나 앓으나서나

일만가지 생각의 시작도 끝도

수령님께 기쁨드릴 한마음뿐

오직 한마음 충성 다할 때

지닌 마음 티없이 맑고 깨끗해

인간이 어찌면 그렇듯 아름다울수 있을까!

우러러 끝없이 충성다할 때

품은 생각 진주처럼 보배로워

인간의 삶이 어찌면 그렇듯 빛날수 있을까!

아, 아름다움을 꽃에 비긴다면

꽃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꽃은

가슴속에 붉게 피는 마음의 꽃

이 세상 꽃들은 사시절 피고 지지만

갈수록 싱싱하게 활짝 피는 꽃은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의 꽃!

김석주

## 작가들도 대자연개조의 총진군길에 펼쳐나서자!

새해를 맞이한 조국강산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자연개조 5대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거센 숨결로 약동한다. 아래로만 흐르던 물줄기를 산턱으로 끌어올려 밭고랑에 이어주고 비탈밭을 깎아내려 다락밭으로 만드는 거창한 전투, 논두렁과 밭최뚝을 시원하게 터치고 굽은 강을 바로잡고 바다를 건너막는 돌격전, 참으로 지심을 뒤흔드는 기계화 군단을 앞세우고 농업근로자들과 로동자, 사무원, 학생들이 한결같이 펼쳐나선 대자연개조전투의 백열전으로 온 나라는 불도가니마냥 들끓고있다.

상원의 깊은 골짜기와 황주의 긴등벌, 재령강기슭과 신미도앞바다의 자연개조공사장을 찾아가도 좋다. 오랜 세월 느닷없이 인간을 구속하던 자연의 덤미를 손아귀에 틀어쥐고 그것을 인간의 요구에 맞게 길들이는 자연정복자들의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리라.

그들의 심장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연개조 5대방침을 기어이 관철할 충성의 열정이 도도히 굽이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연개조 5대방침은 첫째로 밭관개를 마저 완성하며, 둘째로 다락밭을 건설하며, 셋째로 토지정리와 토지개량 사업을 하며, 넷째로 치산치수 사업을 하며, 다섯째로 간석지를 개간하는것임니다.》**

밭관개와 다락밭건설, 토지정리와 토지개량, 치산치수와 간석지개간, 이것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우리 나라 농업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반영한 혁명적방침이며 높디높은 1,000만톤의 알곡고지를 단숨에 점령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도이다.

천재적예지와 과학적통찰력으로 한랭전선의 파국적영향이 휩쓸고있는 세계를 환히 꿰뚫어보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농방법을 개선하시는것과 함께 우리 농업을 한계단 더 높이 끌어올리실 웅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대자연개조의 총진군으로 전체 인민을 부르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펼쳐주신 대자연개조의 위대한 설계도, 이것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우리 농업근로자들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해방하여 자연을 지배하는 주인으로, 자연을 개조하는 가장 힘있는 존재로 키우며 조국땅을 주체의 요구대로 변모시키기 위한 대강이다.

사람들은 오랜 세월 자연의 위력앞에 자신을 무기력한 존재로 여겨왔었다. 고대인들은 하늘에 번개가 일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그것을 《신》의 의사라고 생각하였고 따라서 《하느님》이 은혜를 베풀어야 농사도 잘될수 있다고 믿고있었다. 인간이 자연의 비밀을 안 이후에도 오래동안 사람들은 그 어마어마한 자연의 신비로운 조화를

인간의 힘으로써는 도저히 이겨낼수 없다고 여겨왔었다.

그뿐아니라 한랭전선의 파국적영향으로 온 세계가 《식량위기》, 《농업위기》를 겪으며 기아선상에서 헤매이고있는 현실은 인류가 자연의 맹목적인 횡포성과 번덕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간고한 투쟁을 해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대자연개조의 혁명적방침은 인간을 한랭전선을 비롯한 자연의 온갖 구속에서까지 건져내어 자연과 사회를 지배하고 개척하는 힘있는 존재로 키우며 그 어떤 번덕스러운 자연조건도 인간의 의지에 맞게 길들이면서 농업생산에서 언제나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게 하는 위대한 강령이다.

대자연개조의 위대한 설계도가 현실로 옮겨질 그날을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은 끝없이 흐뭇해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연개조 5대방침에 따라 앞으로 2~3년안에 40만정보의 밭관개가 끝나면 여기서만도 80만~100만톤의 알곡이 더 나오게 된다.

별방지대는 물론 중간지대와 산간지대에도 관개체계가 완성되어 온 나라의 모든 밭이랑들에 생명수 흘러넘칠것이니 그 어떤 왕가물도 두렵지 않다.

논두렁과 밭최뚝을 없애고 모든 논밭을 규격포전으로 알뜰히 정리하면 10만정보의 새땅이 거저 생겨나고 산성화된 땅과 령습지를 개량하면 정당 소출이 훨씬 높아진다.

앞으로 가까운 년간에 온 나라의 산비탈들에 15만~20만정보의 다락밭이 생겨나 팔뚝같은 강냉이 이삭이 설레이고 치산치수사업으로 무더기비의 피해를 이겨내며 사나운 바다를 밀어낸 무연한 10만정보의 간석지 논벌에 황금벼이삭이 물결치게될 때 조국강산은 그 얼마나 몰라보게 달라질것인가.

산이면 산마다 경제림과 기름나무림이 우거지고 산기슭마다에는 다락밭이 층층이 이루어지며 강이면 강마다 생명수 유유히 흐르고 기름진 논밭에는 젃줄기 끌고루 흘러들어 해마다 만풍년의 가을이 찾아올것이니 그때에 가면 우리 조국은 자연의 구속에서 해방되려는 인류의 세기적숙망을 남먼저 실현한 첫 나라로 될것이며 1,000만톤의 황금날가리를 손쉽게 쌓아갈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사랑의 손길따라 변모되는 주체의 조국강산, 그것은 정녕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는 사람이며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철학의 심오한 진리를 온 누리에 소리높이 구가하는 자랑찬 화폭이며 주체형의 새 인간들이 대를 이어 행복을 누리갈 정다운 요람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자연개조구상을 실현해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대진군은 더없이 영예롭고

보람차다.

물론 자연을 개조하는 거창한 전투는 주체의 요구에 맞게 자연을 길들이는 세기적위업인것만큼 어렵고 방대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능히 앞당겨 실현할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위력한 주체공업의 튼튼한 토대가 있고 충성의 한마음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다.

우리에게는 또한 어버이수령님의 부르심따라 전 인민적운동으로 자연을 길들여온 귀중한 경험이 있다.

우리 잠시 일제의 검은 구름에 짓눌려 사납게 거칠어지고 메달라 터졌던 조국의 자연을 다스려온 력사의 그 나날들을 생각하자.

강도 일제를 무찌르시고 조국에 개선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46년 5월 조국의 자연을 개조할 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첫걸음으로서 력사적인 보통강개수공사를 발기하시고 친히 공사착공식에 나가시여 첫삽을 뜨심으로써 대자연개조를 위한 장엄한 투쟁의 발단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따라 공사장에 펼쳐나선 근로대중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았다. 작가, 예술인들도 재난의 강을 다스리는 보람찬 전투에 참가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때 작가, 예술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시하시였다.

**좋은 일이요, 군중속에 들어가 군중과 같이 호흡해야 그들의 심정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 훌륭한 작품을 쓸수 있소. 소련대공연도 잘한다는데 더 많이 조직합시다.**

어버이수령님의 이 말씀에 가슴뜨거워오름을 금할수 없었던 작가, 예술인들은 시대앞에 지닌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더욱 깊이 자각하게 되였고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작가의 위치와 역할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였다.

그때로부터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대중속에 들어가 자신을 단련하며 군중을 고무하는 문예활동을 그 얼마나 많이 벌려왔던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보통강개수공사에로 전체 인민을 불러일으키신 그 걸음으로 때로는 이슬비내리는 백두고원에 오르기도 하시고 때로는 진눈까비퍼붓는 삼석의 밤에 해불을 드시고 비탈진 언덕길을 걷기도 하시면서 온 나라의 들과 험준한 산밭에 수리화의 새 력사를 펼치시였다.

조국의 수만리 산야와 들길에 현지지도의 거룩한 자욱을 아로새기신 어버이수령님의 대자연개조방침에 의하여 우리 농촌에는 이미 100만정보의 관개면적과 대규모의 파수면적이 꾸러지고 800만톤 이상의 알곡을 생산해내는 살진 땅이 가꾸어졌다.

하거니 이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2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자연개조 5대방침이 관철되는 그날 우리 나라는 그 어떤 왕가물에도, 그 어떤 큰물에도 끄떡하지 않고 해마다 1,000만톤이상의 알곡을 안전하게 생산해내게 될것이니 이 얼마나 벅찬 과업인가.

당은 이미 1958년 9월전원회의의 결정을 받들고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동원되여 100만정보의 관개면적을 늘이던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자연개조 5대방침관철을 위한 전인민적운동을 다시한번 힘있게 벌릴것을 호소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무한히 충직한 영웅적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 사무원들과 학생들은 당중앙위원회 1976년 10월전원회의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혁명적구호밑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자연개조 5대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총돌격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벌써 수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전당, 전국, 전민이 대자연개조의 총돌격전에 떨쳐나서 조국강산을 주체의 락원으로 변모시켜가는 이 장엄한 시각 우리 작가들앞에도 자연개조 5대방침관철에 적극 참가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지난 시기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생산현장에 나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예선전활동으로, 직접적인 로력투쟁으로 자신을 혁명적으로 단련하는 한편 로동자, 농민들의 생산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우리는 새해에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대자연개조 공사장에 달려나가 조국강산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다양한 문예선전활동으로 자연정복자들의 로력투쟁을 고무할 결의에 가득차있다.

우리 당은 우리의 모든 작가들로 하여금 언제나 들끓는 현실속에서 근로자들과 같이 생활하고 그들과 같이 기쁨을 나누며 그들과 같이 벅찬 투쟁을 체험하면서 주체시대의 개화만발하는 현실을 잘 형상한 좋은 작품들을 많이 써낼것을 요구하고있다.

안온한 창작실에서가 아니라 대자연개조공사장에서 쪽잠을 자면서 로력투쟁을 벌리고 자연정복자들의 심정으로 작품을 쓰는것은 우리 시대 작가들이 갖추어야 할 혁명적창작기풍이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치주신 자연개조의 웅대한 설계도를 충성의 심장에 받아안고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혁명적작가의 의무를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자연개조 5대방침관철에 적극 이바지하고 조국강산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해가는 거창한 전투의 주인공들을 생동하게 형상하여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자.



# 혁명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는 주체적 동화, 우화 문학건설의 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전 반사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 지금으로부터 다섯해전인 1972년 1월 24일, 동화, 우화 문학 창작과 관련하여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는 동화, 우화의 내용과 형식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고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는 동화, 우화 문학을 성과적으로 건설하는 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강령적지침으로 되었으며 또 되고있다.

온 나라가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거창한 전투로 불도가니마냥 들끓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동화, 우화 창작과 관련하여 강령적인 교시를 주신 때로부터 다섯돌이 되는 날을 뜻깊게 맞는 우리 작가들은 우리 시대 동화, 우화 문학의 새로운 발전의 길을 열어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흠모의 정으로 가슴을 불태우고있다.

돌이켜보면 동화, 우화 문학의 역사는 수천년을 헤아리지만 사회주의사회에서 동화, 우화 문학을 어떻게 발전시킬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때까지 그 어느곳에서도 해결하지 못하고있었다.

그리하여 지난날에 창작된 계급선이 모호한 동화, 우화를 사회주의사회에서도 그냥 답습하는가 하면 그런 동화, 우화를 비판하던 나머지 그 예술적형식까지도 거부하면서 우리 시대에 와서는 동화, 우화가 필요없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러한 사태를 꿰뚫어보시고 지금으로부터 다섯해전에 동화, 우화의 예술적형식과 거기에 담을 내용에 이르기까지 동화, 우화 문학 창작에서 제기되는 전반문제를 모두 명백히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력사적인 교시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서 중요한것은 그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자면 아동영화를 직선적으로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것만 만들지 말고 동화나 우화 같

은것을 가지고 의인화의 수법으로 선한것과 악한것, 옳은것과 그른것, 고운것과 미운것을 가르치는 교양적이고도 흥미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이 교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 동화와 우화 문학의 내용과 형식이 어떤것으로 되어야 하는가를 명철하게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력사적인 이 교시에서 아동영화주제의 폭을 넓힐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무엇보다먼저 동화, 우화 문학의 예술적형식과 수법이 어떤것으로 되어야 하는가를 명백히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아이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하자면 동화, 우화와 같은 형식으로 의인화의 수법으로 써야 한다고 밝혀주시었다.

의인화는 사물현상을 사람과 같이 사고도 하고 말도 하고 생활도 하게 하여 비유적방법으로 인간생활을 그리는 동화, 우화의 기본형상수법이다.

그것은 의인화가 복잡하고 심오한 인간생활과 사회현상을 어린이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알기 쉽게 형상적으로 인식시키는데서 매우 효과적인 수법이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력사적인 이 교시에서 어린이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의인화를 거기에 가장 알맞는 예술형식으로 규정해주시었을뿐아니라 거기에 담을 내용까지도 명백히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력사적인 교시에서 동화와 우화의 내용을 선한것과 악한것, 옳은것과 그른것, 고운것과 미운것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우리의 동화, 우화 문학에서 로동계급적선을 똑바로 세울수 있게 하여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혁명교양, 계급교양에 알맞는 동화, 우화의 내용을 력사상 처음으로 가장 정확히 규정해주심으로써 동화, 우화 창작에서 로동계급적선을 뚜렷이 세우면서도 그 예술적형식을 무한히 발전시킬수 있는 광활한 길을 열어주시었다.

지난날에는 동화나 우화의 특성을 살리면서 로동계급적선을 세우는 문제는 풀기 힘든 문제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 동화, 우화의 특성을 살리면 계급적선을 세울수 없고 계급적선을 세우려면 동화, 우화의 특성과 예술적형식을 살릴수 없는것으로 여겨왔다.

이 문제는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동화, 우화의 형식과 내용을 명백히 밝혀주심으로써 비로소 완벽한 해명을 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작가들은 동화, 우화의 예술적형식과 사상적내용을 옹계 결합시키고 교양적인것과 흥미를 옹계 결합시키는 길을 찾을수 있게 되었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이와 같이 동화, 우화 문학 발전력사에서 일대 사변으로 되었으며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는 동화, 우화 문학건설의 새로운 시기를 열어놓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받들고 지난날 우리 작가들은 혁명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는 주체적인 동화, 우화 문학건설의 보람찬 길우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의 동화, 우화 문학은 내용에서 로동계급적선이 똑바로 선 사회주의적인것으로 일관되고있을뿐아니라 그 예술적형식과 수법도 주체의 요구대로 끊임없이 개화발전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작가들에 의하여 창작된 동화작품인 《까치네 새집들이》를 비롯하여 수백편의 동화, 우화 문학작품들은 자라나는 세대대들의 혁명교양, 계급교양에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예술수단으로 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지난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주체적인 동화, 우화 문학 건설의 길에서 거둔 창작적성과에 기초하여 주체시대의 요구와 우리 어린이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는 동화, 우화 문학을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재능과 열정을 다 바쳐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소년단원들은 책읽기를 좋아하며 시간을 아껴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오늘 우리 나라의 수백만 어린이들은 좋은 책을 더 많이 읽기

위하여 모두가 독서행군에 참가하고있으며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작품과 함께 혁명하는 시대와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주체적인 동화, 우화 작품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주체적인 동화, 우화 창작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 동화, 우화 건설리론을 깊이 체득하고 그이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들려주신 동화, 우화의 본보기작품,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깊이 학습해야 할것이다.

동화, 우화 문학을 시대의 요구와 급격히 발전하는 우리 어린이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상적내용에서 로동계급적선을 날카롭게 세우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화, 우화 문학의 사상적내용에서는 계급적선이 모호한 《범벅이 동화》, 《얼룩우화》의 요소가 조금도 발붙일수 없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적인것과 자본주의적인것, 공산주의적인것과 봉건유교적인것 사이의 계선을 날카롭게 긋고 로동계급의 계급적요구를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 그리하여 동화, 우화 문학이 세대대들에게 온갖 창작계급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키워주고 로동을 사랑하며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도록 키워주는 공산주의교양의 강유력한 무기로 되게 하여야 한다.

동화, 우화 문학의 사상적내용뿐만아니라 예술적형식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게 동화, 우화 문학에서 새로운 예술적수법과 형식들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대담하게 발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의인화의 수법을 널리 도입하는 문제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동화나 우화를 의인화의 수법으로 만들데 대하여 주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의인화의 수법을 계속 형상에 적극 받아들여야 할것이다. 아이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는 의인화의 수법을 널리 받아들이는것은 주인공들을 다양하게 형상할수 있게 하고 동화의 양상을 무한히 폭넓게 발전시킬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의인화의 수법을 통하여 우리는 수천, 수만을 헤아리는 우주의 천태만상을 다 주인공으로 만들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 환상세계를 무한히 펼쳐나갈 수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화, 우화 창작에서 의인화의 폭을 결정적으로 넓혀야 한다.

작가의 부단한 탐구속에서 얻어지는 새로운 발견이 없이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의인화의 몇개 수법만을 그냥 되풀이한다면 언제나 새것에 민감한 어린이들의 마음에 드는 동화, 우화를 옹계 창작할수 없다.

동화문학의 의인화 대상은 그야말로 무한한것만큼 결코 미옥한 꿈, 경망스러운 토끼, 게으른 너구리, 부지런한 다람쥐, 간악한 승냥이, 교활한 여우, 건방진 메돼지 등과 같이 몇몇 상식적인 성격들만 자주 반복, 등장시켜서는 안될것이다. 우리들은 아이들이 잘 알고 친숙해진것만 의인화할뿐아니라 새로운 사물현상을 끊임없이 의인화대상으로 받아들이며 동화의 세계를 다양하게 넓히고 어린이들의 인식세계도 더욱 넓혀주어야 할것이다.

우리는 또한 동화창작에서 환상세계를 대담하게 펼쳐주어야 한다. 동화문학에서 미래에 대한 랑만한 황홀한 환상-이것은 언제나 래일을 지향하는 꿈많은 아이들의 심리적특성에 꼭 알맞는 예술적수법이다. 미래는 어린이들의것이며 그들이 개척해나아갈 세계이다.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앞날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며 행복하고 보람찰 미래를 앞당겨오기 위한 투쟁에 발벗고 나서게 하는 불씨를 심어주자.

동화의 환상이 아이들의 생활을 미래의 신념에로 이끌어주지 못하고 현실보다 뒤떨어진 락후한 환상세계를 펼쳐주거나 중세기적인 관념론적세계관에 기초한 환상을 그대로 재현하여서는 안될것이다.

우리들은 동화창작에서 3대혁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영웅적이고 랑만한 현실을 적극 반영해야 할것이다.

참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와 3대기술혁명 그리고 자연개조 5대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불도가니마냥 들끓고있는 우리 현실은 우리 작가들에게 얼마나 많은 동화, 우화 문학의 소재를

제공해주고있는것인가.

우리 작가들은 사회주의대건설로 들끓고있는 벽찬 우리 현실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지향을 적극 반영한 새로운 참신한 환상을 끊임없이 개척하고 적극 도입해야 할것이다. 그리하여 꿈많은 우리 꽃봉오리들을 미래를 사랑하는 사상과 풍부한 정서와 랑만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는데 더 힘있게 이바지해야 할것이다.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동화, 우화 문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또한 종자의 선택에서 개성적이고 독창적인것을 적극 탐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동화, 우화의 착상, 구성과 언어표현에서 류사성을 없애고 독창성을 남김없이 발양해야 할것이다.

동화는 질은 시적서정과 심오한 철학적사색이 겸비되면서도 어린이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복잡하지 않은 명료한 얹음새로 짜여있어야 한다. 어린이들의 심리적특성을 고려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구성이 단순하거나 작품의 첫머리에서 전반적인 내용으로 출되게 되어서는 안될것이다.

동화는 가장 형상적이고 생동한 표현으로 어린이 독자들의 심장속에 새로운 세계를 펼쳐주어야 할것이다. 다양한 형용어와 참신한 상징사들을 새롭게 탐구하여 능숙하게 쓸 대신 늘썹 보아왔거나 다른 작품에서 이미 읽어온 표현들과 딱딱하고 어려운 고식적어휘들을 그대로 써서는 안될것이다.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는 동화, 우화를 훌륭히 창작하기 위해서는 작가들의 기량을 높이는 문제가 절실하게 제기된다. 현실속에 들어가서 의의있는 종자를 골라잡으며 형상의 꽃을 피우는데서 성과여부는 결국 작가의 기량여하에 결정적으로 달려있다.

작가들은 어제의 꿈이 오늘의 현실로 되고 래일에는 이미 평범한것으로 되버리는 벽찬 사회주의대건설의 한복판에 서서 어버이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안고 주체시대의 요구와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에 맞는 동화, 우화 문학의 화원을 보다 다채롭게 활짝 꽃피워나가야 할것이다.

원도홍

## 우리 시대 농민의 전형을!

고병삼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5돐을 맞이하는 이 뜻깊은 해에 무엇을 할것인가!

당의 품속에서 자라 당의 따사로운 햇빛속에서 작가로, 혁명가로 살고있는 나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보람찬 일이 어디에 또 있을것인가!

나는 가슴속깊이에서 고동치는 뜨거운 심장의 박동소리를 들으며 한자한자 충성을 바쳐 써야 할 새해의 창작결의를 가다듬고있다.

나는 지난해에 황해남도의 농촌들에 나가보았다. 한랭전선의 불가항력적인 힘이 지구의 온 판도를 뒤덮고 인간을 기아와 공포속에 몰아넣기 시작한 이 간고한 력사의 년대에 우리 나라 농촌은 어디라 없이 대풍이 들었다.

나는 이 풍년든, 행복에 넘치는 끝없는 들에서 우리 당의 농업정책을 높이 받들고 헌신적으로 싸워온 농촌혁명가들을 수없이 만나보았다.

서로 살아온 경위가 다르고 성미도 다 같지 않지만 그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진 하나의 공통한 신념,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 바치는 변함없는 충성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 다시말하여 당성은 무엇보다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집행하는데서 나타나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깊이 새기고 당의 로선과 정책, 당에서 하라고 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집행하는 참된 혁명가들!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처럼 한생을 수령님을 우러러 당을 우러러 한발자국도 드팀없이 참되게, 고결하게 우리 당의 농촌진지를 지켜온 주체형의 혁명가들!...

기쁨도 슬픔도 고난도 행복도 오직 우리 당과 함께 나누며 일편단심 혁명의 한길에 충성을 쫓피운 소박하고 열렬한 우리의 농촌혁명가들!...

나는 이 불멸의 아름다운 인간군상, 주체형의 농촌혁명가들의 화랑을 창조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위업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

나는 내가 다진 이 결의가 어느만큼 실천에 옮겨 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략관할수 없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5돐을 맞는 이해에 충성

의 선물을 마련해야 한다는 변함없는 결심, 충성의 열망이 나를 비상한 창작적열정속에 이끌어가리라는것만은 의심할바 없다.

나는 이해 첫날부터 이 한해가 저물어가는줄 모르고 쓰고쓰고 다듬으며 창작적열정을 바쳐 년내로 장편소설을 완성할것이다.

## 시가의 총창을 비껴들고

정렬

나는 우리 인민군초병들과 함께 다가오는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두고 희망에 찬 새해를 맞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 예술인들은 우리 당과 혁명의 깊은 뿌리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작품과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아 조국해방전쟁시기 용감하게 싸운 인민군용사들과 인민들의 영웅적투쟁업적을 형상한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하겠습니다.》**

이해의 벽두에 나의 눈앞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발자취가 스며있는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본 그날의 감격이 다시금 차올라 새로운 창작적열의로 가슴은 불타오르고 있다.

진달래꽃이 한창 피어나던 5호물동과 청봉속영지, 삼지연못가의 아름다운 풍치를 보며 새로운 투쟁결의를 가다듬던 투사들의 모습이 안겨온다.

나는 백두에서 시작된 조국의 산발들을 주름잡으며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군용사들과 인민들이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아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화선천리 옛 격전터들도 밟아보았다.

최고사령관 **김일성** 원수님께서 쏟아지는 불바다를 헤치시며 최전선 전호가에 오시여 1211고지전투를 몸소 지휘하신 영광의 혁명사적지들.

무수한 파편이 널린 옛 전호가에 섰노라니 여기는 최전선이라고, 더는 앞으로 나가실수 없으시고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러 울먹이며 아뢰던 전사들의 뜨거운 숨결소리 지금도 귀가에 들려오는듯하다.

나는 옛 병사시절의 마음으로 직동령도 감회깊게 넘었고 청두리의 9용사 샘물터를 거쳐 하늘아래 웅자로 장엄히 솟아있는 영웅의 1211 고지에도 올랐었다.

그앞에 파도쳐나간 리수복고지, 열아홉 청춘의 가슴으로 불뿔는 적화구를 맞받아 달려간 영웅의

돌격로우에서 발길을 떼지 못하며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하였던가.

바로 이 일대에서 거친 파도처럼 밀려오던 미제 침략군의 사단들이 절벽가의 물거품처럼 부딪쳐 산산이 깃부서졌고 조선의 영광은 세기의 하늘에 금문자로 찬란히 새겨졌다.

나는 발아래 미제의 패전장을 흐뭇이 굽어보고 더듬어보면서 깊은 충동과 흥분을 억제하지 못했다.

혁명전적지들과 화선천리 옛 격전터, 나는 거기에서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을 맹세하며 자기의 청춘도 생명도 다바쳐 싸운 항일혁명선열들과 인민군 전사들의 불타는 숨결을 안아왔고 병사시절의 전투적기백과 붓을 들지 않고는 건딜수 없는 시상을 안고 왔다.

《또 오십시오, 꼭 좋은 시를 써서 우리들을 기쁘게 해주십시오.》

혁명전적지의 강사들과 매봉초소의 초병들이 멀리까지 따라오며 배웅해주던 그 목소리...

그들의 부탁, 그들과의 약속을 나는 이해에 어길 수 없다.

불타는 열정과 전투적인 패기를 안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의 위대한 풍모를 모신 시들과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내용으로 한 시들을 사상에술적으로 우수하게 창작할것이며 시조 《1211고지는 엄엄히 머리 들었다》를 질적으로 쓰겠다.

또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 원수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려는 우리 일당백 초병들의 불타는 충성심을 반영한 작품들을 사상에술적으로 우수하게 창작하기 위하여 모든 정열을 깡그리 바치겠다.

계급적원썹들에 대한 병사들의 분노를 그대로 시상에 비껴담아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머리우에 폭탄처럼 철추를 내리기 위하여 시가의 총창을 더욱더 예리하게 버리겠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과 인민군전사들의 일당백의 용맹과 전투적패기에 넘치는 시를! 결전장에서 대오를 부르는 돌격나팔소리처럼 울리는 시를! 행군의 숙영지에서는 없어서는 아니될 병사들의 다정한 벗이 되기를.

이것이 이해에 다지는 나의 창작결의이다.

## 교양적이고도 흥미있는 동화창작의 해로!

문경환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72년 1월 24일 아동들의 연령, 심리적특성에 맞게 동화와 우화를 많이 쓸데 대하여 주신 강령적인 교시를 높

이 받들고 저는 올해에 의인화의 수법으로 교양적이고도 흥미있는 동화, 주제적이고 혁명적인 동화 창작에 있는 힘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5돛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장편동화 《해쑹는 나라》를 세상에 내놓겠습니다.

공해가 없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동화적형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산호섬에서 열렸던 만국동물체육대회가 파란되는것으로부터 시작된 이 장편동화 《해쑹는 나라》를 발표한데 이어 계속 교양적이고도 흥미있는 동화창작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그리하여 올해 상반기중으로 과학환상동화 《땅속나라 여행기》 창작을 위한 현실체험을 끝내렵니다.

미지의 세계인 땅속나라에 대한 현실체험, 그것은 열차를 타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특지를 달리거나 은빛날개를 번쩍거리는 려객기를 타고 하늘길로 날아가는 유쾌한 여행은 아닐것입니다.

그러나 현대과학의 힘을 빌어 땅속세계의 비밀의 문을 열고 수십억년 잠들어있는 보물들을 깨워 일으키는 저의 여행은 난관은 좀 많겠지만 땀을 많이 흘린것만큼 열매도 역시 작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수백만 어린 독자들에게 훌륭한 책을 더 많이 읽게 하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심리를 덜어드리기 위하여 올해안으로 《땅속나라 여행기》의 초고를 끝내겠습니다.

저는 올해 어버이수령님께서 동화문학부문에 주신 교시들을 비롯한 문예부문교시와 당의 문예방침을 더 깊이 연구할것이며 동화적환상의 날개를 활짝 펴기 위한데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형상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겠습니다.

그리하여 교양적이고 흥미있는 동화를 씌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를 창조하는 역센 날개를 달아주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투쟁과 혁신으로 부르는 전투적인 노래를!

전병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거창한 불길속에서 또 한해가 저물고 새해아침이 밝아왔다.

투쟁과 혁신으로 부르는 영광의 새해 1977년.

새해를 맞는 나의 마음은 마냥 어린 아이와 같이 더없는 흥분을 안고 설레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밝혀주신 자연개조 5대방침의 휘황한 설제도를 따라 주체의 이 강산을 더 아름답게 꽃피워가는 근로자들, 지하천길 막장의 탄부들과 동력전사들, 새해 첫 전투부터 새

로운 기적을 떨치고있는 그들의 투쟁모습은 얼마나 나를 흥분시키고있는것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문학예술부문에 주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혁명적인 가사들을 이해에 더 많이 창작할 결의로 나의 가슴은 불타오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인 노래를 창작하는데서 가사를 잘 쓰는것이 중요합니다. 가사를 내용있게 잘 써야 합니다.》**

아버이수령님의 높이신 뜻을 받들고 새로운 창작적결의로 하여 부글부글 끓고있는 나의 가슴은 마치고 불도가니같다.

그렇다, 나의 붓끝은 지금 수백만 군중의 심금을 울리는 혁명적인 노래 창작에로 달리고있는것이다.

새해에 나는 무엇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떨쳐나선 우리 영웅적로동계급들을 보다 더 힘차게 고무하는 전투적인 가사들을 더 많이 창작하려고 한다.

우리의 영웅적인 로동계급은 사회주의대전설의 모든 전투장들에서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을 바치며 기적과 혁신을 이 강산에 수놓아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 65돐을 맞은 이해에 창조의 불길을 더욱 높이 올리고있는 우리 로동계급의 생활감정을 반영한 혁명적인 가사들을 창작하기 위하여 생활탐구를 더욱 진지하게 할 결심이다.

발전소 언제건설장의 불꽃튀는 전투장들과 대자 연개조로 들끓고있는 보람찬 현실속에 뛰어들어가 로동자들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면서 그들이 사랑하는 혁명적인 노래, 투쟁과 혁신으로 고무하는 전투적인 노래들을 더 많이 창작하겠다.

그리하여 다른 모든 예술작품들과 함께 우리 당정책이 집중적으로 반영되어있는 가사문학, 먼 후일에도 혁명적인 노래를 부르며 오늘의 벽찬 현실과 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을 회고하게 하는 그러한 작품을 창작하는데 보다 더 박차를 가할것이며 가사혁명에서 일대전환을 가져오도록 하겠다.

이 결의, 이 포부가 헛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 더 분발하여나가겠다.

## 창작과 학습의 해로

리종렬

새해 1977년!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지난해를 보내고 보다 큰 새로운 승리와 위대한 변혁을 약속하는 새해를 맞은 온 나라의 근로자들과 함께 우리 문학대오의 전사들의 가슴도 불같은 투쟁결의로 충만되어있다.

당중앙은 우리 작가들이 자기의 기량을 높여야 당의 문예전사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다고 가르치였다.

나는 새해에 창작적기량을 높이기 위한 학습을 더 강화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현실속에 들어가 우리 독자들의 날로 높아지는 미학적정서적요구에 대하여 느낄 때마다 작가의 창작적기량문제에 대하여 가슴깊이 생각하게 된다.

10년, 20년전과 같은 사색의 깊이, 감각, 문체로 써는 오늘의 우리 근로자들을 만족시킬수 없다.

비약적으로 전진하는 현실과 우리 문학의 거리감을 없애거나 줄이자면 학습하고 탐구하고 또 학습해야 한다.

나는 이해에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당중앙의 독창적인 문예방침을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학습하겠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정책을 모르고서는 혁명화할수 없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아무리 당에 충실하겠다고 해도 당정책을 모르면 당의 로선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며 그것은 결국 당에 충실하지 못한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정책을 잘 연구하여야 하며 당정책대로 생각하고 당과 같이 숨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이바지할 혁명적문학예술작품창작에 자기의 온 심장과 마음과 열정을 기울이고있는 당적작가에게 있어서 우리 당의 사상, 우리 당의 의도, 우리 당의 방침을 학습하고 연구하는것은 너무나 응당한 일이며 또한 둘도 없이 자랑차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와 함께 나는 장편소설의 구성의 다양성, 인물 배치, 묘사문제들에 대하여 모를 박고 연구하려고 한다.

끝없이 설레이는 검푸른 바다는 무한대한 힘과 한마디로 짝어 말할수 없는 매력으로 나의 마음을 끈다.

령하 15도를 넘는 강추위, 어둠속에서 사납게 울부짖는 바다... 해안포사거리 저쪽에서 미친듯이 돌아치는 미제침략군해적선들의 탐조등 불빛들이 파도를 스친다. 인민군 해군병사들은 기뢰를 부설하기 위하여 바다로 나간다.

나는 새해에 인민군해군병사들의 영웅적위훈을 반영한 중편소설 《해안》(가제)을 창작하려고 한다.

나는 몇년전 미제침략군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나포한 전투에 참가한 공화국영웅을 만나 그와 함께 해군기지의 방파제우를 거닐며, 함장실에서 밤을 새우며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다. 지난해에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영예군인 공장들을 찾아다니며 해병들의 생활에 대한 자료들을 취재하였다.

금년 10월 10일까지 중편소설을 완성하여 아버지수령님께 충성의 선물로 드리겠다.

## 어떤 역경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목숨으로 옹호보위한 항일유격대원들이 우리 문학의 주인공이다

혁명과 건설의 참된 주인공들인 주체형의 인간들을 훌륭히 형상화하여 그 모범으로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도록 교양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는것은 우리 문학, 주체의 인간학의 기본사명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 문학작품에서 그러야 할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주인공은 어떠한 인간으로 되어야 하는가, 《조선문학》 편집부가 지상토론설문에서 제기한 이 문제를 놓고 우리는 실로 많은것을 생각해보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주인공, 우리 혁명적작품의 주인공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신뢰에 기초하여 그 어떤 시련과 역경속에서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워하는 그러한 인간으로 되어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여 높이 모시고 자신의 운명뿐만아니라 후손만대의 운명까지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는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시며 끝없이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어 우리의 빛나는 력사가 있고 오늘의 끝없는 보람과 행복이 있으며 우리 조국의 휘황한 래일과 후손만대의 무궁한 통성번영이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는 우리 혁명의 승리를 생각할수 없고 투쟁할수도, 전진할수도 없을뿐만아니라 도대체 살아나갈수가 없는것이다.

실로 조국의 운명과 인민의 념원을 한몸에 지닌 신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은 곧 우리 혁명의 승리의 담보이며 우리 인민의 최대의 행복이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력사적체험에 기초하여 심장깊이 새겨넣은 움직일수 없는 신념이며 철석같은 의지이다.

바로 그러기에 주체형의 혁명가들은 언제 어디서

나 위대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워하는것을 지상의 요구로, 제일생명으로 여기고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견결히 싸우는것이다.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지니고 아무리 어려운 시련속에서도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목숨으로 보워하는것을 제일생명으로 삼는 혁명적신념과 불굴의 의지는 주체형의 혁명가, 우리 문학의 주인공을 특징짓는 기본징표이며 가장 고결한 사상정신적특질이다.

이러한 숭고하고 고결한 사상정신적품모를 지닌 주체형의 혁명가를 작품의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예술적으로 빛나게 형상화하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서고있는 오늘 우리 문학예술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이며 특히 조성된 현정세로부터 제기되는 가장 초미의 문제이다.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앞에 나선 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사명을 훌륭히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류레없이 간고한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나가면서 생명도, 청춘도 다바쳐 위대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워하고 그이의 명령지시를 끝까지 옹호관철한 항일유격대원들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해야 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가운데는 적들로부터 사령부의 안전을 보위하기 위하여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바친 동지들도 많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진두에 나서신때로부터 반세기에 걸치는 우리 당의 혁명력사에는 어려운 시련의 시기가 많았으며 그중에서도 항일무장투쟁은 력사상 일찌기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간고한 투쟁이었다.

지금의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엄혹한 시련속에서 항일유격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영원히 충성다하는 길은 오직 어떤 역경속에서도 경애하는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목숨으로 옹호보

위하는데 있다는 진리를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었다.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였던 항일혁명투사 오중흡동지도 바로 이러한 주체형의 혁명전사들중의 한사람이었다.

오중흡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에 안긴 그날부터 언제 어디서나 사령부의 안전,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위함이라면 그 어떤 간난신고도 가리지 않고 자기의 한목숨을 서슴없이 바쳐가며 완강히 싸웠다.

우리 혁명앞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왔던 1938년 겨울 《고난의 행군》 과정에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지켜싸운 그의 영웅적인 투쟁에 대해서만이라도 돌이켜보기로 하자.

일제야수놈들은 《최강》을 자랑하던 관동군의 대병력과 중국본토에서 《전선정에부대》까지 끌어내오기도 모자라 위만군과 경찰까지 끌어모아도 합 20만의 대병력과 항공대까지 동원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사령부를 《소멸》한다고 미친듯이 날뛰던 참으로 준엄한 시련의 시기였다.

놈들의 기도를 명철하게 꿰뚫어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집중되는 적 《토벌》력량을 세계방향으로 유인분산시키기 위하여 련대들로 하여금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명령하시고 자신께서는 경위 중대와 기관총소대만을 친솔하시고 활동하시게 되었을 때 오중흡동지는 자기 련대가 적의 주력을 헌신적으로 끌어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할 단호한 결심을 내리었다.

그는 자기 련대를 사령부로 가장하여 적의 주력을 뒤에 단 다음 잠시도 놈들을 놓아주지 않고 사령부가 활동하는곳과 멀리 떨어진 상강구방향으로 줄곧 끌고갔다. 한발자국이라도 더 멀리 끌고갈수록 사령부가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는 자지도, 쉬지도, 먹지도 못하고 밤낮 끊임없이 대적과 결사전을 벌리면서 강행군을 계속하였다.

오중흡동지의 생각대로 련대를 사령부로 잘못 알고 진드기처럼 달려드는 적 《토벌대》 주력의 련속적인 공격, 박달나무도 얼어터지는 모진 추위와 몇길씩 앞을 막아나서며 앙탈을 부리는 사나운 눈보라, 날이 갈수록 기력이 진행되는 대원들의 어려운 형편…참으로 곤난의 심도는 이루 헤아리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오중흡동지는 한순간이라도 적들을 놓아줄수 없었으며 잠시도 놈들이 숨돌리는것을 허용할

수가 없었다. 놓아만 주면 적들은 제놈들이 속았다는것을 눈치챌수 있었으며 그렇게만 되면 사령부가 활동하고있는 하강구쪽으로 되돌아설수 있었기때문이다. 이것을 생각할수록 오중흡동지는 몸이 찢겨 가루가 되는 한이 있어도 놈들을 끌고 더 빨리, 더 멀리 가야 한다는 한가지 결심만이 강철같이 굳어졌다.

맥이 진한 대원들의 정상을 보다못해 식량을 구하려 떠나겠다고 제기하는 련대군수관에게 오중흡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직은 좀 더 견디어내야 하오. 적들을 더 멀리 끌고간 다음에 놈들을 따돌리고 식량을 마련해야 사령부가 안전할것이 아니요. 좀 피롭더라도 며칠동안 놈들을 더 끌고잡시다.》

오중흡동지는 이렇게 대원들의 가슴에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충성의 한마음과 억척만번 죽더라도 사령부의 안전을 기어이 지켜내리라는 강철같은 투지를 길러주면서 싸움과 고난으로 련속되는 낮과 밤을 이어 강행군을 계속하였다. 그는 기운이 진하여 휘청휘청 겨우 걸음을 옮기다가도 수령님의 안녕을 위하는 오직 한가지 생각으로 적들이 달려들면 사자와 같이 내달려 죽쳐댔으며 놈들이 맥이 빠져 미쳐 따라오지 못할 때에는 되돌아가서 적의 숙영지를 들이쳐 놈들이 뒤꼬리를 따라서지 않고서는 못배기게 하였다.

이렇게 결사적인 싸움과 피어린 노력으로 겨우내적 《토벌대》 주력을 물리치고 사령부에 돌아와 건강하신 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러보옵는 순간 너무도 기쁘고 감격하여 보고도 제대로 올리지 못한채 수령님의 품에 얼굴을 묻고 오래동안 어깨만 들먹이였다.

과연 그 무엇이, 그 어떤 마음이 투사들을 것처럼 간고한 역경속에서도 오직 한길, 어버이수령님의 안녕을 목숨으로 사수하는 길로 떠밀어주었던가.

그것은 바로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살며 싸우는것을 최대의 행복, 최고의 영예로 여기는 철석같은 혁명적신념이며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서는 조국도, 혁명도, 투쟁도, 승리도 없으며 자신의 그 어떤 삶도 무의미하다는 투철한 주체의 혁명관이였다.

바로 이처럼 항일유격대원들은 일찌기 류레없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혁명의 심장이시며 뇌수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더 높이, 더 잘 모시고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오직 하나의 길만이 영원



한 행복의 길이라는것을 생동한 모범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었다.

우리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의 길은 아직 멀고 의연히 간고하다.

은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역사적위업을 실현하며 미제와 박정희피뢰도당을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자면 무엇보다도 전체 인민이 다 항일유격대원들처럼 어떤 역경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만을 믿고 따르며 목숨으로 사수하는 견결한 주체형의 혁명전사로 튼튼히 준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하였던 주체형의 혁명가들인 항일유격대원들을 작품의 주인공으로 하고 그 성격을 빛나게 창조하는것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피가 끓는 공산주의 적인간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할 사명을 지닌 우리 문학의 가장 중요하고도 절박한 과업으로 되는것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 단편소설문학분야에서는 혁명전통주제의 작품을 적게밖에 내놓지 못하고있으며 특히 항일혁명투사들의 성격을 응당한 높이에서 형상화해내지 못하고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모든 작가들이 혁명전통주제의 작품창작에 계속 응당한 주목을 돌리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교양하는데 모범으로 되는 항일유격대원-주체형의 주인공의 형상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조하기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주인공의 영웅적행동을 옹계 보여주는것이며 이와 함께 그들의 심장속에 간직된 혁명적신념,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것을 최대의 행복, 최고의 영예로 여기고 어떤 폭풍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을 옹호보위하는것을 제일 생명으로 삼으며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기만 하면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 확고한 주체의 혁명관을 잘 펼쳐보여주는것이다.

오중흡동지의 경우만 놓고보더라도 그가 위대한 수령님께 그토록 끝까지 충성다할수 있는것은 길가의 조약돌처럼 굴러다니던 자신에게 혁명가의 참된 삶과 보람과 영예를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대

한 절대적인 충실성, 수령님을 더 높이 모시고 끝까지 따르는 그 한길에서만 영원한 행복과 영광이 있다는 철석같은 하나의 신념밖에는 티끌만한 잡생각도 없었기때문이다.

그것은 그가 대원들과 동지들에게 언제나 들려준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똑똑히 알수 있다.

《사령부를 보위하는것은 곧 조선혁명의 심장을 보위하는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사령관동지의 명령에 무한히 충실할뿐 아니라 그분의 안전을 보위하기 위하여 목숨바쳐 싸워야 하오...》

참으로 항일유격대원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은 혁명과 투쟁, 행복과 영예, 미래와 희망의 전부이시였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기의 모든 사고와 실천을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더 높이 모시고 더 잘 보위하는데 귀착시켰으며 언제나 이것을 첫째가는 행동준칙으로 삼았다.

주체형의 혁명가-항일유격대원들을 주인공으로 형상화하는데서 우리는 반드시 이 점을 깊이 파고 들어야 하며 예술적으로 심오하게 부각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끝까지 충성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똑똑히 깨닫게 할수 있으며 항일유격대원들이 실천투쟁으로 확증한 이 혁명의 진리가 거대한 감화력을 가지고 독자대중의 심장속에 깊이 스며들어가 충성의 한길로 떠밀어줄수 있는것이다.

그러하여 항일혁명선열들이 그러했던것처럼 모든 근로자들이 언제나 변함없는 티없이 깨끗한 충성심을 간직하고 아무리 사나운 폭풍이 휘몰아쳐와도 용감히 맞받아나가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목숨으로 사수하며 끝까지 충성다하도록 교양하는데서 우리 문학이 맡은 중대한 사명을 영예롭게 수행해야 할것이다.

나는 끝으로 우리의 소설문학이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였던 항일유격대원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들의 빛나는 형상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조하여 보여줄것을 기대하는바이다.

백경을

## 해당화

박명도

### 머리시

해당화 해당화

야금기지에 만발한 동해의 해당화야

너를 볼 때마다

어찌하여 이토록 내 가슴 뜨거워지느냐

바다가 백사장에만 핀다던 네가

연분홍 꽃잎에 티 앓을세라

솔밭속에 숨어서 핀다던 네가

구내공원 끝에서 끝까지

이리도 아름다이 피어났느냐

파도소리가 아닌

회전로 동음속에 자고깨며

동해의 해돋이가 아닌

주홍색 쇠물빛을 황홀히 쳐다보며

가지에 가지를 뺄고 송이에 송이를 세 간내며

깊이깊이 뿌리내리는 해당화, 해당화

내 너를 안을 때마다

향기롭고 호합진 네 꽃송이에

내 불을 비빌 때마다

무쇠같은 이 가슴에도

시가의 분화구가 터져나와라

세상에서 가장 귀중함을

근로하는 사람으로 여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따사로운 빛발이

네 꽃송이마다에도 깃들어있거니

너와 함께 웃고

너와 함께 이슬을 흠치며

내 이 글을 쓰노라

이 세상 시가에 아직 없었던

근로하는 사람에 대한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 제 1 장 처녀가 안고 온 해당화

#### 1

축포

축포

은금빛 쇠물축포가

철의 도시 밤하늘에 치솟아오른다

쇠장대 총창같이 추켜들고

누리를 향해 만세를 웨치는

저 불타는 용해공들의 가슴가슴에서

축포가 솟는다

《립철생산-신기록 돌파!》

이는 미제의 머리우에

또 한번 불벼락을 들썩운것

이는 주체조선의 무궁한 힘을

또 한번 온 세계에 시위한것

오, 터지는 쇠물폭포, 터지는 환성이여

용해공들은 어깨우에 높이 태웠구나

신기록의 지휘관 민철기사를

어떠랴 쇠장대 그냥 권들

어떠랴 방열복 그대로 입은들

어깨에서 어깨로 떠받아올리며

기쁨에 넘쳐 쳐다보누나

동이땀에 동이물을 마서가며 연연 백일

로앞에서 함께 지새운 자기의 지휘관을

그가 아니냐

조선의 야금계와 함께

반백이 내렸다는 우리의 지식인

그가 아니냐

기술혁명의 해불을 들고

과학원에서 탄원해온 꿈많은 기사  
그의 심장에서 태어난 새 제강법이  
강철전선의 돌파구를 헤쳐놓았거니

그의 목을 껴안고  
그와 함께 감격에 울며  
용해공들은 소리소리 부르짖는다  
《아버이수령님께 어서 빨리 보고를...》

그이께선 얼마나 기뻐하시랴  
오실 때마다 용해장에 먼저 오시여  
우리와 함께 나라사정을 의논하시던 수령님  
자립경제의 기둥을 세우자면  
철이 있어야 한다고  
철에서 오탁이 나오고  
철에서 비단이 나오고  
나라의 금성철벽도  
쇠를 녹이는 동무들에게 달려있다고  
그토록 믿고 맡기신 용해장에서  
립철 신기록 돌파하였거니

축포가 솟는다  
수령님, 수령님 목메여 부르며  
은금빛 쇠물축포가 끝없이 번개친다

경사로워라  
조국의 강철전선 최전방에도  
100일강행군의 마지막 이 밤은  
그대로 전승의 1211고지인듯

## 2

날이 밝는다  
검푸른 동해를 불태우며  
아침해 눈부시게 솟아오르더니  
온 세상에 우람히 드러내보이네  
신기록으로 이름떨친 립철공장을

그러자 해돋이바다는 용해장까지  
은금빛 주단을 필필이 펼치고  
그우에 나래펼친 갈매기 한마리  
명절옷 차려입은 처녀와도 같이  
용해장으로 용해장으로 날음쳐오네

그러면 동해가 해당화들은  
마치도 이날을 위해 피어난듯  
꽃송이마다 다투며 웃음을 보내네

홍보석 눈으로 굽어보는 갈매기에게

그 꽃을 아릅안고 날아온다네  
용해장의 갈매기- 명희준의가  
수많은 신기록 영웅중에도  
제대군인 돌격대장을 찾아온다네

탄산수 동이채 들어마시던  
일남대장의 가슴에는 기쁨이 그득  
쇠물앞에서는 용명한 사자  
하나 옛 동창 명희앞에선  
언제나 사나이웃음이 병글병글

붉은넥타이 함께 메고  
함께 꿈을 키우며 자라난 명희  
천리 먼 방선에서도  
마음의 벼이 되어 떠오르던 그  
그가 정녕 나에게 꽃을 안고오다니  
생각할수록 일남이 얼굴은 온통 쇠물빛

어느새 눈치 차렸나, 여기저기서  
박수들이 터지네, 용해장이 들썩하게  
대통운이 텃구나, 우리의 일남대장

앞다투며 달려가던 그의 대원들  
목수건도 흰것으로 섬겨주고  
코등의 검맹이도 슬쩍 훑쳐주며  
귀속말로 소곤소곤 일러주누나  
분명 뜻이 깊은 꽃다발인데  
신기록을 기념하여 한장 찍으라고

그런데 웬일?  
언제나 웃음 잘 웃고 노래 잘 불러  
용해장의 갈매기라던 명희  
진주같은 그의 눈에는 이슬이 가랑가랑

《이것 봐요, 대장동무  
이 해당화를  
먼지탓에 흐려진  
이 해당화를...》

## 3

...점점 커진다  
일남대장의 눈이  
점점 커진다  
돌격대원들의 눈이

해당화 그것은 축하의 꽃이 아닌  
굴뚝의 먼지를 두고 걱정하는 꽃

대원들은 앞다투며 다가가누나  
자기들도 잊고 산 티끌만한 먼지  
처녀가 안고 온 해당화에 어려있어  
보는 사람 듣는 사연 가슴이 몽클  
행복에 취하여 보지 못한 그 티끌  
강철만 보고 살며 알지 못한 그 티끌

강철보다 더 귀중한건 사람이라고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처녀의 별같은 눈은 가리키누나  
신기록 굴뚝에서 치솟는 먼지를  
신기록 굴뚝에서 치솟는 먼지를

명희는 또다시 안고 떠나네  
숨겨가는 어린 생명을 품에 안은듯  
흐려진 꽃송이에 눈물을 뿌리며  
이 일이 안타까와  
이 일이 준의의 가슴에 아픔이 되어

《가만!...》  
민기사가 달려왔어라  
손에는 쇠장대 그냥 쥔채  
보안경 번쩍 제껴올리며

《나 좀 봅시다, 그 해당화를...》  
명희의 눈물에 젖은 그 해당화  
바라볼수록 그의 손 가버이 떨려라  
《어디서 꺾었소 이 해당화를?...》  
《회전로 공원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 다녀가신 회전로 공원?》  
《그렇습니다!》

그의 대답 끝나기도 바빠  
손에 든 쇠장대 힘없이 떨어저라  
신기록의 돌파구를 헤쳐온  
민기사의 쇠장대가

아, 그 누가 해주길 아직껏 바랐더니  
쇠물빛의 아름다움은 불출 알면서도  
꽃송이에 앉은 티는 모르고 살았구나  
학자들의 손길만 앉아서 기다려온  
무거운 자책감, 아픈 그 가슴

피기없는 어린 생명을 바라보듯  
그 꽃 송이송이 살펴보노라면  
가슴치며 떠올라라  
어버이수령님의 그날의 말씀이

계획을 넘쳐한 용해공들과

나란히 구내길을 걸으시더니  
회전로 공원가에 걸음 멈추시고  
깊은 심려에 잠기시던 그날의 말씀이

《...보시오 동무들  
먼지속에 흐려진 저 꽃들을  
이런속에서 오래 일하면  
로동자들의 건강이 어찌 되겠소

물론 왜놈때에 비하면  
공장이 온통 공원이 된셈이지  
그때에는 어찌나 먼지가 심했던지  
함께 로를 돌리던 부자지간도  
음성을 듣고야 알아본곳이었지  
하지만 먼지는 아직도 있소

완전히 없앴시다, 끝장냈시다  
왜놈때에는 한그람의 철을 위해  
수천명의 로동자들을 희생시켰지만  
우리의 세상에서는 그럴수 없소  
우리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람입니다...》

오, 나라를 입히고 먹이는 사람들  
세계를 개조하는 우리 로동계급들  
그들의 유해로동을 덜어주는것  
이는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사명!  
이는 인간해방의 숭고한 목표  
그날의 그 말씀 되살아날수록  
그의 가슴 자책으로 터져나갈듯

해당화, 해당화야  
머리를 들렘  
아침저녁 출퇴근길에  
내 발목에 감겨들던 정든 꽃아  
머리를 들고 나를 보렘  
네 웬일이냐, 이 경사날에

그 고운 얼굴로 웃는 일도 없이  
그 맑은 이슬로 쳐다보는 일도 없이  
신기록 진군길에  
연분홍 고운 꽃이 빛을 잃누나

산에는 산꽃이  
들에는 들꽃이  
조국강산에 온갖 꽃이 만발하는데  
그 어느 꽃보다 곱게 피야 할  
용해장에 뿌리내린 동해의 해당화야  
어찌하여 너희만은 이 경사날에  
이렇듯 먼지속에 피여있느냐

#### 4

넋없이 서있는 민기사에게

치수기사장이 달려왔어라  
1211고지의 《호랑이》 중대장이  
땀에 젖은 그의 얼굴엔 기쁨이 그득  
가슴우에 락장들에도 웃음이 그득

《민철동무! 기뻐하시오  
아버이수령님께서 신기록 보고 들으시고  
책임간부들을 부르셨답니다.》  
《수령님께서요!》  
어쩔줄 몰라하는 민기사의 눈!

벌써 저기  
기적소리 높이 울리며  
아버이수령님께서 나래쳐가는 급행렬차  
달리는 차창가에서 손저어 웨치는  
당비서의 감격에 넘친 목소리 들으며  
민기사는 화석처럼 굳어졌는데

100일 전과를 가득 실은 렬차와 함께  
치수의 마음은 나래쳐간다  
승리의 보고 기다리고계실 아버지수령님께로  
영광에 찬 그의 가슴에선  
소리높이 터진다

《동무들, 신들메 더 굳게 매자  
우리 겨우 첫자옥을 떼었을뿐  
자만, 안일, 해이를 짓부셔버리며  
신기록의 이 기세로 내달려가자  
어머니 당대회 그 연단까지...》

여기저기서 환성과 호응하는 소리  
명령받은 신기록 용해장은  
성전으로 내달리는 대함대인듯  
굴뚝마다 해불인양 불연기 뿜으며  
진군의 닳을 울리고 내달려간다  
어머니 당대회 그 연단까지

그 연단에서 아버지수령님께  
철의 전선의 승리의 보고 올릴  
그날을 생각할수록  
용해공들 가슴마다엔 노래가 터진다

《쇠물이어 쏟아져라 폭포쳐내려라  
충성의 붉은 강아 번개쳐가자  
이 쇠물 인민에겐 노래가 되고  
이 쇠물 원쑤에겐 불벼락 되리라》

아, 노래여  
회전로 동음에서 선물을 잡고  
용해공들의 땀으로 가사를 지었다는  
신기록 진군길에 태어난 노래여

부를수록 마음속엔 나래가 돌고  
부를수록 룡성하는 조국의 미래가  
소리치며 다가오던 신기록의 노래  
저 노래 어찌하여 이 아침  
이윽도록 민기사의 가슴을 치는것이나

민기사 저 노래 부르며  
대원들과 함께 쇠물을 저었고  
저 노래 진군의 나팔로 높이 웨치며  
신기록의 령마루에 오르지 않았던가

하나 이 아침  
저 노래 들을수록  
철의 전선에 한목숨 바쳐나서려는  
저들의 저 투지 바라볼수록  
가슴속에선 귀중한 그 무엇을 잃은듯

흐려진 이 꽃  
먼지속의 저들의 얼굴  
그렇다면 그날에 하신 아버지수령님 말씀은  
정녕 그 뉘에게 주신것이나  
그것은 회전로 책임기사 민철에게  
로동자들의 건강은 아랑곳없이  
강철 그 하나만 돌격해온  
신기록의 지휘관 민철에게

아, 실패한 새 제강  
실패한 신기록이여  
내 정녕 무슨 심려를 끼친것이나  
주체의 조국 인간애의 나라에  
내 어떤 티를 남긴것이나  
민기사는 저도모르게 달려오른다  
온 공장이 바라보이는 기중기탑우에

아름다운 동해  
꽃에 묻힌 야금기지  
그 어데를 바라보아도  
나래쳐고 날고만싶은 철의 도시

아버이수령님께서 지켜보고계시는  
조국의 북단 근로자들의 락원에  
오직 신기록의 굴뚝에서만  
끝없이 치솟아오르는 검은 연기여

저것은 나의 파오  
로동자들의 건강은 아랑곳없이  
강철, 강철에만 돌격해온  
신기록 지휘관의 씻을수 없는 파오

...그날부터 그의 눈에는  
해뜨고 해지는것도 보이지 않아라  
시료를 뜨다가도 굴뚝의 먼지

지령을 주다가도 먼지진 해당화  
그날부터 실험실 모형로앞에선  
신기록의 먼지와 혈전을 벌리는  
민기사의 창그림자 꺼질줄 몰라라

## 제2장 우리치는 밤

### 1

이제나 오라  
저제나 오라  
성녀는 행복에 넘쳐 기다리어라  
강행군에서 돌아올 정다운 남편을

오시면 얼마나 기쁘랴  
새 제강법이야기 신기록이야기  
그러자고 야금학에 한생을 바쳤던가  
생각할수록 돋보이는 남편  
마음속으로 몇번이고 머리숙이며  
성녀는 창문을 열어제껴라

끝없이 설레는 하얀 파도들  
그모두가 신기록을 이야기하는듯  
석양이 번쩍이는 소나무들도  
남편의 퇴근길에 줄지어 서있는듯  
어느 나무밑에 어느 백사장에  
그의 사색의 발자욱 찍히지 않았으랴

신기록 제강법의 첫구상도  
저 로송밀에서 무르익혔고  
강행군의 불길속에 뛰어들 생각도  
파도높은 바다가에서 다지였다지  
보이고 들리는 그 모든것이  
전에없이 정들어 사랑스러워라

그때마다 절로 절로 마음 가는곳  
승전하고 돌아올 그의 서재여라  
사방 벽에 차넘친 그의 서고는  
오늘따라 이렇듯 소중해보여라  
한생을 탐독해온 수만 책자들  
그모두가 신기록을 도왔으려니  
몇번이고 어루만지며 펼쳐보아라

뼈와 살이 되도록 학습해온  
아버이수령님의 로작  
그 위대한 가르치심에  
한치인들 빗나갔으랴  
자신의 삶도 그이의 교시대로  
자식들을 키워움도 그이의 교시대로

보라, 저기 탁상우에  
나란히 웃고있는 3형제 사진을  
야금계에 뛰어난 그의 맏이는

아버지의 대를 잇는 미더운 연구사  
《푸에블로》호 나포의 영웅대오엔  
둘째녀석도 의젓이 서있구나  
두 형의 무릎우에 앉은 길호는  
철의 도시가 사랑하는 꼬마 손풍금수

그들의 미래를 내다볼수록  
은혜로운 수령님께 보답하고자  
성녀도 현장으로 뛰어나갔다  
정양소 주방에서 《화선식당》으로,

끼니마다 섬겨주던 영양제특식에  
두손 마를새 없어도  
돌격대와 함께 새운 낮과 밤들이  
그모두가 이 기쁨 위함이 아니던가  
새간방이 떠나갈듯 방송원의 목소리는  
《조공장 립철생산 신기록 돌파!》

검은머리 희도록 살아왔어도  
이같은 희소식이 또 있었으랴  
서재를 닦다가도 그 소식 듣고  
저녁상을 차리다가도 귀기울여 듣고,

《엄마 형님들도 듣고있겠지?》  
꼬마 길호의 얼굴에도 기쁨이 그득  
아버지 발자욱소리 나기만 하면  
축하의 노래 타리라는 손풍금수  
쪽대문에 귀기울인지도 벌써 며칠째

무슨 일이 또 있을까  
무슨 일이 그리도 많기에  
길호의 기다림도 마음에 없을가  
안해앞에서는 돌부처같다가도  
길호와 함께라면 언제나 소년  
재롱스런 어린 손이 건반우를 날 때면  
보던 책, 하던 설계 다 밀어놓고  
어린것과 손풍금으로 밤을 새우던 남편  
이 밤이 다 가도록 아니오실가

사흘만에 들려오는 소식  
민기사의 100일전은 끝나지 않았다고  
교대종만 울리면 실험실에 깊이 묻혀  
먼지잡이 새 연구에 몸바친다고  
들을수록 어쩐지 걱정되어라

강철보다 더 큰 일 어디 있으랴고  
먼지잡이 연구에 마음을 판담  
당대회와 잇당은 분파 초들을  
신기록으로 내달리자고 꿰고있는 때  
그는 정녕 무슨 일 펼쳐놓는담

밖에서는 전에없는 모진 비바람  
남편을 기다리는 성녀의 마음

밤하늘엔 우뢰소리 높아만 가는데  
긴긴 밤 뜬눈으로 새우던 성녀  
끝내 자리를 헤치고 달려나간다  
바다가 실험실로, 민기사에게로

## 2

거센 바람에 창이 열릴제  
명희준의가 숯불에 얹은 단물주전자가  
그것이 사정없이 뒤집혔어라

순간 민기사의 머리속에선  
찬란한 혜성이 번쩍였나니  
폭발하듯 치솟는 수증기방울이  
날아오른 재티를 물고  
제도지우에 뿌야니 내려앉았어라

자연의 이 암시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이 원리를 거쳐  
그의 눈에는 밝아왔다네  
수천 분무기들의 물안개들이  
굴뚝의 먼지를 물고 떨어지는것이

《어마나! 저 물주전자》  
명희는 성급히 부르짖는데  
《가만! 한번만 더... 한번만 더...》  
연신 수증기의 폭발현상을  
황홀에 잠겨 바라보던 민철기사  
한달음에 달려가 도면을 펼쳐라  
후퇴의 날 목숨바쳐 살려낸  
피땀으로 얼룩이 진 연진실도면을

그 도면과 새 원리를 합치는 순간  
아, 터져나오는 환성에  
하늘도 우뢰치며 화답하는가  
음양극의 구름장을 연신 합치며  
와르릉 번쩍, 와르릉...

아, 탐구의 보람이여  
발견의 기쁨이여  
한생에 한번 피는 꽃이 있다면  
그 꽃과 비기리  
이 순간 민기사의 그 얼굴을  
누리를 비치는 진주가 있다면  
그 진주와 비기리  
이 순간 민기사의 그 눈빛을,

누가 말하느냐, 과학의 연구  
그것은 수만권의 책속에

급높은 현미경과 실험기구  
그속에서만 발명의 씨앗을 본다고  
그것은 기존공식에서만 아니다  
불꽃튀는 현실속  
자연계가 암시하는 그 원리속에서  
인류가 풀지 못한 무수한 공식이  
학자의 머리속에 번개치는 법

때로는 논쟁과 깊은 사색  
때로는 쪽잠의 꿈속에서도  
계산하고 수정하고 완성해가거니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뜻 꽃피우려는  
충성의 열정, 불타는 가슴속에는  
보이고 상상되는 온 우주가  
그의 연구실이며  
그의 실험실!

이처럼 태어났어라, 그의 심장속에  
학계에 없는 《안개식원리》는  
민기사는 명희의 손 뜨거이 잡고  
실험실이 떠나갈듯 환성을 올리여라  
하늘도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가  
음양극의 구름장을 련속 합치며  
와르릉 번쩍, 저도 기쁘다고  
와르릉 번쩍, 끝없이 기쁘다고

## 3

그 장엄한 퇴성벽력도  
하늘 멀리 여운으로 꺼져버리고  
감격에 울부짖던 소낙비마저  
마지막 비방울소리 들릴듯 말듯  
구름장을 가르며 달이 솟아라  
민기사의 실험실창문을 밝게 비치고저  
새별도 밤하늘을 엄하게 비치며  
민기사의 설계를 지켜 망을 쏘고나

온 천지가 하나의 념원에 불타며  
새 원리의 태동을 지키는 숭엄한 이 밤  
이 밤의 새벽하늘 산산 들부시며  
요란히도 울려와라 사고종소리  
땡-땡-땡-땡...

왈칵!  
실험실문 열리는 소리  
치수기사장이 달려왔어라  
《민기사가 어디 있소?》  
놀래여 뛰쳐나오는 명희  
《계세요... 하지만

지금 한창 중대한걸 연구중인데...》  
 치수는 한달음에 뛰어가더니  
 사이문을 와락와락 열어제낀다  
 《안개식제진탱크》의 새 도안을  
 황홀에 잠겨 그러가는 그의 방문을  
 《저 소리가 들리지 않소, 저 종소리가?...》

《뭐라고요?》  
 몇몇밤 지새운 민기사의 눈  
 《회전로가 없혔다오 신기록의 로가...》  
 《네?!》  
 소스라쳐 일어서는 민철기사  
 그제야 들려와라 사고종소리  
 듣기만 해도 섬찝한 회전로사고  
 그 소리에 창백해진 민기사의 얼굴  
 손에 쥔 계산자마저 힘없이 떨어저라

《먼지잡이도 중요하지만  
 립철생산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아는것이 책임기사가 아니요?!》  
 바람을 일구며 돌아가버리는  
 치수의 무거운 구두발소리  
 민기사의 가슴에 못을 박는듯

어둠속 저 멀리서  
 그 광경 엿보고있던 성녀  
 났없이 서고만 있는 민기사에게  
 눈물이 글썽하여 다가왔어라

《여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라의 강철계획을 도움고저  
 현장으로 탄원해온 당신이  
 이 정녕 무슨 일이에요  
 신기록 첫자욱 떼기도 바빠  
 또다시 이 연구  
 저 사고  
 어느 길을 택해야 하나요?》

#### 4

...민기사는 정신없이 달음쳐간다  
 비상소집령을 받은 병사와도 같이  
 다만 그의 눈에는 로속의 철링그  
 그것과 혈전을 벌릴 용해공들  
 그들의 안타까운 부르짖음이  
 사고종소리와 함께 새벽하늘에 메아리치는듯

출근길에 오른 사람들, 경제선동차들  
 그모두가 자기 걸음을 재촉하는듯  
 다충주택창문마다 놀랜 얼굴들  
 그모두가 자기를 보고 원망하는듯  
 민기사는 달리고 또 달린다.

건늬길, 달려오는 구내차  
 멈춰선 순간은 천년인듯  
 구내길을 온통 땀으로 적시며  
 민기사는 다달았다 사고현장에

벌써 회전로 동음을 가늠해듣고  
 체증의 심도를 감각한 그  
 로황을 언뜻 보자 판단한 눈  
 번개같이 운전실로 뛰어가더니  
 영커가던 철링그에 불을 뿜는다.

한초 또 한초... 집중화력에  
 쇠물의 고드름은 녹아내리여  
 체증으로 아우성치던 육중한 로에선  
 독을 헤친 강물과도 같이  
 막혔던 쇠물이 폭포쳐내려라

《민기사가 과연 명의는 명의야...》  
 《동침 한대면 알아보는걸 허허허...》  
 저마다 제몫의 체증이 내린듯  
 회복된 로를 안고 기뻐하는데  
 명희가 불안에 잠겨 달려왔어라

《민철동지! 비서동지가 부르십니다.》  
 어버이수령님 부르심 받고 갔던 당비서  
 그가 방금 돌아왔다고  
 치수기사장의 긴긴 이야기 듣고있더니  
 급기야 민철동지를 찾았다고

가슴속에서 치밀어오르는것  
 당앞에 무슨 면목으로 선단말인가  
 《안개식원리》가 첫발자욱 떼자부터  
 폭풍처럼 들이닥친 이 사고는 어떻게 한단말인가

생각할수록 눈앞이 캄캄  
 대공에 나래편 수리개 살을 맞은들  
 저토록이야 안타까이 가슴태우랴  
 저 굴뚝의 먼지 연기는?  
 흐려진 해당화는?

그런데 웬일이냐?  
 쇠물빛에 물든 공장당위원회  
 번쩍 소리없이 문이 열리더니  
 반가이도 마주나와라 젊은 당비서  
 전에없이 환한 웃음  
 뜨거운 악수

강철전선에서 반백이 된 민기사의 얼굴  
 존경에 어려 바라보던 당비서  
 그의 손 뜨거이 잡은채 방으로 이끌어라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 정중히 모신 자기 방으로

《내 다 들었습니다.



먼지잡이 새 연구에 착수했지요?》  
 이는 정녕 신기록보다 더 큰 경사라고  
 몇번이고 되뇌이던 당비서  
 목메여 전한다  
 신기록보고를 청취하시던 어버이수령님 말씀을

《...장하오!  
 우리 로동계급이 강철생산에서  
 또 하나의 돌파구를 열어놓은셈이요!  
 ...그런데 먼지문제는 어떻게 풀었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어버이수령님께  
 먼지로 흐려진 해당화이야기 올렸을제  
 얼마나 심려하여 말씀하셨던가

《나라의 강철사정 풀려고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싸우는 그들  
 그들의 건강은 돌봄이 없이  
 강철! 그 하나만 밀고나가서야 되겠소.》

너무도 안타까와  
 너무도 가슴아프시여  
 창문 멀리 북쪽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며 하시던  
 말씀이여!

《...용해장과 평양은 천리로 멀어도  
 우리는 한 처마밑에 사는 사람들이요  
 평양거리에 꽃들이 만발할 때  
 구내공원의 꽃들도 만발해야 하고  
 평양하늘이 맑게 개일 때  
 야금기지의 하늘도 언제나 맑아야 합니다.》

...민기사의 두눈에는 이슬이 그렇그렇...  
 이 세상 사람이 태어나 수수천년  
 어느 세기 어느 전설에  
 이같이 자애로운 사랑이 전해졌으랴

피바다에 잠겼던 이 땅을  
 인민의 락원으로 꽃피워주시고도  
 못다가신 꽃들의 먼지를 두시고  
 해를 두고 심려하시는 어버이수령님!

그이의 자애로운 안광아래  
 하늘이 열리고 강산이 생겼는가  
 그이의 위대한 구상 꽃피우고저  
 저 하늘의 해와 달이 지고 돈는가

아, 사슬에서 해방된 로동계급을  
 유해로동에서 영원히 해방시키시려는  
 인류의 태양 **김일성** 원수님  
 그이의 인간해방의 설계도우에  
 한줄의 선이 되고 빛이 되는 일  
 지식인에게 이보다 더 큰 영예

이보다 빛나는 삶이 어디 있으랴

## 제 3 장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

### 1

《강철-1211고지》에  
 그 어떤 대공사가 벌어졌느냐  
 성전으로 부르는 기발과도 같이  
 누리를 향해 빛발치는 프랑카드여!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람이며  
 가장 힘있는 존재도 사람입니다.》

만천하를 격동시키는 그 글발밑으로  
 《돌격대》 기발들이 파도쳐오고  
 북소리 천지를 울린다  
 기증기들이 팔뚝을 들고 호소해나서면  
 기계화부대들이 대차를 구르며 호응해나선다

아! 쳐다볼수록 가슴뜨거운 프랑카드  
 그 밑에선 철야의 전투 벌어졌어도  
 그 글발만 쳐다보면 힘이 용솟아  
 휴식을 명령하는 《싸움》이 벌어지고  
 전투장을 빼앗는 《싸움》이 벌어진다

그들을 찾아 이동식당, 이동매대가  
 그들을 찾아 예술단이, 간이진료소가  
 온 도시가 그 프랑카드밑에서 자고깨며  
 희열에 넘쳐 땀을 흘린다

가슴치는 그 글발 읽으며  
 칠순 팍로인도 떨쳐나섰구나  
 일남대장의 할아버지  
 등에는 다리 긴 지게에  
 발에는 천리를 날듯 신들메 하였구나

그를 맞는 공사장은 또다시 완성  
 왜놈들이 락탈의 기둥박던 날부터  
 채찍세례를 받아왔다는 저 팍로인  
 참살당한 아들을 묻은 그 해에  
 무산 어느 산촌으로 술가해갔다는  
 한도 많고 울분도 많던 저 팍로인  
 오늘은 용해공이 된 손자를 따라  
 이렇듯 팔을 거두고 나설줄이야

《젊은이들!  
 내 등에도 지워주게

내 나이 칠순이기루  
어찌 방석우에 앉아만 있겠나  
내등에도 넘치도록 퍼실어주게

이 꽃바다! 이 맑은 하늘!  
왜놈때 이 공장에는  
<검은 비>, <검은 눈>이 내리어  
풀 한잎 돌아나지 못한곳이지

내 한생이 그속에서 시들었고  
내 아들도 그속에서 숨이 졌다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전에는  
자손들을 쇠물앞에  
다시는 내어놓지 않으려 하였더니

우리 어버이수령님께서  
쇠를 녹이는 사람들을 금옥같이 여기시며  
자동화, 텔레비존화로  
공장을 온통 <궁전>같이 꾸려주시고도  
눈에 티 하나 들어갈세라  
이런 큰 공사를 펼쳐주셨으니  
내 어찌 이 복을 앉아서만 받겠나...》

팔소매로 연신 눈물을 훔치며  
현장지휘관 민기사에게 sap을 권하네

《어서 지워주게 책임자어른!  
내 비록 늙고 등은 휘였어도  
꼬리없는 황소라 일러왔다네  
팍! 팍! 퍼실어주게  
내 죽기전 어버이수령님을 위해  
한방울의 땀이라도 더 흘리고싶네  
어서, 어서들...》

## 2

권하는 로인의 sap 받을념 없이  
오래오래 쳐다보는 민철기사  
감격에 우는 로인의 모습 바라보는  
그의 커다란 눈에도 이슬이 번쩍...

이 로인이 아니던가  
그 옛날 왜놈의 군도에 맞아  
억울히도 쓰러지던 광철성의 부친이  
이 로인이 아니던가  
아들이 쇠장대에 높이 쏘는  
《맑은 공기 달라》던 그 기발 들고  
왜놈들과 피싸움 벌리던 그날의 파쇠공이

아, 한치 앞도 분간 못할 용해장에서  
숨쉴 권리를 달라고 떨쳐일어난

폭동의 그 목소리에  
왜놈들의 대답이란  
기마헌병대들의 칼부림, 칼부림  
칼에 맞고 말에 밟혀 숨지면서도  
맑은 공기! 맑은 공기! 를 애타게 부르던  
그날의 광철성의 부친을  
이 공장, 이 구내에서 다시 만날줄이야

《로인님!  
저를 모르겠습니까?  
칠성이와 한 고향내기 민철입니다.》

《뭐라구?》  
오래오래 살펴보던 광로인  
그의 흰눈썹밑에 이슬이 번쩍!  
《그렇다면 임자가 옛날의 민기사  
고학하고 돌아온 우물집 말이? ...》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칠성이와 의형제를 맺은...》

아, 민철이! 민철이!  
민철이가 우리 세상에 살아있구만  
칠성이를 살리려고  
산소병 터쳐 입에 넣어주려다  
왜놈에게 끌려가던 우리 민철이  
백발의 그 가슴에 민기사를 안고  
광로인은 하늘을 향해 울부짖누나  
《산사람은 이렇게 다시 보건만...》

오! 터지는 설음이여!  
눈물속에 떠오르는 그날의 참상이여!  
서른해가 넘었건만 어제련듯  
참살당한 아들의 이름부르며  
민기사를 붙안고 우는 광로인의 눈물이여!

《인사를 올려라, 일남아!  
이분이 바로  
너의 아버지 무덤가에 패쪽을 세워놓고  
그리도 땅을 치며 울던 분이다  
이 애가 바로 칠성의 아들  
아버지를 못보고 자란 유복자라오...》

《네가?!》  
이슬에 넘쳐 바라보는 민기사  
《민철동지!》  
흐느끼며 안기는 광일남이

아! 철이 들어갈수록 그리워지던

그날의 잊지 못할 그 사람이  
우리의 민철기사일줄이야  
아버지의 유언을 안은 민기사의 가슴  
그 가슴에 불을 비비며 목메여 불려라  
난생처음 불러보는 아버지  
이 세상에 오지 못한 그 아버지를.

우지 말자 일남아!  
달랠수록 터지는 민기사의 눈물이어!  
강도를 빼앗기고  
삶을 빼앗기고  
숨쉴 권리마저 빼앗기우던  
이것이 어제날의 용해공들이 아니던가

《센진》과 《요보》로  
채찍에 뜯기우던 우리 인민들  
인간의 권리를 부르짖다가  
떨떨 끓는 쇠물속에 꺼져버리던  
이것이 어제날의 노동자들이 아니던가

대륙침략에 피눈이 된 일제놈들이  
군마우에 올라앉아  
망원경으로 시찰하던 숨막히던 용해장  
거기서 쇠물을 들쓰고  
거기서 유해먼지에 피를 토하며  
무덤으로 무덤으로 실리워가던  
이것이 어제날 우리모두의 운명이 아니던가

### 3

오! 갈매기!  
동해의 무희들아!  
너희는 무슨 기쁨이 그리도 크기에  
공사장 하늘우에 날아오르느냐  
날아올라선 일떠선 제진탕크를  
그리도 황홀히 굽어보느냐  
이제 철의 도시사람들의 노래에 받들려  
이 땅우에 제진탕크가 일떠설 때  
신기록 진군길에 치솟은 먼지는  
저 하늘에 영원히 가시여지리

그날에는 바다와 철의 도시는  
그 어디나 맑디맑은 너의 활무대  
이 땅에 숨쉬는 억만 생명들  
그모두가 꽃바다속에 묻히게 되리  
너희도 이런 나라에 태어났구나

너희도 이런 복을 안게 되었구나

춤추는 그 갈매기 보던 일남이  
절로절로 떠올라라 용해장의 갈매기  
해당화 안고 달려왔던 명희의 얼굴이

그가 글썄 민기사의 조수가 되어  
《안개식원리》도 짝트게 했다지  
생각할수록 그날의 그 모습이  
지울수 없는 아름다움이 되어 되살아나라  
《이 해당화를 좀 보세요…》

아! 먼지속에 흐려진 꽃을 안고  
가랑가랑 고이던 명희의 눈물  
그 눈물이 가슴속에 불로 타올라  
자꾸만 살피져라, 명희의 얼굴이

만날가봐 겁나고  
만나지 못할가봐 안타까운 그  
오늘도 기초공사의 마지막 따찌까  
요란히 물고가며 그를 찾는다  
그날의 명희준의도 나왔으려니  
《너성중대》의 그 어디서 일하고있으려니

그런데 바로 그가 다가오고있어라  
밀짚모자 하얀 끈을 목에 걸고  
흙을 실은 따찌까 몰며  
작업복차림 그 모습에  
꽃비단 입은들 그리도 돋보이며  
땀투성이 된 그 이마  
진주구슬 두른들 그리도 눈부시랴

볼수록 일남이는 자기 앞으로  
달덩이같이 환한것이 달음쳐오는듯  
따찌까의 요란한 쇠바퀴소리는  
자기에게 련발탄의 공격을 가하는듯

물러설가? 번개치는 생각  
아직도 내 눈치 못차린 그  
그의 옆을 슬쩍 지나쳐버릴가?

하나 용해장의 갈매기 마음속의 벗  
그를 보자 반공격을 가하리라네  
작업모 꼭 눌러쓰고

머리깊이 숙인채 몰아가네  
자기앞에 육박해오는 그의 따찌까로  
《비키시오, 땅크요, 중땅크요.》

그 다음 와지끈 부딪쳐왔구나  
부딪치자 《비명》 치며 틀어잡는 손  
명희는 황황히 그 손을 살피네  
그럴수록 일남이는 숨이 넘어가는듯  
《정말 미안해요, 피한다는게...》  
급기야 위생가방 안고 오는데  
능글맞은 저 일남이 빙그레 웃으며  
《비명》 치던 그 손으로 악수를 청하네  
《사죄》의 악수 《화해》의 악수를

사고는 무슨 사고  
사고인즉 심장속에서 일어난것을  
물어서야 안다더냐 그 《작전》을  
들어서야 안다더냐 일남의 가슴속의 고동소리를

순간 명희는 불속에라도 갇히운듯  
위생가방 그냥 둔채 달음쳐버려라  
《명희동무!》  
《.....》  
《위생가방!...》  
붉어진 그의 얼굴  
얼굴을 감싸쥐고 웃는 그 웃음  
바라볼수록 일남대장의 가슴속에는  
서려있던 얼음장은 다 가서지고  
알지 못할 뜨거운 기쁨이 그득 피여라

#### 4

즐거워라  
제진공사의 밤이여  
네활개 하늘에 편 청년공원 정각  
거기엔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을  
통소에 담아 부는 철의 도시 로인들  
오색등빛 출렁이는 호수우에선  
미래의 조국을 눈에 그리며  
황홀경에 잠겨 읊는 시랑송모임  
그리고 저기 소년회관 꼬마무대에선  
먼지잡이 축하공연의 마지막 시연회

명희는 그리로 가리라고  
현장 진료소로 달음쳐오네

어린것들이 무대우에 꽃피워놓은  
먼지 가신 야금기지의 화려한 구내  
이 밤도 그 구내 다시 보리라  
거울앞에서 옷매무시 정히 갖추네

서늘한 은초사 치마적삼에  
하얀 머리수건 사뿐히 쓸 때면  
용해장의 선녀라고 불리우는 그  
하나 그때마다 얼굴 붉히며  
처녀들속에 숨군하던 순진한 명희

이 저녁엔 옛 교복이 마음에 들어  
곤색치마에 하얀 저고리에  
화장품엔 끝내 손대는 일 없이  
천리마금빛휘장 가슴에 달고  
다시 한번 뒤몸매 돌아보는데

문득 보이여라!  
거울액틀에 끼워있는 작은 글쭙지  
소년들의 예술공연 함께 보자는  
일남이가 남겨놓은 뜻깊은 사연

이러자고 그런 《연극》 꾸미였을가  
생각할수록 그 《충돌》 그 《엄살》  
저도모르게 자꾸만 터지는 웃음  
웃음끝에 불안해지는 명희의 마음

가야 하나? 아니야, 하나 어쩐지  
신기록 돌격대장의 쪽지글발이  
이리도 엄하게만 생각될가  
지시도 명령도 아닌 평범한 청원에  
왜 이리도 가슴이 높뛰는것일가

축하의 꽃을 안겨야 할 옛 동창에게  
먼지낀 꽃을 안고 찾아갔던 일  
그날의 그의 얼굴, 노한 음성  
생각할수록 귀밀이 붉어만저라  
내 이제 무슨 낮으로 그를 만난담

참살당한 아버지의 원한 품고  
용해장으로 탄원해온 제대군인  
그의 삶을 두고 불타는 충성을 두고  
신문과 방송마다 팽일남! 팽일남!  
온 나라가 사랑하는 신기록 돌격대장

내 정녕 무슨 낮으로 그를 만난담

아! 강철같이 엄해도 쇠물같이 뜨거운  
그 마음 읽을수록 명희의 눈에는  
자꾸만 기쁜 눈물이 흘러넘쳐  
그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듯  
쪽지글발에 얼굴을 묻고 끝없이 울어라

## 제 4 장 폭발

### 1

어찌되어가느냐 신기록은?  
어찌되어가느냐 립철계획은?  
치수는 용해장을 맡아나섰다  
지휘부에서 전호로 뛰쳐나오듯  
전화도 로앞으로 잠자리도 《화선침실》로  
거기서 톤수를 따지고 강질을 따지며  
신기록의 진군을 지휘해나섰다

어제는 지령으로 몇천톤의 립철  
새 야금기지로 급송하였고  
오늘은 추가로 수백량의 화차를  
인입선이 터지도록 받아놓았다  
어느것이 선차며 어느것이 후차라,  
모두가 《지급》 모두가 《특수》

폭포치는 립철이 식기도전에  
앞다투며 실어지는 긴장한 이때  
《안개식먼지잡이》 그것도 해야지만  
이러다 어버이수령님께 맹세한  
강철계획을 못하는 날에는...

피로 지킨 고지가 역포위당한들  
이토록이야 안타까우라  
《호랑이증대장》-치수의 가슴에는  
불같은 생각이 질어만가는데  
또다시 운전실에 전해오는 소리  
회전로의 심장 예비배풍기  
그것을 어데론가 실어간다누나

한달음에 뛰쳐나간 치수기사장  
벽력처럼 소리치며 막아나선다  
《세우라구, 기중기!  
세우지 못해!》

급기야 멈춰선다 탑식기중기  
배풍기는 어디로?  
공사장 아니면 예비창고로  
두 명령받고  
허공에서 어리둥절

민기사 달음쳐왔어라  
입에는 호각을 물고  
손에는 신호기 들고  
《공사장으로 가져갑니다, 기사장동지!》

《공사장으로 떼여가도  
나와 토론하고 가져가야 하지 않소  
생산도 먼지잡이도 다 잘하자면  
질서를 지키는것이 중요하오!  
공명심을 부려도 분수가 있지...》  
《네? 제가... 공명》  
민기사의 커다란 눈에는 눈물이 피-잉

### 2

이날밤 민기사는 잠못들어라  
치수가 남긴 그 말  
바쁜것만 생각한 자기의 잘못  
그것은 그의 가슴에 못으로 박혀  
현장지휘부 작은 방에서  
긴긴밤 안타까이 가슴 뜯어라

내 정녕  
어버이수령님께서 심려하고계시는  
강철도 먼지잡이도  
다 함께 풀수 없단말인가  
당대회의 그날로 가는 이 벅찬 길우에서  
쇠물의 불꽃과 해당화를 함께 피워  
어버이수령님께 드린다면 얼마나 좋으랴

끝없는 번민의 파도속에서  
민기사는 긴긴밤 잠못이루는데  
문득 보이여라 원탁 꽃병에  
먼지속에 흐려진 해당화 한송이  
그 꽃을 보는 민기사의 가슴은 터져나가는듯

내 정녕 이 길에서 물려선다면  
그 뉘가 덜어드리라  
회전로 구내공원에 피여난  
꽃송이들에 깃든 어버이수령님의 그 심려를

험난한 혁명의 길을 헤치고도  
복받은 아들딸들의 일터를 두시고  
그토록 잠 못 이루시는 그이의 심려에  
기술자의 이 가슴 불타지 않는다면  
내 무슨 조선의 지식인이며  
내 무슨 **김일성** 동지의 당의 당원이라

나는 이 현장 책임기사  
립철도 사람도 책임진 사람  
바라건대 이 공장 쇠물꼭포로  
세바다 그득히 채울수는 없느냐  
이 공장에 아릿다운 해당화로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꽃피울수는 없느냐

아, 세계의 한복판에  
공산주의 첫락원을 꽃피우시려는  
수령님의 위대한 구상도우에  
찬란히 솟은 강철-1211고지여!  
나의 삶은 너와 함께  
나의 희망도 너와 함께

이 생명 다하는 그 시각까지  
너의 메부리를 받들어가리라  
성실하고 미더운 고임돌되여

### 3

...깊은 밤  
조용히 문 열리는 소리  
일남대장이 찾아왔어라  
《호랑이기사장》의 그 폭언을  
의문에 넘쳐 듣고있던 일남대장

커다란 시공도면 깊이 살피며  
전에없이 투지에 차 이 밤을 새우는  
그의 모습 볼수록 가슴 뜨거워라

어제는 신기록! 오늘은 먼지잡이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 꽃피우려고  
겹치는 폭풍우를 안아헤치며  
미지의 항로를 개척해가는 우리 민기사  
그의 미더운 조수가 되고 선원이 되고저  
일남은 옷속에서 꺼내보여라  
대중들의 지혜를 모은 《현상응모도면》  
《아이들의 도화같은것이야》  
시공에 행여 도움이 될가해서...

그가 두고간 새 시공도면  
번져갈수록 민기사의 손 가버이 떨려라  
이들도 그 생각을 하였구나  
이들도 립철계획이 걱정되여  
이렇듯 도안하고 계산하였구나

쇠물빛에 끄슬고 보풀은 젖어도  
명화가의 화첩을 들여다보듯  
민기사는 뜨거움에 넘쳐 그것을 번저라

문득  
한장의 도면앞에서 부르짖는 소리  
《아, 계단식제진!》  
패속으로 달리는 신기록 로는  
한초도 멈춤이 없는 계단식제진!  
이 방법에 《안개식원리》를,  
이 토양에 씨앗을 묻으리라

아! 대중의 지혜  
무궁한 힘의 모체여!  
주체시대가 낳아기른  
이 설계 이 재능을  
어찌 한갓 아이들의 도화에 비기랴

인류문명의 서곡을 알리던 철의 발명도  
땀흘리던 사람들의 지혜로부터  
현대과학의 원동력 전기타빈도  
물레방아의 원리에서 시작되었거니  
인간을 유해로동에서 해방시키는  
이 공사의 계단식제진도  
주체과학의 찬란한 력사우에  
금문자로 새겨질 날 기어이 오리

### 4

이날부터 민기사는 나래가 돌친듯  
하루 백리길 뛰어다니며 확인하고  
뛰어다니며 검사하고 분석하여라  
대중과 한넋이 된 계단식제진탱크  
그것이 기념비처럼 일떠섰거니

탱크의 지하 깊은 기초로부터  
구름위에 솟은 탱크의 피뢰침까지  
자기의 뜨거운 피줄과 잇닿아있는가  
시운전의 마지막 판가리시각에  
탱크속의 수천 부속이  
자기의 심장같이 고동칠것인가

철야 몇몇밤  
기관들, 부속들에  
방울방울 자기의 피를 쏟아붓는다  
흘러넘칠 전류들, 계기들에  
그의 넋을 짱그리 기울여넣는다  
그러면 그의 심장-제진탱크는  
출전을 앞둔 무사같이 기다리여라  
먼지잡이 시운전 판가리싸움을.

그 위용, 그 투지를 황홀히 보며  
그제야 민기사는 눈을 붙인다  
숨져가던 생명을 구원해놓고

수술실에 쓰러지는 외과의와 같이  
현장지휘부에 팔베개 베고

## 5

쉬-잇!  
민기사가 잠들었다  
조직에서 엄하게 권고해도  
침식도 피곤도 잊고  
발목에 불이 일도록 애타게 뛰던  
그가 이 밤 쪽잠 들었다  
기름에 절은 작업복 입은채  
쇠가루 쓴 로동화 신은채

쉬-잇!  
그의 단잠 깨칠세라  
문여는 소리도 조용히  
손에 쥐인 계산자 몰래 빼앗아주고  
머리우의 고촉등도 몰래 꺼주며  
그 단잠 지켜주는 그는 누구냐?  
민기사를 찾아온 공장당비서

날이 새면 시운전  
일만가지 준비를 두고  
그와 함께 의논하러 찾아온 당비서  
이 밤만은 오, 정녕 이 순간만은  
인기척 낼세라 발걸음도 조심조심 다가오더니

어둠속에 허리 굽히며  
웁매인 그의 신 끈도 몰래 풀어주고  
머리앞의 전화기도 몰래 옮겨주며  
달디단 그의 쪽잠 지켜주누나

잠들라, 민기사여, 깊이 잠들라  
신기록의 날에, 제진공사의 날에  
뜬눈으로 새우기도 그 몇밤  
끼니를 건느기도 그 몇번

머리에는 흰서리 내렸는데  
무슨 꿈이 그리도 황홀한것이나  
달빛이 흘러든 그의 얼굴에  
연신 빙글빙글 웃는 그 모습  
볼수록 가슴 뜨거워라

조선의 오랜 야금기사  
뛰어난 그의 기술, 그의 재능을  
미국놈들은 황금으로 낚으려 하였다  
하나 망국의 설음이 골수에 맺혔던 그  
오직 한마음 민족의 태양 **김일성** 원수님께 운명  
말기고  
해방된 첫날부터 로동자들과 함께  
인민의 공장을 지켜나섰던 첫 보위대원

후퇴의 준엄한 그 시각에는  
마지막 도면 물고가다 생포된 그  
원썬들의 소굴로 압송돼가던  
그 운명의 길에서  
달리는 자동차에서 뛰어내려  
퍼붓는 탄우속에 피투성이 되면서도  
로동자련대지휘부로 찾아온  
미덥고 참다운 우리 지식인

그 어떤 찬란한 미래를 내다보기에  
나라의 강철전선, 최전방에 와  
이렇듯 수수한 로동복차림에  
이렇듯 현장에서 쪽잠 자면서도  
투쟁과 랑만에 넘쳐 일하는것이나  
입었던 덧저고리 따뜻이 썩워주며  
당비서는 그의 단잠 지켜나섰다

야간돌격대들이 그를 찾으면  
나도 민기사를 찾는중이라고  
문밖에서 담배만 묵묵히 태울뿐  
불을 끄고 어데로 갔을가  
경쟁총화를 지어야겠는데  
그러면 성급한 그 대원들을  
저 멀리 이끌고가며  
그 총화는 내가 대신 지어준다고...

그의 안해 성녀가 밤참 이고왔어도  
문고리 막아서며 조용히 하는 말  
단잠이 들었다고 두고가라고  
그러면 그 밤참 식을새라  
탄불우에 따뜻이 덥혀도 놓으며...

당비서는 긴긴밤 문전을 지키네  
임무에 성실한 보조병인듯  
새벽이슬 축축히 어깨에 맞으며  
그의 잠든 숨결소리 달게 들으며...

## 6

다가왔다, 시운전시각이  
온 도시의 심장에 받들려  
구름우에 솟아오른 제진탱크  
무쇠갑옷 펼쳐입은 장대한 무사가  
먼지잡이 성전에 뛰어들 시각이

공시와 전달은 없어도  
기다려오던 마음들은 전류와 같이  
온 도시에 퍼졌구나, 시각이 됐다고

온 공장이 가슴조이며 쳐다보아라  
오색기로 장식된 신기록 굴뚝을  
먼지연기 치솟는 그 굴뚝에서  
하얀 증기가 축포처럼 솟아오르려니

민기사는 기쁨에 넘쳐 다가가누나  
 시운전 배전판 스위치앞으로  
 여기저기서 《민철동지!》  
 무엇인가 열망하는 그 부름소리들  
 그 모든 얼굴들에  
 손을 높이 추켜들고 웃음을 보내네

이 변혁의 날에  
 이 공장 수천관중들속에  
 그 뉘보다 명절기분에 떠있는것은  
 민기사네 꼬마 길호여라  
 《아-버-지!》

어깨에는 손퐁금  
 한손엔 무대복  
 자랑스레 달려와 전하는 소리  
 준공의 날 아버지들을 축하하여  
 우리 학교 예술소조 출연한다고  
 《거기서 나는데요. 독주를 해요  
 아버지가 즐겨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

이런 순간에는 민기사의 가슴에도  
 꺼져버린 아이가 되살아나는가  
 어린것을 하늘공중 추켜올리며  
 희열에 넘쳐 주고받는 소리  
 《나도 함께 부르자꾸나 너의 노래를》  
 《정말?》  
 《정말 아니구》  
 《꼭요?》  
 《꼭이 아니구》

어린것은 비둘기처럼 내려쳐가누나  
 회관으로, 저의 동무들에게로  
 아버지의 그 약속 전하고저  
 내려쳐가는 그의 뒤모습 보는  
 민기사의 가슴에도 기쁨이 그득

《민철동지, 최종검사 이상 없습니다》  
 일남이의 보고  
 《시운전준비!》  
 신심어린 민기사의 구령소리

벌써 저기 회전로와 배풍기  
 초소마다 전해오는 신호불들은  
 민기사의 명령을 기다리고있어라  
 확신에 찬 신호등 불빛속에는  
 운전공들의 높뛰는 고동소리도 들려오는듯

문득 보여라, 회전로공원에  
 먼지에 흐려진 해당화, 해당화...  
 구원을 바라는 어린 생명같이  
 이슬에 어려 쳐다보는 그 꽃송이

그 꽃송이 바라볼수록  
 가슴속에 뜨거워오는  
 불덩이를 안고  
 심장으로 조용히 스위치를 넣는다  
 유해와 무해의 판가리 스위치를!

그러자 지동치는 배풍기의 동음은  
 우주의 모든 대기를 끌어들이는듯  
 그 거센 바람에 휘말리워  
 굴뚝으로만 향하던 검붉은 먼지는  
 탱크속으로! 탱크속으로!

타래치던 불먼지 폭풍이  
 탱크속의 물안개와 부딪는 순간  
 짜르릉! 폭음이 터졌다  
 천지를 뒤집는 요란한 폭음이

순간, 온 공장은 귀가 멍멍  
 비상종 치는 일도  
 뛰어다니는 일도 없이  
 공장은 선택로 났을 잃은듯  
 오색기로 장식된 그 굴뚝  
 탱크와 회전로 그 모든것이  
 일순간 불연기속에 묻혀버려라

## 7

이 무슨 사고냐?  
 연기속에서 웨치는 소리  
 여기저기서 황급히 뛰어다니는 소리  
 《제진탱크가 터졌다!》  
 《로가 식어간다!》

터져나간 탱크의 허리에선  
 불먼지가 선혈처럼 흘러내리고  
 시험대우에 오른 회전로는  
 신음하며 서서히 벗어나버려라  
 나라의 립철계획 등에 지고  
 신기록으로 내달리던  
 그 회전로가

순간 민기사는 제가슴이 뚫린듯  
 창백해진 얼굴에  
 커다란 두눈이



탱크의 그 참상 났없이 보는데  
기울어지는 선체를 구원하고자  
조타를 잡고 몸부림치는 선장파도 같이  
치수는 울부짖으며 뛰어다녀라

하나 두어번 룡트림하더니  
끝내 회전로는 떼어버려라  
당대회로 진군해가던  
신기록의 로가...  
그 참경 보던 치수는 울음이 터질듯  
이 정녕 무슨 변이나  
터진 탱크  
떼어버린 회전로

불안한 심장의 고동과 함께  
분과 초는 안타까이 흘러만 가고  
어느덧 꺼지는 석양노을과 함께  
사람들의 가슴도 어두워만지는데  
키를 잃은 선단같은 사고현장으로  
그 어떤 소식이 날아오느냐

《우리 공장형편을 알아보시고저  
어버이수령님께서 전화를 걸어오셨다요》  
일남대장의 흥분에 떠는 목소리...

오! 민기사, 민기사  
그대 정녕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북방에 일어서는 대발전소  
그것도 우리를 믿고 세운 계획  
동서해를 가득 덮을 대형선박들  
그모두가 우리의 쇠물로 세간내야 하고

날마다 높아가는 미제의 전쟁소동  
불은 불로 전쟁은 전쟁으로 다스려야 할  
이 모든 정의의 무력의 첫 공정도  
바로 우리네 쇠물로부터

보라! 얼마나 많은 강철이  
시대와 혁명 앞에 요구되느냐  
마치와 총을 해불처럼 추켜들고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을 꽃피울  
강철전사들의 숭고한 사명이  
우리들 어깨우에 지워졌는데  
어찌 보고올리랴  
강철-1211고지의 이 사고를,

용해공들은 안타까이 울부짖으며  
당위원회로, 당위원회로 달음쳐가는데  
그들과 함께 가던 민철기사  
저도모르게 발걸음 무거워져라  
내 무슨 면목으로 거기에 나서랴

한걸음 두걸음  
그들에게서 떨어지는 민철기사  
폭발한 현장을 다시 보더니  
바다가 백사장을 울며 거니네

오! 바다여!  
파도높은 동해바다여!  
너도 시운전의 그 폭음에  
이렇듯 놀래여 소스라치느냐  
소스라쳐선 바다가 푸른 벼랑을  
이토록 안타까이 두드려대느냐

아침저녁 출퇴근길에  
너와 함께 사색에 잠기던 바다여!  
내 정녕 무슨 일 저질렀느냐

폭발한 제진탱크  
떼어버린 신기록회전로  
이 소식 어버이수령님께서 들으시면  
그 얼마나 심려하시랴  
하늘과 땅 온 조국이  
강철! 강철을 부르는 준엄한 이때에  
오오! 내 가슴을 쳐다오  
너의 깊은 바다를 통채로 들어  
이내 가슴을 산산 짓부셔다오

내 정녕 무슨 일 저질렀느냐  
내 정녕 나라의 강철전선에  
그 무슨 화를 끼친것이나

나와 함께 사색하며  
나와 함께 꿈을 키워온 동해바다여  
내 발목 쓸어안고 울지 말고  
조국앞에, 혁명앞에  
이같은 손실 끼친 내 가슴을  
천만조각으로 들부셔다오

## 제 5 장 불라는 심장

### 1

바다가에 들려오는 손품금소리  
준공의 그날을 맞으리라고  
행복에 겨워 타고타는 길호의 노래

그 노래 울며 들으며  
급기야 달려온 민철기사  
끝내 쪽대문앞에 와 굳어졌어라

저 노래  
내 어이 멈추랴  
저토록 기쁨에 넘친 그 가슴에  
시운전의 그 실패 어이 전하랴

공사의 첫날부터 꽃피워오던  
철의 도시 어린것들의 축하공연은  
시운전의 폭음과 함께 깨여졌거니  
흥에 겨워 부르는 길호의 노래  
들을수록 아버지 가슴은 찢어지는듯

《어보!...》  
실패한 그 현장에서 돌아온 성녀  
웃고름 적시며 들어가누나  
손풍금소리 차넘친 그 프락으로

웬일이냐  
성공의 소식 가득 안고 돌아올 어머니  
이슬에 넘쳐 전하는 말  
《애야, 아버지를 모셔드려라》

한달음에 뛰쳐나가는 길호  
손풍금 안은 커다란 눈이  
아버지를 본다  
침울에 잠긴 아버지를

《어떻게 되었어요, 시운전이?》  
《.....》  
《왜 대답이 없어요, 아버지는...》  
《.....》

그늘이 진 아버지 모습 바라볼수록  
어깨우의 손풍금 힘없이 떨어져  
프락에 덩굴어버려라  
하지만 길호는 그것도 모르는듯  
아버지 품에 안기며 흐느껴 울어라

너무도 큰 기쁨이 허물어졌거니  
달랠길 없는 어린것의 그 울음이어!  
성녀는 덩굴어버린 그 손풍금  
그의 품에 안겨주며 마루에 앉히네  
《울지 말어, 길호야  
설마 저대로야 끝나겠느냐  
기운을 내세요 여보!  
새 원리를 발견했다고  
그리도 기뻐하던 당신이  
이 웬일이요, 끝장도 보기전에...》

첫걸음 떼던 날엔  
근심에 싸여 만류하던 그 안해  
오늘은 암초에 부딪친 난파선앞에  
초롱등이나마 비쳐주려고  
폭풍치는 바다를 향해

안타까이 울부짖는 안해의 그 마음  
읽을수록 남편된 가슴은 터져나가는듯

안해여! 내 이제 무슨 낫으로 거기에 나서며  
어디서 힘을 얻어  
이 터진 홍수를 막아보라  
《계획은 나라의 법》  
나는 그 법앞에 책임진 사람  
《강철은 1211고지》  
나는 그 고지의 전투지휘관

아! 깨닫기에는 너무도 늦고  
사죄하기에는 너무도 크나큰  
저 실패, 저 손실 앞에  
내 이제 또 무슨 미련을 가지랴  
조국앞에, 혁명앞에  
사랑받을줄 알았다면  
인민앞에, 법앞에  
책임질줄도 알아야 하리

## 2

철의 도시가 떠나갈듯 경적을 울리며  
급기야 달려오는 《경쟁》차 한대  
그 무슨 기쁜 사연 실었기에  
바다가 솔밭속의 민기사의 집을  
저리도 번개치며 날아오느냐

넘치는 기쁨 못참아  
동구밖에서 소리쳐부르는 어머니같이  
저 멀리 경적소리 요란히 울리며  
두줄기 전조등으로  
민기사네 창문을 연신 비치며

쪽대문앞에 멎기도 바빠  
뛰어내리는 당비서,  
뛰어내리는 낮익은 간부들,  
모두가 감격에 찬 얼굴  
모두가 민기사를 안고 목메이누나

아버이수령님께서서  
민기사를 찾으셨다고  
민기사의 음성을 듣고싶으시여  
실패한 민기사를 고무하고싶으시여  
자리에 없는 민철동무를 두고  
그이께선 그 얼마나 심려하셨던가

《...알만하오  
회전로마저 멈춰났으니

어디가 주저앉아 락심하고있을것이요  
찾아가 내 인사를 전해주시요.

초행길이란 늘 그렇게 어려운 법이니  
계속 완강히 밀고나가시오  
우리 노동자들을  
유해로동에서 영원히 해방시키는것은  
주체조선의 또 하나의 커다란 승리로 될것이요

보시오, 공해때문에 아우성치는 자본주의세계를  
하루에도 수천사람들이 숨져가고있소  
이런 때 우리 노동자들의 일터에는  
한송이 꽃에도 먼지가 앉는 일이 없어야 하오》

...여기저기서 흐느낌소리들  
아버지를 불안고 우는 가족들의 웨침소리  
하나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아라  
소식을 듣고 달려온 용해공들  
불에서 흐르는 방울방울의 눈물도  
이 순간 그의 눈엔 보이지 않아라

다만 그의 귀에 들리는것은  
하늘땅에 차넘치는 어버이수령님 말씀!  
그 말씀과 함께 태양처럼 밝아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이여라

그이께서 이날 이때까지  
나의 삶의 나날을  
자애로운 안광으로 지켜보고계셨구나  
아! 어버이수령님이시여!  
크나큰 심려만을 끼친 저에게  
이같은 위대한 사랑 베푸십니까,  
폭발과 함께 암담해진 내 눈앞에  
이같은 광명의 빛을 비쳐주십니까.

### 3

그 밤으로 민기사는 해불을 들었다  
실패한 공사장 밤하늘에  
활활 타번지는 저 해불!  
저 해불속에는 깃들어있어라  
착취에서 해방된 로동계급을  
유해로동에서 영원히 해방시키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이

그 해불밑에서  
터진 탱크는 되살아나고  
그 해불밑에서  
폭발의 원인도 밝혀놓았다  
낡은 연도를 막자고  
회전로를 식히지 말자고

...한초 또 한초

식어가는 회전로 바라볼수록  
일남의 가슴에선 화염이 일어라

어떻게 추켜올린 신기록이기에  
연도막이 공사탓에 로를 식히랴  
불안하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땅을 치고 가슴을 뜯더니  
다음순간 폭발하듯 터지는 소리여!

### 《동무들!》

우등불앞에 추켜든 일남의 주먹!  
《무슨 생각을 하는가》  
울음인듯 터지는 그 웨침소리

우리 이러자고 돌격대를 무었더냐  
우리 이러자고 백일철야 헤쳐왔더냐  
더 이상 참지 못하리  
회전로의 한초는  
조국의 한초!  
회전로의 진군은  
조국의 진군!

아! 인간에 대한 어버이 그 사랑  
어찌 받고만 있으랴  
우리 육탄으로 막아버리자!  
낡은 연도를 이 시각에 막아버리자!

여기저기서 호응소리 부르짖는 소리!  
결사의 대오는 뭉쳐나간다 손에손에 불방망이 들고  
방열복으로 무장한 신기록영웅들이  
등에는 내화벽돌을 지고  
머리우에는 물가마니 추켜들고  
낡은 연도막이로 육박해간다  
신기록의 날에 부르던 그 노래 부르며

《쇠물이어 쏟아져라 폭포쳐내려라  
충성의 붉은 강아 번개쳐나가자...》

### 4

...순간 명회는 눈앞이 캄캄  
그들앞을 바람처럼 달려가더니  
울음인듯 명령인듯 웨치는 소리여!  
《위험해요, 일남동무!  
저 연도속이 몇도인지 아세요?》

《비키오, 명회동무!》 내쳐 나가려는 일남대장  
《안돼요, 절대로》 눈물로 부여잡고 또 막아선다  
이 일은 모험!  
이 일은 안전규정위반!  
그럴수록 일남대장은 성난 사자!  
막아서는 그를 밀어제끼며 부르짖는다  
《동무는 건강을 책임졌지만  
우리는 강철을 책임진 사람들...》

터진 홍수와 같이 내달려가는 결사의 대오  
그 대오 바라보는 명희의 눈에는  
뜨거운것이 번개처럼  
저들을 돌보라고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저를 보내셨거니  
저들의 위험은 나의 위험!  
저들의 생명은 나의 생명!

다음순간 명희도 화불을 들었다  
나도 함께 운명을 같이하리라  
그들이 쓴 물가마니 쓰고  
그들이 진 벽돌 지고  
살아도 죽어도 그들과 함께  
명희는 그 대오의 앞장에 선다

《못가오, 명희동문...》  
어깨를 끌어당겨 멈춰세우면  
《안돼요, 대장동문...》  
소리소리 부르짖으며 또 따라서는  
일남이와 명희의 끝없는 《싸움》 이어!  
서로이 못간다고 막아나서며  
서로이 붙잡고 우는 흐느낌소리여!

눈물없이야 어찌 바라보라  
먼지 낀 꽃타에 다투던 저들이  
먼지잡이 결전에서 깊어지는 사랑이여!  
수령님의 높은 뜻 꽃피우는 길에서  
삶도 죽음도 함께 하려는  
명희와 일남이의 끝없는 《싸움》 이어!

그 《싸움》의 한복판으로  
민기사는 번개처럼 뛰어들어라  
《...돌아가지들 못해?》

그 언제 보았으랴  
이렇듯 성난 민기사의 얼굴을  
이렇듯 날카로운 민기사의 음성을  
꽃을 보면 소녀 같고  
바다를 보면 청춘같이  
더없이 명량하던 우리 지휘관

할아버지를 만나던 그날부터  
남달리 정에 넘쳐  
혈육처럼 대해주던 민철동지  
그가 이처럼 성낼줄이야  
일남이는 금시 눈물이 쏟아질듯  
《...그래 민철동지는  
가슴아프지 않습니까

신기록로가 저렇게 식어가는것이...》

박철성의 아들,  
그 참된 량심,  
그 불붙는 충성,  
불수록 민기사의 가슴속에선  
뜨거운것이 화산처럼 터져오르건만  
그럴수록 엄한 지휘관의 목소리

《...안전규정을 위반할 때  
돌격대에선 어떤 처벌을 주기로 했소?...》  
민기사만 쳐다보는 일남이의 눈에선  
화불빛에 피방울이 흘러내리는듯...

《결정을 집행하오  
대장동무!》  
《.....》

억센 절벽앞에  
막히운 파도  
밀다가는 밀리우고  
밀다가는 또 밀리우고  
끝내 눈물을 삼키며 돌아서누나  
화불이며 내화벽돌...  
입었던 방열복마저 모조리 앓기운채...

용해공들은 정양소로 돌아가누나  
노래에 넘쳐 향하던 정양소를  
이 밤은 눈물이 어려, 눈물이 어려...

## 5

사람들은 흩어지고  
여기저기서 타오르던 우등불도 꺼지고  
정문으로 쏟아져나가던  
그 많은 발걸음소리도 뜸해지고  
공사장은 한점두점 불이 꺼져라

하나 여기 연도앞 층층대밑에  
흐느끼며 꺼져가는 한점의 화불  
일남대장이 추켜들었던 그 화불 보며  
민기사는 발걸음 떼지 못하누나

그 화불 바라볼수록  
그의 량심의 깊은곳에는  
일남대장의 그 웨침 꺼지지 않아라  
《가슴아프지 않습니까  
신기록로가 저렇게 식어가는것이...》

아! 눈물과 함께 부르짖던 그 목소리  
이리도 내 가슴을 치는것이나  
위대한 수령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목숨 육탄이 되어 뛰어들려던 그

그들이 받은 은혜 산악같다면  
내가 받은 은혜는 하늘과 같은것,  
그들이 받은 사랑 강물같다면  
내가 받은 사랑은 바다와 같은것,

아! 대를 두고 갚아도 못다 갚을  
그 사랑, 그 은혜를 받고  
내 이대로 돌아간다면  
돌아가 잠자리에 든다면  
내 무슨 수령님의 혁명전사라  
계획이야 튀던 말던 사랑만 받고  
회전로 식을 때까지 잠이 든다면  
이같은 죄악이 어디 있으랴

다음순간 민기사는 추켜들었다!  
일남대장이 추켜들었던 그 해불을  
그 해불 기발처럼 밤하늘에 날리며  
그는 뛰어든다  
낯은 연도속으로

그들의 방열복 펼쳐입고  
그들의 내화벽돌 등에 지고  
그들의 물가마니 머리에 쓰고  
그들이 부르던 그 노래 부르며  
그들이 오르던 연도총계를 날아오른다  
마치 수류탄뭉음을 안고  
적화구로 육박하던 그 영웅같이

《이 쇠물 인민에겐 노래가 되고  
이 쇠물 원쑤에겐 불벼락 되리라》

들어서자  
쏟어나오는 불바람  
첫숨부터 가슴속에 불을 삼킨듯  
물가마니에 풍기는 증기  
연도속은 온통 불구름속인듯,

그래도 해불을 들고 한걸음 한걸음  
걸음마다 구렁치듯 노래를 부른다  
연도속에 일고 이는 그 메아리는  
수천 전우들의 합창소리인듯  
그 소리에 힘을 얻으며 그는 들어간다  
더 뜨거운 열풍속으로, 고열속으로

언듯 보인다, 불빛 저편  
먼지연기를 내어뿜는 낯은 연도목이  
쇠먼지에 녹고 영킨 청동색아가리  
민기사는 그 아가리에 육박해간다  
마치 독을 뿜는 룡의 아가리에 창날을 박듯  
아름아름 내화벽돌 틀어막는다

틀어막고 나와선 물속에 잠기고  
잠겼다간 또 들어가 그 아가리 막고  
이렇게 육박하기 열두번째  
눈앞이 몽롱해져라  
괴물의 독소에 오염되었는가  
틀어막던 벽돌도 물탈도  
혈전장의 그 모든것이 하나의 불덩이!

더듬더듬 그는 나와  
뺨을 살핀다  
밤하늘도 불덩이! 땅도 불덩이!  
온 천지가 그의 눈에  
하나의 불덩이  
(아! 내 눈이 화상?...)  
(하지만 이제 세번만...)

더듬더듬 내리다가 헛밟은 총계  
《앗!...》  
천길나락에 떨어지는듯  
《쿠-웅-》  
둔중한 밤메아리  
안개속에 조용히 꺼져버려라

## 제 6 장 하늘땅에 넘치는 위대한 사랑

### 1

새벽안개로 위장하고 조심조심  
돌격대원들은 담을 넘는다  
《도적작업》을 작전한 일남대장  
그의 반짝이는 신호를 따라  
발자욱도 조심조심 전투장으로 간다

어찌 잠을 자라  
신기록 진군을 멈춰놓고  
우리 어찌 정양소의 단잠을 자라  
나라의 비단이불 따사로울수록  
감격에 젖은 베개도 돌리던 마음들이  
저마다 이불을 차고 떨쳐일어나  
대오를 무었다  
결사의 대오를

《대장동무, 방열복이 안보입니다》  
《대장동무, 내화벽돌이 줄었습니다》  
물가마니도 없어졌다고  
몰탈도 바닥이 났다고

문득 전지불에 보이는것은  
연도 총계를 오르내린 즐편한 발자욱  
분명 그 누가 선손을 썼다고  
이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  
분명 사람의 신음소리 같은…

놀란 눈들이 달음쳐간다  
즐편한 발자욱 따라  
전지불에 보이는것, 저게 누구냐  
총계밑에 떨어져 신음하는  
《아! 민철동지!!》

얼른 안아일으킨다  
마치 불덩이를 품에 안은듯  
그의 몸에서 풍기는 그스름내  
그래도 새하얀 입술에서는  
《이제 세번만…》  
저마다 안타까이 울부짖는 소리  
《민철동지! 민철동지!!…》

그제야 몽롱히 눈을 뜨는 그  
뺨어도 알아보지 못하누나  
《접니다. 일남이…》  
음성을 듣고야 반갑노라고  
대원들의 어깨를 쓸어만지더니  
정에 넘쳐 꾸짖는 소리  
《돌아들 가오 명령!…》

아! 명령으로 우리를 돌려보내고  
자신이 단신으로 이 싸움 벌렸구나  
《이것이 조직의 결정인가요?!》  
《이것이 로동안전규정인가요?!》

## 2

달려온 구급차  
서로이 업으려고 다투는 대원들  
끝내야 자기 등에 업은 일남이  
친아버진들 이토록 가슴아프랴  
안은채 차창밖에 뻐치는 소리  
《동무들! 수혈!…》

그러자 구급차 따라  
새벽거리가 넘치도록 달려가누나

용해공들, 지휘관들이…  
민기사! 민기사! 목메여 부르며

그들의 물결을 바라볼수록  
치수는 소리없이 흐느껴울어라  
가슴을 치며 눈물을 삼키며

아! 근로하는 사람에 대한 아버지사랑을  
이 땅우에 꽃피우려다 쓰러진 민기사  
그 아름다운 정신을 두고  
여태 나는 어떻게 생각했던가

계획이 될가봐  
아버이수령님께 다진 맹세 그르칠가봐  
끝내 자신이 그 화불 앓아들고  
그 뜨거운 연도속에서 혈전을 벌린  
그 참된 삶앞에  
내 무슨 면목으로 머리를 들랴

참회로 하여 치솟는 뜨거운것이  
치수의 가슴에서 뿜어번지더니  
다음순간 그자신 방열복 입고  
그자신이 그 혈전을 이어나가누나

《이제 세번만…》  
애타게도 웨치던 그 연도속으로  
그가 지던 내화벽돌 지고  
그가 쓰던 물가마니 쓰고  
그가 들던 그 화불 들고.

그 소식 듣고 출근하던 사람들이  
저마다 제 량심에 명령을 하며  
불바람치는 연도속으로 뛰어들어간다  
한사람이 막고 나오면 또 다른 사람  
그 사람이 막고 나오면 또 다른 사람  
꼬리 물고 육박하는 결사의 대오앞에  
밝은 연도의 아가리는 숨을 거둔다

어찌 될것이나, 제진탕크는?  
어찌 될것이나, 두번째 시운전은?

## 3

《하얀 증기다! 성공이다!》  
철의 도시에 차넘치는 그 소리에  
민기사는 소스라쳐 일어섰어라  
하나 첫자욱 떼기도 바빠  
사정없이 침대우에 쓰러져버려라

내 정녕 꿈이나?  
 아니면 원하고 바라던 환영이나  
 다시 다시 귀기울여 들어보아도  
 분명 그 소리  
 공장쪽에서 들려오는 환성이여라  
 《히야! 하얀 증기!...》 《끝내 성공!...》

민기사는 몸부림치며 손을 짓는다  
 동무들! 일으켜달라고  
 창을 열어달라고  
 하나 축포 치솟는 그 순간같이  
 온 병동이 그 하늘 보며 쏟아져나갔거니  
 침대우에서 뒹굴어버린 민철기사  
 얼마 음성 들은 어린애같이  
 그 환성 울며 들으며  
 더듬어나가네  
 창문을 찾아  
 하늘을 찾아

그 하늘의 굴뚝먼지 쳐다볼 때마다  
 죽어도 눈감지 못하리라던  
 그만은 오직 그 하나만은  
 경사로운 이 아침  
 일으켜달라고  
 창을 열어달라고

왈칵!  
 입원실문이 열리는 소리  
 명희준의가 뛰어왔어라

시운전장에서 입원실까지  
 희소식 가득 안고 달려온 그  
 민기사를 보자 소리쳐 우네

그리고 정숙을 지키던 명희  
 민기사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시계추마저 멈춰세우던 그  
 이 순간 민기사를 불안고  
 소리소리 흐느끼며 소식을 전하네

그리고 완고하던 치수기사장  
 그가 나머지 연도막이를 끝냈다고  
 시운전도 그가 지휘하였고  
 판가리 스위치도 그가 넣었다고...  
 커다란 창문을 열어제끼네  
 굴뚝이 한눈에 보이는 그 창문을

보아요, 제 하얀 증기!  
 피여오르는 하얀 증기는 햇빛을 받아  
 공장 하늘엔 무지개마저 비껴있어요  
 저것 봐요 경기장의 어린것들이  
 하늘을 향해 꽃을 뿌려요

멈춰선 버스, 환성을 올리는 승객들  
 교통안전원도 직무를 잊은듯  
 무지개비낀 신기록 공장을 황홀히 봐요

하나 창은 열리고  
 봉대를 풀어헤쳐도  
 민기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라  
 그 하얀 증기도 맑은 하늘도  
 공장우에 꺼질줄 모른다는 그 무지개도

다만 이 순간  
 그의 눈에 보이는것은  
 하늘도 땅도 시뻘건 불덩이!  
 전날밤 연도속의 그 불덩이!

너무도 안타까와  
 너무도 가슴아파  
 명희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소리소리 흐느끼며 부르짖어라  
 《온 도시가 다 보는 저 하얀 증기를  
 어찌하여 기사동지만 못보시나요》

#### 4

아! 민기사! 민기사!  
 우리를 위해 그대 목숨 바쳐나섰는데  
 우리 어찌 그대의 화상 보고만 있으랴  
 노동자들이 무쇠팔뚝 걸어올리며  
 채혈장의 첫 의자를 틀어잡고  
 기술자들이, 사무원들이, 그의 이웃들이  
 수술실이 터지도록 밀려드누나  
 그에게 나의 피를, 나의 피부를!

소식 듣고 촬영가들이 달려왔구나  
 먼지연기와 흰 증기의 판가리 계산  
 이슬에 넘쳐 촬영하던 그들이  
 그들이 이 소식 듣고 달려왔구나  
 저 승리의 주인공 민철기사  
 그만이 저 하얀 증기 못본다거니  
 그에게 우리의 피를! 우리의 피부를!

꽃봉오리들이 울며울며 찾아왔구나  
 길호의 동무들이, 꼬마연예대원들이  
 무대복차림새 그냥 그대로  
 회관에서 예까지 울며 왔구나  
 먼지잡이 발명한 길호아버지  
 우리 어찌 길호아버지 없이 막을 올리랴

아! 감격, 울음, 웨침의 파도속으로  
 그 어떤 소식이 또 날아오느냐  
 온 병원에 울려퍼지는 전화종소리  
 찌르릉!... 찌르릉!... 찌르릉!...

무수한 사람들의 물결을 가르며  
 굽기야 뛰어왔어라, 공장당비서  
 들끓는 사람들의 소음을 누르며  
 두손으로 수화기를 정히 들어라  
 《...그렇습니다  
 제가 이 공장의...  
 아아! 수령님!!...》

순간 협의하던 의사들이  
 채혈장의 용해공들이...  
 저마다 그 자리에 굳어진듯  
 저마다 이슬에 넘쳐 듣고있어라  
 천리전선을 타고오는 어버이수령님 음성을  
 《민철동무의 건강이 어떻습니까?》  
 온 방안에 울리는 그이의 음성

《넘려마십시오, 수령님!》  
 감격에 목메이는 당비서의 대답  
 《지금 민기사만 하얀 증기를 못본다고  
 채혈실과 수술실은  
 노동자들과 시민들로 차고넘쳤습니다》

《암, 그래야지!...  
 우리 노동자들을 위하여다 그렇게 된 동무를  
 우리가 구원하지 않고 누가 구원하겠소  
 내 방금전에 구급비행기를 보냈소  
 도착하는 즉시로 나에게 알리시오  
 치료결과도 수시로 알려주구  
 ....

그런 숨은 애국자를 구원하지 못한다면  
 의학은 해 될하며  
 집단은 해 될함니까  
 정성이면 돌에도 꽃이 핀다고  
 우리 힘을 합해  
 그 동무를 꼭 일으켜세웁시다...》

순간!  
 기적이 일어났거니  
 그이의 말씀 가슴에 안은 민기사  
 그가 일어섰어라  
 온몸이 봉대투성인 그가  
 화상타에 땅을 밟지 못하리라던  
 그가 침대에서 일어섰어라, 불사신처럼

일어서더니  
 부축하려는 의사들의 손길을 헤치며  
 몸으로 한자욱  
 넓으로 또 한자욱  
 자욱마다 눈물에 젖으며 다가가누나  
 어버이수령님 음성이 와닿은 수화기로

다가가 온몸으로 그것을 잡더니

수화기를 목에, 뺨에 비비고 비비며  
 민기사의 가슴에서 울음이 터져라  
 《수-령-님!!...》

아! 그의 흐느낌소리에 화답하는가  
 천리 하늘을 요란히 울리며  
 철의 도시에 날아오는 비행기소리여!

하늘땅에 차넘치는 그 동음은  
 그대로 자애로운 수령님의 음성인가  
 날아온 구급비행기 눈물로 쳐다보며  
 온 도시가 한목소리로 부르짖어라  
 《위대한 **김일성** 원수님 만세!》

그러면 장엄한 그 동음 높이 울리며  
 팔을 벌리고 내려오는 어버이품이여!  
 그 품 우러러 만세! 만만세!  
 환성이 넘치며 노래가 터지고  
 노래가 넘치며 울음이 터지누나

하늘의 동음소리  
 땅우의 환호소리  
 수령님과 인민이 주고받는  
 그칠줄 모르는 감격의 폭풍이여!

어제는 한송이 먼지긴 꽃을 두고  
 나라의 채부를 아끼지 않으시더니  
 오늘은 한 지식인의 생명을 위해  
 온 나라를 불러일으켜 보살펴주시는  
 우리의 어버이 **김일성** 원수님!

그 사랑, 그 은덕  
 천세를 만세를 전하려는가  
 기쁨에 뛴이는 동해바다는  
 금강산의 뿌리를 치며 송가를 짓고  
 백두산천지의 푸른 물결은  
 감격의 눈물이 되어 삼천리를 적시누나

아! 인간의 해방  
 인류의 번영을 위해 펼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을 꽃피워가는  
 혁명의 한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

## 5

까치가 우짖네  
 바다가 솔밭속에도  
 민기사네 지붕에 와  
 짹... 짹... 짹... 짹...

년간계획 끝낸 날에 우짖던 까치  
 그 무슨 희소식 또 있기에



지붕에서 우짖다 못해  
쪽대문우에 사뿐히 내려앉아  
고운 꼬리를 저으며 짹짹... 짹짹...

경쾌한 우짖음소리 멎기도 바빠  
동네가 들썩하니 부르는 소리  
《어-머-니!...》  
길호가 뛰어왔어라  
어서 빨리 손퐁금 내오라고  
어서 빨리 환송장에 나가자고

그 다음 숨차게 전하는 소리  
아버지가 퇴원하여 떠나간다고  
신기록공장의 대표가 되어  
당대회로!  
어버이수령님께로!  
너무나도 크나큰 기쁨에  
섰는지 앉았는지  
나들이옷차림 할새도 없이  
성녀는 한달음에 따라나선다  
소년축하단들의 대오와 함께

벌써 저기 공장정문엔  
노래와 함께 터져나오는 사람들의 물결  
첫눈에 보이며라 대렬선두에  
용해공들의 목마에 올라  
당대회로 떠나가는 남편의 모습이  
감격의 눈물로 거리를 적시는 남편의 모습이

문득 목마대렬이 멈춰서누나  
그의 가슴에 발명휘장이 보이지 않거니  
엄하게 꾸짖는 당비서의 소리  
《왜 달지 않습니까, 민철동무!》

하나 어지고 청백한 저 민기사  
목마우에서 땀을 흘리며  
동정을 구하네  
내가 그걸 어찌 다느냐고  
나는 다만 어버이수령님의 구상도우에  
선을 긋고 계산했을뿐이라고

먼지잡이의 발명!  
이는 민기사의 자랑이며 우리의 자랑

그대 가슴에서 그 휘장이 빛난다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끝내 그의 가슴에 달아주누나  
품속에 간수한 휘장  
정부의 이름으로 그에게 수여한  
주체과학의 빛나는  
핵심휘장을!

환송대렬의 앞장에 선 꼬마 길호  
목마우의 아버지 모습 뒤돌아볼수록  
그의 손퐁금건반우에는  
기쁜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려라

준공식날 부르리라던 그 노래  
이 경사로운 거리에서 부르게 될줄이야  
손퐁금 가슴가득 펼쳐갈 때면  
이 세상 모든 기쁨을 한아름 안은듯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퐁금 소리 울려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네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 6

급행차는 떠나자고 예령을 울리고  
대표를 보내는 환송소리는  
철의 도시 하늘에 메아리치는데  
저기 운집한 사람들의 물결 헤치며  
급기야 달려오는 그는 누구냐

커다란 해당화 꽃바구니 소중히 들고  
민기사를 소리쳐 부르는  
그는 야금기지에 만발한 화원을  
자원하여 말아나선 공원지기 콧노인

한송이 꽃인들 다칠세라  
애지중지 가꾸던 해당화  
이 아침은 한포기 또 한포기  
호함진 꽃송이 뿌리채 떠선  
이렇듯 해당화꽃바구니를 꾸렸다네

송이마다 이슬이 고인 해당화  
 벌나비도 향기에 취해 떠날줄 모르는  
 생기에 넘친 그 꽃바구니 들고 오는것은  
 비둘기같은 명희와 일남이여라  
 정중히 드리운 두줄기 붉은 띠에는  
 팍로인일가의 간절한 소원도 수놓았구나  
 《...민기사가 어버이수령님께 간다기에  
 내 이 해당화꽃바구니를 꾸렸다네  
 자세히 보게 이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그리도 심려하시던  
 바로 그 회전소공원의 해당화라네  
 그 경사로운 주석단에야  
 무슨 꽃인들 안오르랴만  
 이 꽃바구니를 올려주게  
 어버이수령님께...》

아! 먼지없는 구내공원  
 꽃에 묻힌 철의 도시를  
 그대로 하늘에 들어올리고싶은  
 팍로인의 마음이 꽃바구니로 되었구나

이 꽃속에는 어려 있다  
 꽃에 묻힌 용해장에서 쇠를 녹이게 된  
 철의 도시 노동자들의 간절한 마음이  
 해당화 꽃송이 되어 피어난것 아니냐

올려달라  
 당대회주석단  
 우리의 어버이 **김일성**원수님께!

이 꽃을 보시면  
 그이께서는 아시리  
 꽃에 묻힌 우리 공장  
 무지개비긴 야금기지를

그이께서는 보시리  
 호합진 이 꽃 송이송이를 거쳐  
 이 세상 모든 복을 누리며 사는  
 이 공장 사람들의 밝은 얼굴을

아! 철의 도시 하늘과 땅을 그대로 담아

당대회에 올리는 해당화꽃바구니  
 그이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는  
 근로하는 인민들의 끝없는 송가여!

## 맺음시

사람!  
 이 한마디 말속에  
 얼마나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느냐

평생을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바쳐오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그 불멸의 자욱자욱우에  
 오늘의 근로인민들이 태여났고  
 그이의 자애로운 안광아래  
 이 찬란한 락원이 꽃피여났건만

사슬에서 해방된 그들을  
 고된 일에서 영원히 해방시키고저  
 인민이 사는 그 모든곳으로  
 몸소 찾으시고 문두드리시며  
 그들의 땀을 두고 건강을 두고  
 혈육처럼 보살펴주시는 우리 수령님

그 파사로운 사랑의 빛발로  
 풀 한포기 못꿨다던 그 옛 공장에  
 이렇듯 해당화바다를 펼쳐주셨고  
 낮과 밤을 가릴길 없었던 머리우에는  
 이렇듯 맑은 하늘을 펼쳐주시지 않았는가

아! 이 나라 한모금의 물  
 한모금의 공기도  
 눈물 없이는 마실수 없는  
 그 사랑, 그 은혜를  
 내 어찌 이 작은 시첩에 다 적으랴

노래하기에는 너무도 위대한 사랑  
 전하기에는 너무도 불멸할 전설을  
 해와 달과 별로 글발을 새겨  
 내 조국 맑은 하늘에 영원토록 전하리라

주체사상 만세!  
 인간해방 만세!  
 인류의 어버이  
**김일성**원수 만만세!

## 우리가 서야 할 자리

리력수

대낮에도 길옆에서 황소같은 꿈이 서로 부둥켜안고 덩굴덩굴 구울며 씨름을 한다는 우리 나라 중부 고산지대인 비고원에서 품위높은 금돌이 폭포처럼 쏟아져내리기 시작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나는 급히 현지로 떠났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심장으로 받들고 전국 각처에서 앞을 다투어 모여온 광산개발자들이 불과 한해가 지나마나한 동안에 하늘을 뒤덮고있던 원시림을 헤치고 이 땅위에 또 하나의 현대적인 대유색광업기지를 일떠세운것이였다. 몇달전에 신문지상에서 《충성갱》의 굴진초소장인 영만이와 압축기운전공인 선옥이에 대한 기사를 읽은 다음부터 편지를 통해서 이미 그들과 친숙해진 나는 여러번 찾아가보려고 생각은 하면서도 다른 일때문에 여직 떠나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목적지가 가까와올수록 지금까지 마음속으로만 그려오던 주인공들을 만나게 된 반가움과 호기심이 더욱 걸음을 재촉했다. 생활에는 여러가지 의의있는 상봉들이 많지만 서로 얼굴을 알지 못한채 편지로만 깊은 인연을 맺었다가 문득 만나게 되는 상봉이란 각별한 충동과 기쁨을 주게 되는것이다.

《동무들! 잘 있었소? 내가 바로 종식이요.》

《예? …야! …이거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소…정말 반갑소. 그러고보니 우리는 한집 안식구같구만.》

《그렇습니다.》

그들과의 상봉을 기쁨으로 장식하기 위해 여러가지로 만나는 극적인 장면을 눈앞에 그려볼수록 흥분으로 가슴을 설레이며 걸음보다 마음이 앞서 사십리산길을 단숨에 들이댔다.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해보니 뜻밖에도 그들이 얼마전에 다른 개발지로 떠나갔다는것이였다.

《아니 다른데로 떠나다니요?…》

나는 도무지 그 말이 얼른 믿어지지 않았다. 얼마전에 편지를 받았을 때도 그런 의향은 전혀 없이 광산을 개발한 다음 금돌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켜 3대혁명기수의 영예와 보람을 더욱 빛내여가겠다고 한 결심을 그대로 믿어온때문이였다.

(혹시 그동안에 그들의 생활에서 무슨 변동이라도 있는것이 아닌가?)

나는 여러가지 의문과 아쉽고 허전한 마음을 안은채 그들의 중대장이였던 덕준이의 안내로 광산을 돌아보았다.

수십억톤의 눈부신 금돌밭과 잇닿은 갯들, 착암대차와 캐여낸 금돌을 콘베아우에 폭폭 퍼올리는 적재기들, 광차에 금돌을 담아주는 아찔한 수채식 수직갱들과 그밑에서 금돌을 받아내고 질풍같이 달리는 전차들, 하루에 수천톤의 선광처리능력을 갖춘 자동화된 현대적인 선광장… 방금 돌아보고난 이 모든것들은 단순한 광산이라기보다 채광에서 선광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이 기계화되고 자동화된 하나의 거창한 흐름선이였다. 광산을 돌아보고난 우리는 갯에서 얼마간 떨어진 둔덕위에 나란히 자리를 잡고 앉았다.

뒹뒹한 산밭에 둘러싸인 광산마을이 그림처럼 한눈에 안겨왔다. 수십만 용사들의 거창한 돌격의 함성인양 와-사품치며 깊은 계곡에서 부서져내리는 구슬같은 맑은 물, 그 양옆으로 학교와 병원, 상점과 문화회관을 비롯한 공공건물과 아담한 문화주택들이 산중턱까지 층층이 줄을 지어 즐비하게 들어앉은것이 마치 휴양도시를 보는듯했다. 마을북판으로 흘러내리는 강물이 굽이굽이 산굽이를 에돌아 바다처럼 무연한 호수로 흘러들고있었다. 연연한 산밭이 비긴 물위에 저녁노을이 곱게 어린 호수는 말그대로 선명한 한폭의 조선화를 보는듯 황홀했다.

(이처럼 거창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꾸려놓고 이곳을 떠나다니? …) 생각할수록 나는 이처럼 훌륭한 생활을 뒤에 남겨두고 떠나간 주인공들의 래력이 더욱 궁금해났다.

《몇달전까지만 해도 여기는 인적없는 울창한 수림이였습니다.》

천천히 담배연기를 내뿜으면서 이윽도록 마을을 굽어보고있던 덕준이가 나직이 말했다. 그의 말과 표정 속에 깊은 감회가 어려있었다.

《짐작이 갑니다. 정말 3대혁명의 기치를 들고나가는 우리 시대 로동계급이 아니고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왜 그들이 이처럼 훌륭한 생활을 꾸려놓고 이곳을 떠나갔습니까?》

나는 더이상 궁금한 생각을 그대로 물어둘수가 없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덕준이는 말문이 굳어진

듯 여전히 깊은 감회에 잠긴채 좀처럼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그바람에 나는 혹시 간섭하지 말아야 할 생활을 건드린것이 아닌가 하는 미안한 생각이 들기까지 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뒤에야 덕준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뭘라고 한마디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거창한 시대의 흐름속에서 자기들이 서야 할 자리를 찾아 새로운 전투장으로 떠나갔다고 하는것이 적중한 말이겠는지 모르겠으나 그들은 우리모두에게 자기들이 서야 할 자리를 똑똑히 깨우쳐주고 새로운 초소를 찾아갔습니다.》

덕준이는 그림처럼 내려다보이는 마을에서 그들이 남기고 간 자욱을 더듬어보기도 하듯 지그시 한곳에 눈길을 멈춘채 감회어린 표정으로 천천히 말을 하였다.

《나는 이십년동안 착암기를 잡고 일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캐여낸 쇠돌을 쌓아놓으면 아마 저 앞산만할겁니다. 나는 늘 그것으로써 자기도 시대와 혁명 앞에 적으나마 기여를 하고있으며 제자리를 굳건히 지켜오고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영만동무와 선옥동무를 통해서 우리가 제자리를 지킨다는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것을 새롭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내가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기까지에는 여러가지 곡절들이 있었지만 그가운데서 몇가지 사실만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어떻게 그처럼 짧은 기간에 여기에다 이런 현대적인 대유색광업기지를 일떠세우게 되었으며 그들이 왜 새로운 전투장을 찾아떠나게 되었는가 하는것을 리해할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일을 시작한것은 낮은 산의 진달래가 수집은듯 연분홍 입술을 조심스럽게 내어밀던 때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여기는 흰눈이 발목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이고장을 대유색광업기지로 꾸릴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전국 각지에서 개발자들이 앞을 다투어 모여왔습니다. 그들은 나이도 직업도 성격도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이 땅우에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활짝 꽃피워가겠다는 지향에서야 조금도 다를것이 없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나이와 성격과 직업이 모두 다르듯이 그들의 포부와 희망도 제나름이었습니다. 그중에는 지금까지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고스란히 배려와 사랑만을 받고 자라왔으니 그 은덕에 조금이라도 보답을 올리려는 마음을 안고 달려온 고등중학교 졸업생들이 있는가 하면 개발지에

서 용맹과 위훈으로 청춘을 빛내여가기 위해 왔다는 청년들도 있고 어려운 투쟁속에서 자신을 로동계급으로 단련해가기 위해서 왔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속에 영만동무와 선옥동무도 끼여있었습니다. 영만동무는 광산이 어떤곳인지 구경도 못해보고 군대에서 배낭을 진채 달려온 매우 푸짐이 좋은 친구였는데 오던 날 오락회에서 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켜오던 조선인민군 상사인 자기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개발지에서 청춘의 영예와 보람을 빛내이기 위해 여기로 달려왔다는 <도착성명>이라는것까지 발표해서 처음부터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런것때문에 어딘가 좀 회떠운 인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선옥동무는 그와 반대로 막장의 발파소리를 자장가로 들으면서 자란 동무였습니다. 그는 광산에서 고등광업학교를 마치고 대학으로 가기전에 당과 혁명앞에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해서 기여를 하겠다는 가혹한 마음을 안고 몇해를 일하다 찾아온 능숙한 압축기운전공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성격은 매우 대조적이였습니다. 영만동무는 생김새도 더뎈거리는 그의 성격처럼 서글서글하고 잔등에다가는 땀을 쳐도 한말어치나 칠만큼 건장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선옥동무는 저 호수처럼 그윽하고 빛나는 리지적인 눈을 가진 동무였습니다. 어찌나 그의 눈이 아름답던지 세상의 온갖 아름다움이 그 눈속에 모두 어려있는듯했습니다. 누구나 그 눈을 한번 보기만 하면 저절로 마음이 즐거워지고 깨끗이 정화되는듯했습니다.

그는 말보다 그 눈으로 자기의 심정을 표현하는 동무였습니다. 흔히 이런 대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사이에서는 깊이 사귀기전에 오해가 생기기 쉬운데 바로 이 동무들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좀 뒤에 하기로 하고 우리 중대는 이런 친구들로 무어진 청년돌격대였습니다. 그것은 당창건기념일까지 금돌을 캐서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충성의 보고를 올리기로 결의하였는데 그 결의를 실천하려면 광산적으로 우리가 개발하게 될 <충성갱>이 차지하는 중요성도 있었지만, 탐사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뚫고나가야 할 앞길에 여러가지 난관들이 앞을 막아나설것을 예견한 데서였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중대는 이처럼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보니 나는 자연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일을 하자고 해보니 걸리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운데서도 제일 문제로 되는것은 물론 동무들의 열의가 높기는

하지만서도 그 열의에 비해 나이도 일에 대한 경험도 모두 어린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착암기를 다루어본 사람이라고는 불과 몇명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다 내 보기에 사방에서 모여오다니 생활이 켜이지 못해서 이러저러한 <자유주의>경향들이 나타나고있는것이 제일 걱정스러웠습니다. 물론 즐겁게 노는것은 좋은 일이지만 중대부에서 회의를 하는데도 여기저기에서 손뽕금소리가 뽕뽕거리고 한쪽에서는 손벽장단에 맞추어 춤판이 벌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축들은 갈괌질을 하며 분주탕을 피우고 돌아갑니다.

<아 좀 조용하우 조용해...이거 어디 소란스러워 견디겠소?>

참다못해 한마디 큰소리 칩니다. 그러면 잠시 잠해집니다. 그런데 성합니다. 이번에는 뒤전에서 배구공이 포알처럼 천막안으로 날아들어와 잉크병을 조겨대는바람에 온통 잉크벼락을 맞습니다. 그리고는 도리어 <중대장동무, 그 뽕을 좀 차주십시오.>하고 심부름까지 시킵니다. (예익 망할놈의 친구들) 할수없이 뽕을 안고 나가 멀찌감치 차던집니다. 그뿐인줄 압니까? 한번은 영만동무를 비롯한 몇몇 친구들이 얼음밀에서 고기를 잡는다고 뽕을 들고 돌아치다가 하마트면 온 산관에 불을 놓을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속에 그처럼 얄전한 선옥이까지 섞여 돌아간단말입니다.

(안되겠어. 우선 규률부터 세우고 개발자로서 제 자리를 똑똑히 지키도록 신발을 바로 신겨야지 이러다간 정말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는지 모르겠군...) 나는 이런 결심으로 소대장들과 사업을 짜고드는 한편 첫 개발사업으로 이 <번개골>에다 천막을 치고 침실을 꾸리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작업은 소대별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대원 몇사람을 데리고 저쪽 개울가에서 식당을 꾸리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만이와 같이 일을 하던 꼬마돌격대원인 창길동무가 소리쳐 나를 부르면서 급히 달려오질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늘 강가에 아이를 내놓은것 같던 나는 가슴이 철렁해서

<무슨 일이요?> 하고 마주 달려갔습니다.

<중대장동지... 저기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영? 싸움이 벌어지다니! 누구하고말이요!>

<영만동무하고 선옥동무가 싸웁니다.>

<뭐? 영만동무하고 선옥동무가!...>

나는 도무지 갈피를 잡을수가 없어 멍하니 창길이의 얼굴만 지켜보았습니다. 영만이와 선옥이가 싸운다니 이거야 어디 믿을수가 있어야지요.

<차 중대장동지, 빨리요.>

창길이가 잡아끄는바람에 영문도 모르고 그리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빙 둘러선 가운데 영만이와 선옥동무가 서로 맞서있더군요. 선옥이는 긴 속눈썹을 차분히 내려간채 아래입술을 감쌀면서 그런듯이 서있었습니다. 그와 마주서있는 영만이는 무슨 꾸레미같은것을 옆구리에 낀채 얼굴이 벌개서 씨근덕거리며 선옥이를 금시 떠넘길것처럼 쏘아보고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나는 무작정 소리를 치면서 두사람사이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영만동무가 <예익!> 하고 옆구리에 끼고있던것을 내동댕이치고 썩 돌아서는것이었습니다. 뜻밖에도 그것은 폭약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나는 눈이 둥그래서 땅우에 흩어진 화약과 주위사람들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선옥동무는 점점 고개를 깊숙이 뺄구면서 몸돌바를 몰라하더군요. 일은 이렇게 된것이었습니다. 영만동무네 소대에서 천막자리를 잡은 곁에 몇백년이나 묵었는지 다 썩어 없어지고 키 반이나 되게 밀둥만 남은 구새먹은 아릅드리 강대가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속에 발바닥을 활아먹으면서 겨울을 난 곰이 그대로 웅크리고 들어앉아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냈는가구요? 강대끝 굽인돌이로 성애가 허영게 붙어있는것이 단서로 되었습니다. 그속에서 어떤 짐승이 숨을 쉬고있다는 증거지요. 틀림없이 이속에 무엇이 들어있다! 토론끝에 창길이가 영만의 목마를 타고 그안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호기심과 두려운 생각으로 가슴을 두근거리며 목을 기웃거리면서 안에다 전지불을 비쳐보던 창길이가 시꺼먼놈이 노린내를 확 풍기면서 대가리를 버쩍 추켜드는바람에 기급을 해서 땅우에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는 얼마나 혼이 났던지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다가 <곰...곰...> 하고 겨우 입안에 잣아드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통에 온 중대가 이리 닫고 저리 뛰고 하면서 곰을 잡을 대담한 작전을 벌렸습니다. 한쪽에서는 강대주변에다 나무를 쌓고 불을 질러서 제창 불고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우겨대고, 한패는 남포심지예다 불을 달아서 구새통안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서로 옥신각신하고있었습니다. 사냥기분에 들떠 돌아가던 영만이가 대담하게 폭약을 안고 곰에게로 육박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에서 나타났는지 선옥동무가 갑자기 그의 앞을 막아나섰습니다. <뭐요?> 하마트면 그를 받아넘길변한 영만동무가

몸의 균형을 잃고 비칠거리다가 버럭 소리를 쳤습니다.

<저... 유육동물을 법적으로 보호하게 돼있지 않아요?> 의혹과 실망이 어린 눈으로 영만이를 지켜보던 선옥이가 조용히 눈을 내리깔면서 나직이 말했습니다. <영? 법!> 영만이는 가슴이 뜨끔해서 얼굴이 벌개가지고 뒤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옥동무의 눈에 어린 자기의 량심을 읽었던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친구가 자존심을 꺾이지 않으려고 선옥이에게 비켜서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우락부락하는 남자들앞에서 머리도 제대로 들것 같지 못하던 그가 영만의 자존심을 건드린것을 송구해하면서도 뿌리가 내린듯 꼼짝않고 서있었습니다. 그러자 영만동무의 입에서 점점 더 거칠은 소리가 튀어나오게 되고 사태가 격화되어갔던것입니다. 그러나 선옥동무가 제때에 일깨워 준통에 우리 나라 법의 혜택으로 그놈의 꿈이 털끝하나 상하지 않은채 기차를 타고 동물원으로 갔습니다. 우리 광산개발자들이 보내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중대에 <곰중대>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하하... 우리의 생활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하... 정말 굉장한 선물에 그럴듯한 칭호를 받았군요.》

우리는 한바탕 유쾌하게 웃었다. 나는 개발자들이 아니고서는 체험할수 없는 그의 이야기에 처음부터 깊이 이끌려들어갔다.

《이 일을 그대로 물어둘수 없어 그날저녁 중대적으로 회의를 열어놓고 영만동무를 되게 비판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른 사람들도 결별에 맞아 자극을 받도록 하자는 생각이었던만큼 처음부터 유육동물을 보호증식할데 대한 국가법을 위반한것도 문제이지만 폭약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한것은 더 엄중하다, 이건 비상사고다, 그뿐이 아니다, 이 동무는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다, 자기의 잘못을 일깨워주려는 동무들 특히 녀성동무에게 란폭한 행동을 한것은 우리 시대 청년들의 명예에 관한 문제이며 광산개발자들의 수치다. 이렇게 문제를 크게 걸어놓고 단단히 비판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비판의 강도를 이처럼 높인것은 그의 성격으로 보아 혹시 반발해나서지나 않겠는가 하는것을 우려한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목에 피대를 세워가지고 단단히 오금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러다가 맨뒤에 앉아있는 선옥동무가 고개를 떨구고 어찌나 죄스럽고 송구해하는지 그 마음에 이끌려 그만 뒤를 늦추

고말았습니다. 그러나 뜻밖이라 할만큼 영만동무가 허심하고 겸손하게 자기의 잘못을 비판하는바람에 처음 생각했던것보다 회의성과가 썩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저 친구가 회의에서는 저렇게 접수해놓고 선옥이에게 그 화풀이를 들이대지나 않을가?) 하는 의문이 없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날 저녁 선옥동무의 심정은 몹시 복잡했습니다.》

...식당근무를 맡은 그는 아침쌀을 일어놓은 다음 식칼을 들고 감자가 무독히 담긴 바구니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그것을 깎다말고 한동안 생각에 잠기군했다. 그때마다 눈앞에 얼굴이 벌개서 씨근덕거리며 자기를 뚫어지게 쏘아보던 영만의의 얼굴이 회의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비판을 하던 모습과 함께 선히 되살아왔다. 그는 영만이가 처음에 폭약으로 곰을 잡으려고 할 때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것을 알면서도 얼른 말리지 못했다. 남자들의 일에 지나치게 간참하면서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것 같아서였다. 그러나 그가 폭약을 안고 나서자 더는 그대로 보고만 있을수 없어 송구한 마음을 안고 그를 막아섰던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중대회의로까지 문제가 확대될줄은 몰랐다. 더군다나 회의에서 그 문제를 자기와 결부시키지만 않았더라도 또 좀 나았을것인데 자기때문에 그가 비판을 더 받고보니 죄스러운 생각에 다시는 그를 대할 면목이 있을것 같지 않았다. 물론 회의에서 그가 허심하게 자기비판을 하기는 했어도 결코 자기를 좋게 생각할리가 만무했다. 그럴수록 그는 오히려 중대장이 원망스러웠다. 그렇다고 이제 그를 찾아가서 량해를 구한다는것도 어색하고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 동무가 몹시 고깝게 여기고있을텐데 어쩌면 좋담...) 한동안 생기에 잠겼던 선옥이가 호-가볍게 한숨을 쉬고나서 다시 일손을 놀리려는 때였다. 밖에서 꿈 갑자르는 소리와 함께 와르르 나무단 무너져내리는 소리가 났다. 깜짝 놀라 식칼을 든채 움쭉 일어서서 문밖으로 뛰어나가려던 선옥이 그 자리에 발목을 잡힌 사람처럼 굳어졌다. 그는 한동안 자기의 눈을 의심했다. 뜻밖에도 영만이가 마른 장작을 한짐 잔뜩 골박아쳐다 문앞에 부려놓은것이였다. 그는 팔소매를 들어 땀이 질벅한 이마를 뺨 문지르고나서

《바삭 말라서 잘 탈거요.》

하고 벌쭉 웃어보이고는 그길로 씨엥씨엥 되돌아가는것이였다.

영문을 몰라 그가 사라진쪽을 의아하게 지켜보고 있던 선옥이는 한참 지나서야 오늘 있는 일을 두고

자기가 미안하게 생각할가봐 마음을 풀어주려는것임을 알았다. 공연히 이런 그를 두고 웅졸하게 생각하고있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역시 사대다운 그 성격이 마음에 들었다.

(저 동문 정말 이상한 동무야...)

한편 선옥이는 그가 자기의 마음속을 환히 꿰뚫어보고있었다는 생각에 얼굴이 활짝 붉어져서 얼른 부엌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는 바로 이런 친구였는데 그때부터 두사람의 관계가 몹시 흥미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충성갱>마구리를 잡고 첫 전투를 시작하던 날 또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전투이니만큼 모두 긴장하고 흥분된 마음을 안고 작업장에 정렬했습니다. 한데 착암기 한대가 감쪽같이 없어지질 않았겠습니까. 야단이더군요. 그때는 설비가 미처 도착하지 않은 때여서 몇몇 착암공들이 수백리밖에서 자기들이 쓰던것을 배낭에 지고 온것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내가 지고온 착암기가 없어졌던것입니다. 알고보니 영만동무가 보이질 않더군요. (옳지 이놈의 친구 작간이군)속에 짊이는데가 있어 그가 거쳐하는 천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첫 작업을 앞두고 착암기 다루는 법을 배워달라고 조르던 일이 생각났던것입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야단입니다. 천막주위를 여기저기 찾아헤매었습니다. 아 그런데 글썽 그 친구가 천막에서 얼마간 떨어진 후미진곳에다 비옷을 깔아놓고 착암기를 분해했다가 그것을 맞추지 못해 땀을 뻘뻘 흘리고있질 않았겠습니까. 얼굴에 온통 기름칠을 하고말입니다. 나를 보자 한순간 당황해서 어쩔바를 몰라하더니 벌떡 일어서서 <중대장동지! 3소대 김영만 착암기분해결합법을 연습하고있는중입니다.> 하고 땀심줄게 보고를 하더라말입니다. 하하...》

덕준이는 그때 일이 눈앞에 되살아와 몸을 흔들며 소리내여 웃었다.

《하루빨리 착암기를 잡으려고 애쓰는 그 절절한 마음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나 그때 내 마음은 그의 심정을 받아안을만큼 뜨겁진 못했습니다. 곰사건이 있는데다 그 일까지 겹치고 보니 정말 그가 희미운 사람으로 여겨지면서 오히려 속이 울컥했습니다. 더군다나 얼렁뚱땅해서 사람을 업어넘기려 든다는 생각으로 <동무, 어디서 이런 자유주의를 배웠소? 영... 군대복무까지 했다는 동무가 왜 그 모양이요.> 하고 버럭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그가 시무룩해서 고개를 꼭 숙이는것이었습니다. 그리고보니 측은한 생각이 들면서 지나쳤구나 하는

뉘우침이 오더군요. 나는 차라리 말이 났던김에 그에게 제자리를 툭툭히 지키도록 일깨워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거기 좀 앉기요.> 하고 그와 마주앉았습니다. <흥분한 김에 너무 큰소리를 쳐서 안됐소. 그러나 생각해보오. 우리는 당창건기념일까지 금돌을 캐서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충성의 보고를 올릴것을 당앞에 결의한 사람들이요. 우리가 당앞에 다진 결의를 어김없이 실천하자면 우선 모든 사람들이 다 제가 서야 할 자리를 툭툭히 알고 그것을 자각적으로 지켜나가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오. 우리가 제자리를 지키다는것은 결국 당앞에서 맡은 자기의 초소에서 혁명의 수레바퀴를 힘있게 떠민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겠소. 그런데 누구보다 제자리를 굳건히 지켜줘야 할 동무가 이렇게 남의 말밥에 올라서야 되겠소?>

<잘 알았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자기를 뉘우치는것 같아 더 말을 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스쳐지날수 없어 대렬앞에서 이틀간의 식당근무처벌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선옥동무가 두볼이 빨갛게 물들면서 고개를 꼭 숙이는것을 보고 두사람 사이가 남달리 가까와지고있다는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이 깊도록 식당쪽에서 텅 텅 나무패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찌나 세팔게 장작을 조겨대는지 천막이 움썽움썽 하는것 같았습니다. (저 친구가 속에서 불이 이는 모양이군.)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좋지 않더군요. 그러나 못들은척 하고 마음을 꼭 누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글썽 그 친구가 이틀동안에 해야 할 나무패는 일을 하루밤사이 다 해놓질 않았겠습니까. 하하... 그리고는 이틀에 해야 할 일을 밤동안에 다 했으니 그 나머지 시간으로 착암기 다루는 법을 배워달라는것이었습니다. 진정이 담긴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정신이 버쩍 들더군요.

(내 눈이 무디어진 탓으로 그 나이에 누구에게나 흔히 있는 락천적인 특성들을 결함으로 잘못 생각하고 그들의 깊은 마음속을 보지 못하고있었구나.) 때늦게나마 이런 뉘우침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영만이의 가슴속에 타버리고있는 저런 열정을 잘 받아들여주기만 하면 짧은 시일안에 모든 중대원들을 다 착암공으로 키울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개중대가 몽땅 착암공으로 된다는것은 얼마나 그럴듯한 일입니까. 결국 한개중대가 중기관총으로 모두 무장하는것과

갈단말입니다. 이런 힘의 원천을 곁에 두고도 매일 로임파장을 붙들고 없는 착암공을 내라고 징징 우는 소리를 하며 따라다니던 일이 부끄러웠습니다. <중소, 해보지요!> 나는 떡판같은 그의 잔등을 철썩 소리가 나게 갈겼습니다. 그것으로써 자기의 잘못을 그앞에 툭 터놓았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막장단면모형을 따로 만들어놓고 착암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막장단면모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철근이나 나무를 막장단면모양대로 휘어서 한메터나 두메터 사이를 두고 앞뒤에 세운 다음 가름대를 대고 고정시킵니다. 그리고는 앞뒤면마다 가마니를 대고 가운데다가는 버짚을 채웁니다. 그러면 결국 한메터나 두메터의 두터이를 가진 막장모형이 됩니다. 버짚으로 인형을 만들어놓고 창격훈련을 하는것과 비슷합니다. 그 모형에다 착암기를 들이댑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가서 정대끝이 나온것을 보고 각도를 판정합니다. 착암에서 제일 중요한것은 암질상태를 보고 천공설계를 자체로 하는것입니다. 즉 이 암질은 어떤 종류인데 얼마간격에 몇도각으로 남포구멍을 몇개를 뚫어야 하겠는가 하는것을 기술적으로 제격 판단하는것입니다. 그것만 제대로 하게 되면 기능공이 다 되는셈입니다. 밤에는 우등불을 피워놓고 훈련을 했습니다. 두번째 단계는 실지 앞벽에 대고 뚫는것인데 그것은 작업시간에 교대별로 진행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보름동안에 모든 중대원들이 다 림름한 착암공으로 되고 영만동무는 초소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정말 착암공 한개중대를 가지게 되고보니 겁나는것이 없더군요. 처음부터 우리는 두배 세배가 아니라 다섯배 열배의 속도로 내달렸습니다. 그제야 나는 모두 제자리를 지키게 됐다고 마음을 놓게 되었습니다. 사방에서 <곰중대>가 은을 낸다고 칭찬들이 자자했습니다. 우리의 성과를 축하해주듯 온 산판에 붓꽃, 나리꽃, 초롱꽃을 비롯한 이름모를 갖가지 들꽃들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전투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압축공기가 점점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막장이 깊어지고 착암능력이 높아진때문이었습니다. 한점의 바람때문에 심각한 투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선옥동무가 맡아주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압축기가 자기의 능력을 다 낼수 있도록 기대정비를 간지게 하는 한편 매일 교대를 앞두고 공기배관을 돌아보면서 바늘끝만한 찰도 제때에 틀어막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습니다.》

…선옥이는 작업교대를 앞두고 들꽃을 한아름 꺾

어안고 갡으로 걸음을 옮겼다. 갡앞에 이르렀을 때였다. 밀차에다 동발목을 싣고있던 패들속에서 키가 꺾두룩한 친구가 불쑥 뛰어나오면서

《선옥동무 그 꽃을 나한테 주려고 가져요? 고맙소.》

하고 익살을 부리자 누군가 그의 옷깃을 슬쩍 끌어당기며

《차 이 친구가 이렇게도 눈치가 없다구야. 그제다 임자가 있는 꽃다발인데 영만동무한테 괜히 큰 일나려구그래.》 하고 한술 더 떴다.

《아 그런걸 난 또 모르고… 이거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가 깎듯이 고개를 숙이는바람에 와 웃음이 터졌다. 선옥이는 얼굴이 확 붉어져서 고개를 푹 숙이고 그 웃음소리에 쫓겨 갡안으로 얼른 뛰어들어갔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더 높아졌다. 그들이 안보일만큼 들어와서야

《아이 정말…》

하고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면서 그들쪽에다 돌려대고 입을 비죽 내어밀었다. 익살군들앞에서는 피하는것이 상책이라는것을 생활체험을 통해서 잘 알고있는 그였다. 그러지 않고 공연히 맞섰다가는 본전도 못건지는 판이었다. 그러나 부끄러운 생각을 금할수 없었다. 요즘 익살군들속에서 자기와 영만을 말밥에 올리고 시까스르는 도수가 점점 높아가고있는것이 질색이었다.

(이건 다 그 동무때문이야!)

그는 영만이가 앞에 있더라도 한것처럼 새초롬해졌다. 선옥이의 눈에 비친 영만이의 첫 인상은 그닥 좋은 편이 못되었다. 남자답게 씨원씨원한데 다 일에 대한 의욕과 열정도 일정하게 엿보이기는 하지만 맷힌데 없이 어데서나 우스개소리로 사람들을 웃기고 더떨거리는것이 어덴가 지성이 낮아보였다. 그러나 그가 곰사전때 말없이 마른나무를 쳐다주 고가는바람에 커다란 감동을 받게 되었다.

사내다운 그 성격에 은근히 마음이 끌렸다. 그후 착암기사건에서 다시 충동을 받게 된 선옥이는 저도모르게 그에게로 한걸음 더 이끌려들어갔다.

더군다나 이틀동안에 해야 할 일을 하루밤사이에 해치우고 나머지시간에 착암기 잡는 법을 배워달라고 할 때 선옥이는 걱정이 솟아올라 남몰래 그에게 학습교재를 가져다주기까지 했었다. 그런데 익살군들이 이런 내막들을 알아내가지고 이리쿵저리쿵 입방아들을 찧기 시작했던것이다. 그런데 얼굴이 더 뜨거워지는것은 영만이가 그들과 한짝이 되



여 맞장구를 치면서 오히려 한술 더 뜨고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럴수록 선옥이는 그앞에서 일부러 새침해가지고 뻔뻔하게 굴었다. 그러나 그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우는데 지나지 않았다. 며칠전이었다. 그날도 선옥이는 갯안에 있는 꽃병들에 꽃을 갈아꽃으려고 은방울꽃, 초롱꽃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소담한 들꽃들을 한아름 안고 갯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마침 막장에서 초소원들과 함께 나오던 영만이와 마주쳤다. 선옥이는 그들이 또 뭐라고 지분거릴가봐 가슴이 두근거리 일부러 뻔뻔한 표정을 짓고 지나가려 했다. 아니나다를가 익살꾼들이 손벽을 치면서 환영곡을 불어댔다. 그러자 영만이가 빙글거리며 마주오더니 두손을 쑥 내어밀었다. 그 바람에 선옥이는 얼결에 그에게 꽃을 넘겨주고말았다. 그래서 또 익살꾼들의 말밥을 지어내게 되었던 것이다.

(내가 땀뭇이치뭇... 제손으로 꽃을 안겨주었으니 그런 놀림을 받아 싸지 뭐야.) 선옥이는 그때 어떻게 돼서 그런 실수를 하게 되었던지 제깍에 낮이 붉어지고 웃음이 나와 방긋 미소를 지었다. 그는 빨갛게 달아오른 볼우에 흘러내린 귀밑머리를 안전모속에 살짝 밀어넣고 날렵한 동작으로 걸음을 옮겼다. 랑쪽에 형광등이 주련이 늘어선 갯안은 지하철도를 련상케 했다. 선옥이는 벽에 꺾꼬만 당반을 매고 피나무화분에 담아놓은 꽃병에 꽃을 갈아꽃으면서 공기배관을 따라 막장으로 들어갔다. 갯안은 향기로운 꽃밭속에 잠긴듯했다. 처음 선옥이가 압축기운전실에 있던 꽃병을 가져다 동발짬에 올려놓은것이 계기가 되어 이런 꽃밭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제 와서는 모든 운전공들속에서 꽃을 가꾸는것이 생활로 되었다. 작업구간에 들어서자 조명등으로 배관을 비쳐보며 막장으로 들어가던 선옥이는 걸음을 멈추고 되돌아섰다. 방금 지나친 배관이음짬에서 아무래도 바람이 새어나오는것 같은 예감이 든 때문이었다. 그 자리에 되돌아온 선옥이는 이음짬에다 이리 저리 손등을 돌려대보고나서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귀를 바짝 들이대보았다. 실오리같은 바람에 귀밑머리가 하느적거렸다. 그는 한쪽 어깨에 걸친 가방속에서 장난감같은 꺾꼬만 마치고정을 꺼내들고 바람이 새어나오는 구멍에다 가느다란 늪뭇을 푹뭇거리며 재치있게 박아넣었다. 그리고는 배관수리공들이 인츰 알아볼수 있도록 백묵으로 크게 표식을 해놓은 다음 수첩을 꺼내들고 그속에 그려넣은 배관략도에 같은 표식을 해놓았다. 그가 막장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였다. 갑자기 앞에서

《썉-》 바람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어마나?!》 선옥이는 가슴이 철렁해서 한달음에 거기로 달려갔다. 그러나 눈앞에 벌어진 광경을 보고 그만 아연해졌다. 배관이 터진줄로만 알았는데 뜻밖에도 영만이가 자기의 조수인 창길이를 데리고 앉아서 중간발브를 열어놓고 바람을 쏘이고있는것이였다.

《아이 정말...》

선옥이는 억이 막혀 저절로 허거픈 웃음이 나왔다. 그러고도 오늘 아침 모임때 압축공기가 약해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자기들을 비판하던 일을 생각하니 그에게 놀림을 당한것 같은 분한 생각이 들었다. 때늦게 선옥이를 발견한 창길이가 엉거주춤 일어서서 두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몸둘바를 몰라했다. 그제야 선옥이를 알아본 영만이가 천천히 바람을 막고 일어서면서 어색하게 뒤머리를 굽적거리더니 새삼스레

《수고하십니다.》 하고 능청을 부렸다. 선옥이는 그것이 더 미웠다.

(어쩌면 저렇게 능청스러울가...) 그는 짹짹하게 한마디 쏘아주고싶었으나 무슨 말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 새침해서 그를 쳐다보기만 하다가

《동문 부끄럽지도 않아요?》

하고 툭 쏘았다. 고작 골라서 한 말이었으나 영만이는 대수롭게 여기는것 같지 않았다.

《엏! 부끄럽습니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는 군대식으로 몸을 똑바로 세우고 큰소리로 대답했다.

《아이참...》

선옥이는 기가 막혀 더 말을 못했다.

《더 할말이 없습니까? 그럼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재차 큰소리로 묻고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절도있게 돌아서서 막장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선옥이는 떡판같은 그의 잔등을 밟살스럽게 바라보다가 호-한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돌아섰다. 자기로서는 아무리해도 푸점좋은 그를 어떻게 당해낼수가 없었다. 이 뜻하지 않은 일로 해서 선옥이는 지금까지 좋게 간직해오던 그의 인상이 갑자기 안개가 낀것처럼 뿌연게 흐려지고말았다.

선옥이가 방금 기대를 인제받고나서 일을 시작한 뒤였다. 창길이가 조용히 찾아왔다. 선옥이는 일부러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저...선옥동무》 한동안 머뭇거리던 그가 입을 열었다.

《왜 그래요?》 선옥이는 기대결에 쪼그리고 앉아

물우에 흘러내린 기름을 손바닥에 묻혀 기름통굽에 대고 훑어넣으면서 머릿도 들지 앉은채 쌀쌀하게 말했다. 그는 틀림없이 그 능청스러운 영만이가 어린 그를 추겨서 자기에게 변명을 하려 보냈으리라는 생각에서 본의아니게 그를 박대했던것이다.

《사실은 아까 막장에서 갑자기 열이 나기때문에 참다못해서 내가 몰래 바람을 좀 열어놓았었는데 그만...》

그는 선옥이의 표정을 살피면서 말끝을 얼버무렸다.

《막장에서 열이 난다구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선옥이는 저도모르게 벌떡 일어서서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가을날씨처럼 서늘하고 겨울에는 여름날씨처럼 푸근한것이 갱의 특징이다. 그런데 오늘 영만이네 조에서 두번째 발파를 하고 나서부터 전에도 막장안이 무더워났다. 숨이 차고 땀이 비오듯했다. 그통에 창길이는 참다못해 슬그머니 빠져나와서 소리 안나게 중간발브를 살짝 열어놓고 바람을 쏘였다. 이때 영만이가 마주 왔다. 창길이가 얼른 바람을 막아놓고 달아나려 하자 영만이가 그의 어깨를 꼭 눌러앉히고 바람을 꼭 열어주었다. 그리고 귀에 대고 소리쳤다.

《창길이 앞으로는 이런 짓을 하면 안돼. 이젠 다로동계급의 본때가 아니야.》 창길이는 얼굴이 벌개서 고개를 숙였다. 바로 이때 선옥이가 달려왔던것이다.

창길이의 말을 듣고난 선옥이는 머리뒤했을 어색하게 굽적거리던 영만이의 모습이 선히 되살아오면서 얼굴이 뜨거워났다. 그런 내막을 모르고 입빠른 소리를 한 자신의 경망한 행동이 부끄러웠다. 다시는 영만이를 대할 면목이 있을것 같지 않았다.

(어쩌나... 정말 그 동문 이상한 동무야!) 그는 능청을 부리면서 자기를 이모 저모 곤경속에 빠져 들어가게 하는 그가 정말 밍살스러웠다. 그는 다른 운전공에게 잠시 기대를 맡겨놓고 급히 막장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앞벽에 물기가 질벽하게 내배인 막장은 증기욕탕처럼 후끈했다. 영만이를 비롯한 초소원들의 얼굴에서 땀이 비물처럼 줄줄 흘러내리고있었다. 순간 선옥이의 머리속에 《온수맥!》 하는 생각이 번개치듯 스쳐갔다. 탐사결과에 《충성갱》이 밀고나가는 앞길에 즈온천으로 흐르는 온수맥이 나타날수 있다던 탐사대일꾼들의 말이 생각났던것이다. 그는 당장 막장에서 물이 터

져나와 모든것을 단숨에 삼켜버릴것만 같아 마음이 조마조마해났다. 그런데도 영만이는 그런 내력을 전혀 모르는지 태연하게 막장암벽에 착암기를 들이대고있었다. 선옥이는 그가 광산일이 처음이어서 이런 내막을 전혀 모르고있는것 같아 수첩을 꺼내 들고 《앞에 온수맥이 나타났어요!》라고 큼직하게 써서 영만의 눈앞에 펼쳐보였다. 그러나 그는 빙긋이 웃으면서 알고있으니 걱정말라는 뜻으로 머리를 끄덕이는것이였다. 선옥이는 그의 태연한 모습에 놀랐다. 한편 그는 이러한 영만이앞에 자기의 조급성을 드러내보인것 같아 얼굴이 빨개졌다. 그는 위험앞에서도 태연하게 착암기를 잡고 서있는 영만이가 마치 적의 화구를 맞받아 육박해들어가는 용사처럼 높이 쳐다보이면서 이러한 그를 나무람게 여겨온 일들이 더없이 죄스러웠다. 경의어린 눈으로 영만이와 그의 초소원들을 지켜보고있던 선옥이는 그대로 보고만 있을수 없어 중간발브가 있는곳으로 달려가 제손으로 바람을 열어놓았다. 조금이라도 그들의 땀을 식혀주고싶은 충동에서였다. 썩순식간에 막장으로 찬바람이 흘러들어갔다. 그런데 선옥이가 허리를 펴려는 순간 누군가 앞에 와서 딱 막아섰다. 영만이였다. 그는 말없이 선옥이를 지켜보더니 빙긋이 미소를 지으면서 제손으로 발브를 틀어막는것이였다. 말없는 그의 표정은 (선옥동무 그 심정은 고맙지만 선옥동무답지 않구만) 하고 말하는듯했다. 원망스럽게 영만이를 지켜보던 선옥이의 눈에 안타까움과 걱정이 이슬로 맺혔다.

선옥이는 이지러지려는 입술을 꼭 깨물고 고개를 숙이면서 얼른 돌아섰다. 그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리는 얼굴에 빙긋이 미소를 짓고 자기를 지켜보던 영만이의 그 모습을 영원히 잊을것 같지 않았다.

(그동문 정말 이상한 동무야!)

선옥이는 울먹거리면서 저도모르게 혼자소리를 했다.

정말 이상한 일이였다. 영만이는 자기를 지켜보던 선옥이의 눈에 안타까움이 어리더니 다음에는 원망으로 뒤바뀌는지 가랑가랑 이슬이 차오르던 모습이 눈앞에 자꾸만 떠오르면서 별나게 마음이 서글퍼졌다.

(내가 너무 지나쳤는가? 글썽 그 마음이 고맙긴 하지만 그렇다고 착암기 힘이 약해지는데 그대로 있을수야 없지 않는가...그런데 눈물은? ...순박하고 성실한 동무이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감상적인것이 탈이야...에익 모르겠다. 이런건 다 시시한 생각이야.)

그는 이상하게 눈앞에 매여달려 떨어지지 않는 선옥이의 모습을 털어버리려고 머리를 저었다. 그럴수록 그의 커다란 눈이 점점 앞으로 다가오면서 배관속으로 뜨거운 숨결이 전해지듯 가슴이 후더워났다.

《앗! 초소장동무, 왜 그래요?》

창길이가 눈이 올롱해서 영만이를 쳐다보며 소리를 쳤다. 새로 구멍을 잡은 정대가 옆으로 밀려나는 데도 영만이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있었던 것이다.

《영?...그놈의 돌이 이상하게 굳은데...》

그는 창길이가 자기의 속을 뻘히 들여다보는것 같아 얼굴이 벌개지면서 착암기를 더욱 억세게 틀어잡았다.

얼마후 압축기운전실에 있던 선풍기가 막장으로 옮겨졌다. 합속호실에 있던 선풍기들도 막장으로 올라왔다. 중대앞에 참모부의 새로운 명령이 떨어졌다. 현재 판명된 자료에 의하면 온수맥의 수압이 매우 높을것이 예견되므로 해당한 기술적인 대책을 세울 때까지 굴진을 멈추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투원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물이 터지면 몸으로 막는 한이 있더라도 전진을 멈출수 없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그들은 굴진속도를 더 높였다. 온수맥이 가까와지자 막장은 한층 더 숨이 막혔다. 그러나 누구도 막장을 떠나지 않았다. 안전대책을 위한 전투가 함께 벌어졌다. 교대가 따로 없었다. 저마다 착암기를 잡고나섰다. 영만이는 두교대째 착암기를 놓지 않았다. 압축기운전공들도 막장을 도와나섰다. 광산과 온 마을이 《충성경》으로 지원의 손길을 뻗었다. 이럴 때 선옥이때문에 생각지 않던 일이 벌어졌다. 시급히 압축기에 부속을 갈아맞춰야 할 일이 생겼는데 부속품을 진사한 그가 공구함의 열쇠를 가지고 어디론가 없어진 것이었다. 압축기가 제대로 바람을 보내지 못해 압력계의 바늘이 점점 고개를 수그렸다. 그럴수록 막장에서는 야단을 쳤다.

《이건 정말 사고야 사고!》

창길이를 비롯한 초소원들이 욱유했다.

영만이는 마치 그 소리가 자기를 두고 나무라는 것 같아 얼굴이 뜨거워났다. 그런데 그를 찾아나갔던 대원이 빈손으로 들어왔다. 아침에 합속에 나온 것을 피륙 보았는데 그뒤로는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종시 압축기가 멎었다.

《에익...》

영만이는 화가 나서 착암기를 한쪽에 활 밀어놓고 돌아섰다. 그가 선옥이를 찾아 밖으로 나가려는 때 땀에 흠뻑 젖은채 들꽃을 한아름 안은 그가 숨

을 할딱거리며 달려왔다. 그바람에 영만이는 억이 막혀

《허 참...》 하고 쓰게 입맛을 다셨다.

《동무, 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런걸 안고다닐 형편이 됐소? 정말 한심하오.》

선옥이는 다소곳이 고개를 숙인채 몸돌바를 몰라했다. 영만이는 몇마디 더 하려다가 그가 너무 죄스러워하는것 같아 《음...》 하고 돌아섰다. 그는 이때문에 선옥이에 대한 인상이 잡치고말았다.

그들이 한창 땀을 흘리고있을 때였다. 식당취사원들이 주먹같은 얼음이 등등 뜬 시rops을 바깥쪽에 담아가지고 막장으로 들어왔다.

《야 얼음!》

창길이가 먼저 환성을 올렸다. 여름철에 산간막장에서 얼음을 본다는것은 그야말로 희귀한 일이었다. 취사원아주머니가 영만이에게 그릇에 찰찰 넘어나도록 얼음물을 떠주었다. 그는 얼음이 떠도는 시rops을 한모금 쪽 들여마셨다. 단번에 배속까지 서늘해지면서 땀발이 잦아드는듯했다.

《야,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그런데 희귀한 얼음이 어디서 났습니까?》

영만이는 다시 얼음물을 마시려다 고개를 들고 물었다.

《어이구 말두 마시우. 선옥이가 글썽 막장전투원들에게 이 얼음을 먹이겠다구 새벽에 <까막봉>으로 올라갔다가 하마트면 벼랑에 굴러떨어져서 큰일 날뻔 했다우. 무릎이 다 깨여지구 찌찌...》

그 말에 영만이는 흠칫하면서 두눈이 커졌다.

(아니 그럼 선옥동무가 이것때문에!...)

그는 물그릇을 든채 그우에서 머리를 들지 못했다. 사발굽을 찰찰 넘어나는 얼음물위에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고 서서 몸돌바를 몰라하던 선옥이의 얼굴이 《까막봉》에서 얼음을 깨다가 벼랑으로 미끄러 떨어지는 모습과 함께 선히 떠오르면서 가슴이 알찌근해졌다. 《까막봉》꼭대기 음달진 깊은 흠채기에는 여름에도 두터운 얼음이 그대로 깔려있었다. 그러나 그곳은 산짐승들도 밟볼이기 어려운 곳이었다. 지난번 로농적위대훈련때 처음 그곳에 가보았던 영만이는 점점 생각이 깊어지면서 물그릇우에 고개가 깊숙이 숙여졌다....

《...바로 그날 영만동무네가 세번째로 착암기를 들이댔을 때 드디어 물맥이 터지고말았습니다. 그바람에 영만동무는 착암기를 안은채 허공 뿌리워났습니다. 온수맥이 터졌다는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수 있는데 지하수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즉 충

상수와 압력수가 있는데 총상수는 땅속에 피었다가 터져나오는 물이고 압력수는 땅 밑으로 흐르는 물입니다. 이 물이 호수나 강물처럼 넓은 공간을 이루고 흐르는 것이 아니라 암반의 갈피사이로 흐릅니다. 그러나 그물의 압력이 대단히 높습니다. 고인물의 경우에도 그 물주머니의 크기에 따라 수압이 몇기압씩 됩니다. 그러니 압력수인 온수가 얼마만한 수압으로 뿜어나왔겠는가 하는 것을 상상해보십시오. 터진 물구멍의 크기는 아이들의 배개통만하였지만 거기로 나오는 물의 압력이 얼마나 높았던지 물이 내뿜는 소리가 맹수의 울부짖음처럼 몹시리를 치게 했습니다. 사십도 가까운 더운물이 그렇게 내뿜다 보니 증기와 물방울이 뽀얗게 서려서 앞을 가려볼 수도 없었지만 숨이 막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영만동무가 날째게 몸을 피했으니 그런 정도로 뿌리워났지 정말 큰일날번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친구가 비칠거리며 일어서더니 종주먹을 추켜들고 소리쳤습니다.

<총성갱 돌격대원들은 날 따라 앞으로!> 곁에서 내가 소리를 치며 그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정신있소?>

<놓으십시오. 갱이 침수됩니다. 저 원썩놈의 물이 갱을 삼킨단 말입니다.> 불이 이글거리는 눈으로 나를 원망스럽게 쏘아보면서 몸부림치던 그의 모습을 나는 일생을 두고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가 꼭 무슨 일을 저지를것만 같아 엄하게 소리쳤습니다.

<명령없이 무모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엄벌에 처하겠소.>

어느덧 갱바닥에 물이 발목을 잠그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동안 준비해두었던 여러대의 대형뽑프가 일제히 물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물은 점점 불어났습니다. 물구멍을 막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긴 말뚝을 짚아서 구멍에 대고 수십명이 동발목을 안고와서 구렁에 맞춰 그것으로 말뚝을 쿵쿵 들이박았습니다. 그러나 겨우 구멍을 틀어막고나면 옆이 또 터지고 그것을 막고나면 다시 터지고해서 스물네시간만에야 겨우 물구멍을 틀어막았습니다. 굴진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날저녁 초소장이상 초급일꾼들이 모두 참가한 회의가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선옥동무때문에 회의가 지연되는통에 그러지않아도 신경이 날카로워졌던 나는 속이 울컥 치밀어올랐습니다. 사방에 사람들을 띄워보았으나 좀처럼 그가 간곳을 알수가 없었습니다.

(갱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때에 이렇게 해

이돼가지구야... 역시 사람은 이런 때 검열되는거야.)

나는 평소에 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오던 인상이 잡쳐져 <그대로 합시다. 그 동무 한사람 없다구 회의를 못하겠소?> 하고 화를 벌컥 냈습니다. 이때 문이 바시시 열리더니 이마에 땀이 질벅하게 내배인 선옥동무가 허리를 굽히고 발끝으로 살금살금 들어와 맨 뒤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동문 회의가 있다는걸 몰랐소? ... 도대체 어땠겠소?> 나는 신경과민이라 할만큼 화를 냈습니다.

<저 까막봉에 갔다가...> 얼굴이 홍당무처럼 돼가지고 입안에 잿아드는 소리를 했습니다. 나는 그가 꽃을 꺾으러 갔겠으리라는 짐작으로 <한심하오...한심해...음...> 하고 입맛을 다시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회의는 처음부터 매우 긴장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총성갱>을 그대로 밀고나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였으니까요. 그런데다 선옥이때문에 한바탕 역증까지 내고보니 더욱 그러했습니다. 우선 갱을 그대로 밀고나가기 위해서는 특수공크리트로 암반의 갈피를 막을 수 있도록 수압을 낮춰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도 압이 높다보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수압을 낮추겠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전혀 방도가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물길을 에돌아나가기도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수십메터의 폭으로 지하수가 흐르고있기때문에 그것을 에돌게 되면 갱의 규모가 쓸모없이 될뿐더러 방대한 공사인만큼 당앞에 다진 결의를 그대로 실천할수 없게 되는것입니다. 그렇다고 앉아있을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때 형편으로서는 물길을 에도는 길밖에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의 견을 제기했습니다. 거의 그런 방향으로 의견들이 락착되어 갈 때였습니다. 처음부터 한쪽구석에 말없이 앉아있던 영만동무가 <한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길이 일시에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는가 하는 의혹과 호기심을 가지고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대와 믿음이 꺾인 실망어린 표정으로 나를 지켜보더니 이렇게 말하는것이었습니다. <나는 책임적인 이 시각에 중대장동무가 그런 의견을 내놓을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의 말속에는 나에 대한 원망이 어려있었습니다. 그바람에 나는 얼굴이 벌개서 <그래 어떻게 하자는거요?> 하고 통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통에 방안에는 다치면 터질듯한 긴장이 짙게 어렸습니다. 영만동무는 길게 숨을 들이긋고

나서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중대장동무는 늘 저희들에게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똑똑히 알아야 하며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혁명의 수레바퀴를 힘있게 떠밀고나가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나는 그 말에서 많은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결코 자기가 서있는 초소에서 계획이나 넘쳐수행해야 한다는 단순한 그런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계획이나 넘쳐수행하는것으로서 제자리를 똑똑히 지킨다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자리를 지킨다는것은 단순히 200프로나 300프로의 수자를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아버지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대한 충성으로 어떻게 그 자리를 빛내여가는가 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끊고 흥분으로 들먹이는 가슴을 진정하고나서 다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대로 물려서서 다른 길로 예돌아간다면 물길을 극복할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서있던 그 자리는 조국의 지도우에서 공백으로 남아있게 될것이며 중대장동무의 말대로 혁명의 수레바퀴가 그자리에 와서 멎거나 속도가 떨어지게 될것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우리 로동계급이 서있던 자리를 어떻게 이런 빈자리로 남겨둘수 있단말입니까? 화선에 선 병사가 한치의 조국땅을 목숨으로 사수하고 그 영예를 빛내여가듯이 우리 로동계급들이 서있는 자리는 그곳이 불속이건 물속이건 3대혁명의 붉은기가 높이 휘날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영예로운 자리로 되여야 할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시도 혁명의 수레바퀴를 멈춰세우거나 예돌아가게 해서는 안됩니다. 혁명의 수레바퀴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밝혀준 길을 따라 곧바로 떠밀어야 합니다. 중대장동지! 저에게 전투명령을 주십시오. 목숨을 바쳐서라도 기어 이 돌과구를 열겠습니다.>

불을 토하는것 같은 그의 말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눈에서는 이슬이 번쩍이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여기저기에서 <웁소! 그대로 뚫고나갑시다.> <예돌아가는것은 우리 로동계급의 수치요.>하는 격동된 목소리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왔습니다. 로동계급이 서있는 자리는 빈자리가 있을수 없다! 로동계급이 서있는 자리는 불속이건 물속이건 3대혁명의 붉은기가 높이 휘날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영예로운 자리로 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혁명의 수레바퀴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밝혀준 길을 따라 곧바로 떠밀어야 한다!

이 얼마나 충성의 열정으로 충만된 절절한 심장의 호소이며 시대의 웨침입니까. 나는 그 불같은 호소 앞에 머리를 숙이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서야 할 자리를 똑똑히 알지도 못하면서 남에게 제자리를 지킬줄 알아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고 가소로운 일인가...> 하고말입니다. 그제야 나는 영만동무가 왜 그토록 착암기를 잡으려고 애써왔는가 하는 진의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전까지 나는 그것을 단순한 열성이나 아름다운 소행이라고만 생각해왔던것입니다.

회의에서는 영만동무의 제의대로 물길을 맞받아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무거운 자책을 안고 다음날 아침까지 회의에서 결정한대로 막장을 그대로 밀고나가기 위한 방도를 찾으려고 혼자 막장에 들어가 머리를 싸쥐고 모대기였습니다. 그러나 방도가 떠오르게 됩니까. 그럴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났습니다. 그것은 영만동무의 말대로 이 자리를 충성으로 끝까지 빛내여가느냐? 아니면 수치스럽게 빈자리로 내놓느냐?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이때 머리우에서 딱딱...딱딱... 하는 이상한 소리가 암벽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처음 나는 착각을 일으킨것이 아닌가 해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나가는 린접중대라도 있다면 몰라도 생판 수백메터 땅속에서 소리가 나니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소리가 들려옵니다. 조화입니다. 암벽에 귀를 바짝 가져다댔습니다. 분명 막장우에서 소리가 들려오고있었습니다. (아니 이거 정말 도깨비한테라도 홀리운게 아니야?! ) 나는 얼떨떨해졌습니다. 이때 갱입구쪽에서 천병거리는 다급한 발자국소리가 들려오더니 저쪽에서 애기별같은 간데라불이 나란히 흔들흔들 막장으로 다가오고있었습니다. 뜻밖에도 온몸에 감탕이 게발린 선옥이와 창길이였습니다. <무슨 일이요?> 내가 불쑥 나서며 묻자 그들은 흠칫하더니 <중대장동지! 여기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고 창길이가 묻는것이였습니다. 이때 그 물음에 대답이라도 하듯 그 괴상한 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야, 똥구나>하고 환성을 울리며 앞벽에 귀를 대보더니 창길동무가 마치를 들고 암벽을 탕탕 치는것이였습니다. 그러자 그 괴상한 소리가 도간맞게 화답해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요?> 영문을 몰라 얼머름해있던 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중대장동지! 이 우에 초소장동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에라니?>

나는 도무지 갈피를 잡을수가 없었습니다. <이  
우에 오소리굴이 있습니다.> <영, 오소리굴?> 그제  
야 나는 이곳에 있는 고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옛  
날 왜놈들이 이고장 화전민들을 내몰아 금돌을 락  
탈해가려고 <오소리굴>을 파고들어가다가 그대로  
쫓겨갔던것입니다. 선옥동무의 말에 의하면 그 고  
굴의 막장단면이 <충성갱>의 막장단면과 일직선상  
에 놓여있다는것이였습니다. 그들이 감탕과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고 꺼멓게 썩은 동밭에서 미끄덕  
거리는 진이 흘러내리는 고갱을 탐사하게 된것은 <  
까막봉>에서 얼음을 깨여가지고 내려오던 선옥동  
무가 산중턱에 있는 고굴속에서 무엇인가 누런 짐  
승이 후닥닥 뛰어나오는바람에 궁둥방아를 짊은데  
서부터였습니다. 그때 그는 다만 그곳에 거뿔한 굴  
이 있다는 정도밖에 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  
다가 굴진이 멎게 되자 그 굴에 대해서 다시 생각  
하게 되었습니다. 지리적특성과 고굴이 자리잡은  
위치로 보아 그것이 온수맥과 어떤 관련이 있지 않  
는가 하는데로 생각이 미치게 되었던것입니다. 그  
러자 그는 남몰래 그곳에 오르내리면서 여러가지로  
그 내용을 확증하고자서 날강도 일제놈들이 품위  
높은 이곳의 금돌을 락탈해가려고 하다가 그대로  
몰려서게 된데는 온수맥과 관련한 곡절이 있다는것  
을 알게 되었던것입니다. 그러나 혼자서 고갱속에  
들어가볼 용단까지는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만동무에게 그 사실을 알렸던것입니다. 그러고보  
니 그 온수맥이 락탈자들에게 보화의 길을 열어주  
지 않은 셈이였습니다. 그러니 그곳으로 물길을 돌  
리게 되면 우리 앞에 보화의 길을 열어주게 될것이  
였습니다. 물론 그곳에 고굴이 있다는것을 아는 사  
람은 그들만이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나를 비롯해  
서 누구도 그것이 온수맥과 관련이 있으리라고 생  
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충성심의 표현이지  
요. 선옥이가 회의에 늦어진것도 바로 이때문이었  
습니다. 역정을 났던것만큼 자책도 컸습니다. 솔직  
히 말해서 부끄러웠습니다. 한편 3대혁명기수들인  
우리 시대 청년들의 정신적높이가 아득히 쳐다보이  
면서 내가 이렇게도 뒤떨어졌단말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나는 부끄러움과 자책을 안은  
채 고갱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내가 막 굴속으로 뛰  
어들려는 때 온통 감탕을 뒤집어쓴 영만동무가 간  
데라손잡이를 입에 물고 기여나오는것이였습니다.  
그는 나를 보더니 벌떡 일어서서 <중대장동지! 방  
도를 찾았습니다> 하고 환성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감정이란 참 이상하더군요. 그를 보는 순간  
뜨거운 걱정이 확 솟구쳐오르면서 <누가 승인도  
없이 이런 모험을 하라고 했소?> 하고 감정과는 모

순되는 말이 불쑥 입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도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는지 알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동무에게 또 처벌을 주어야겠소.> 내가  
맥빠진 소리로 이렇게 뒤말을 잇자 그 친구가 <또  
식당근무를 시키겠습니까? 며칠이나 하랍니까?>  
하고 반죽쫄게 벅글거리는바람에 그만 말문이 막혀  
허허 웃고말았습니다.》

그는 웃고있었으나 눈굽에는 이슬이 어려있었다.  
《즉시 고굴로 물길을 빼돌리기 위한 전투가 벌여  
졌습니다. 압축기배관을 늘이고 동밭을 새로 들이  
고 봉락이 진곳에는 틀목을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며칠사이에 고굴막장을 온수맥 턱밑에다 바싹 접근  
시켜놓고 발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물구  
멍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일이 매우 심각하게 되었  
습니다. 다시 남포구멍을 뚫고 발파를 해야겠는데  
어느 순간에 물이 터질지 알수 없기때문입니다. 만  
약 착암기를 들이댔다가 물이 터지는 날이면 좁은  
굴속에서 피할길이 없을뿐더러 다시는 그 자리에다  
화약을 재울수 없기때문에 기술적인 타산에 의해  
서 설계한대로 물길을 빼돌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  
런 조건에서 누가 어떻게 마지막 구멍을 뚫는가 하  
는것이 문제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마다 착암기  
를 메고 나섭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도 명령없이 막  
장에 들어갔다가는 큰일난다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는 몰래 혼자서 그 구멍을 뚫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런데 영만동무가 슬그머니 찾아와서 나를 슬슬 구  
슬립니다. 이럴 때 초소장이 앞장서야지 누가 서겠  
는가 더군다나 자기는 중대장에게서 착암기 잡는  
법을 배웠는데 이런 때 한번 숨씨를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고 능청을 부리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합니  
다. 나는 이러한 그를 통해 당에서 맡은 자기의 혁  
명초소, 제가 서있는 자리를 끝까지 충성으로 빛내  
이기 위해 위험도 죽음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웃음  
으로 그것을 간청해나서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승  
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한편 그것은 그대로 거울이 되  
여 내 마음속을 환히 비쳐주는듯했습니다. 그럴수  
록 나는 그를 아껴주고싶은 마음이 앞서 한마디로  
딱 잘라버렸습니다. <동무의 그 심정은 충분히 리  
해할수 있소. 그러나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우기전  
에는 절대로 들어갈수 없소. 이것은 누구도 어길수  
없는 국가규정이요 참모부의 명령이요.> 그러자 또  
그 친구의 본성이 나옵니다. <차 이견...중대장동  
지, 지금 우리때문에 온 광산이 당앞에 결의한대로  
금돌을 캐서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충성의 보고를 올리느냐, 못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있는데 어떻게 안전규정만 따지고 앉아있겠습니

까 예? ... 중대장동지!> 그의 말소리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그러나 일부러 엄한 표정을 짓고 말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남들앞에서 침착하게 굴어야 할 동무가 이렇게 떼를 쓰면 중대장인 내가 어떻게 일을 하랴. 내 립장과 체면도 좀 생각해줘야 할게 아니요. 정 그러겠으면 동무네 마음대로 하오.> 그가 다시 입을 열지 못하도록 단단히 오금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원망스럽게 나를 지켜보다가 맥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러나 좀처럼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몇번씩 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돌아보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양이 얼마나 측은하고 가슴뜨겁던지 당장 달려가 그의 손목을 잡고 막장으로 함께 뛰어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애써 마음을 눌렀습니다. 이때 참모부에서 급히 내려오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고갱의 마지막 발파를 위한 기술적인 문제를 놓고 다시금 심중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희생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위험을 떠나서는 아무리 기발한 기술적인 방도도 실천할길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 발파작업을 내가 할 결의를 다지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충성갱》마루에 덩실하게 올라앉은 휘영청 밝은 달이 갡으로 올라가는 언덕길을 환히 비쳐주고 있었다. 이따금 스쳐가는 시원한 바람결에 싱그러운 송진내와 향긋한 들꽃향기가 부드럽게 몸을 스치고 지나갔다. 깊은 생각에 잠긴채 길우에 내려앉은 은주단같은 교묘한 달빛이 부서질가봐 저어하듯 한발 두발 천천히 갡으로 다가갈수록 덕준이는 더욱 생각이 깊어졌다. 그는 요즘 몇달사이에 자기가 지금까지 일생을 두고 체험한것보다 몇갑절이나 더 많은것을 느끼고 체험하였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20년동안 땅속에서 캐여낸 쇠돌무지를 눈앞에 그려보며 제자리를 굳건히 지켜왔다고만 생각했던것이다. 그러나 영만이와 선옥이들이 지니고있는 정신적높이에 비해볼 때 자기는 지금까지 제자리를 로력적위훈이나 세우는 한낱 일터로만 여겨온데 불과했던것이다.

(내가 물질을 예돌아가려고 생각한 원인도, 영만이와 선옥이들이 생각하는것처럼 로동계급의 발길이 닿는 모든 초소를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영예로운 자리로 수놓아가려는 생각이 부족한데 있었으며 어버이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우리 시대 청년들의 깊은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한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깊어질수록 덕준이는 자기와 영만이 그리고 선옥이와의 본질적인 차이가 바로 이 정신적높

이에 있으며 아무리 명성을 떨친 영웅호걸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충성, 이러한 정신적높이를 지니지 못할 때 거창한 시대의 흐름에 발을 맞춰나갈수 없다는 진리를 새롭게 체험하는듯했다. 그럴수록 덕준이는 자기가 지금까지 헛살아왔으며 누구나 제가 서야 할 자리를 푹푹히 알고 산다는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뉘우침이 세차게 가슴을 두드렸다. 그러나 덕준이는 뒤늦게나마 자기가 가고있는 이 길이 제가 서있는 자리를 충성으로 빛내이려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니 《충성갱》마구리가 전에 없이 높이 쳐다보이면서 비장한 생각이 들기까지 했다.

그가 사무실앞에 이르렀을 때였다. 잡판목이 우거진 건너편 길설에서 도란도란 말소리가 들려왔다. 덕준이는 걸음을 멈추고 목을 기웃거리면서 넋지시 그쪽을 넘겨다보았다. 영만이가 창길을 데리고 선옥이와 마주 서있었다. 웬일인지 두사람은 오래도록 마주보고있었다. 영만이를 지켜보는 선옥이의 눈에 깊은 신뢰와 존경이 어려 새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덕준이는 지금까지 선옥이의 눈에서 이런 빛을 처음 보았다. 그것은 어떤 연기자도 지어낼수 없는 아름다운 눈빛이었다. 영만이의 눈에도 같은 빛이 어려있었다. 두사람의 눈길은 오래도록 마주쳐 찬연한 빛을 뿌리는듯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과 표정은 서로 달랐다. 손에 든 머리수건을 꼬기꼬기 비틀고있는 선옥이는 몹시 초조해보였다. 입을 꼭 다문채 한손으로 허리를 짚고 서있는 영만이는 금시 가버릴듯한 표정이었다.

(웬일인가?)

한동안 침묵이 흐르더니 다시 영만이가 입을 열었다.

《생각해보오. 만약 우리가 그 돌파구를 열지 않는다면 아마 중대장동무가 그 위험속으로 들어갈것 같은데 우리가 곁에 있어가지고 중대장동무에게 그 일을 떠맡겨야 옳겠소?》

《그렇지만 중대장동무 승인없이 압축기를 돌렸다가...》

선옥이의 잦아드는 소리는 안타까움에 젖어있었다. 덕준이는 인차 그 내력을 알아차렸다. 이런 일이 있을것 같아 회의에 내려갈 때 선옥이에게 절대로 승인없이 압축기를 돌렸다가는 큰일난다고 으름장을 놓았던것이다. 그러나 그는 남몰래 위험을 헤쳐나가려는 영만이의 말에 가슴이 무득해지면서 눈곱이 뜨거워났다. 순간 그는 저런 사람들과 함께 살며 일하는 궁지와 행복이 가슴에 콕 차오르면서 그들과 함께라면 물속이 아니라 불속이라도 헤쳐나갈수 있다는 신심이 솟구쳐올랐다.

그러나 한동안 말없이 선옥이를 지켜보던 영만이  
가 허리에 올렸던 손으로 허공을 획 내려그으면서  
《에익… 창길이 가져우, 가서 손으로라도 구멍을  
뚫자우… 혁명이야 자기 신념을 가지고 해야지 중  
대장동무의 말을 듣고 하겠소?》

하고 되돌아서더니 갡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것  
이었다.

《영만동무… 영만동무… 아이참…》

선옥이가 뒤쫓아가면서 안타깝게 소리쳤으나 그  
는 들은척도 않고 갡으로 쑥 들어갔다. 선옥이는 가  
슴우에 두손을 마주쥐고 서서 영만이가 사라진쪽과  
사무실쪽은 안타깝게 쳐다보며 몸둘바를 몰라했다.  
덕준이는 뚫어오르는 걱정과 값죽은 인정으로 그  
들의 아름다운 눈빛에 오점을 남길번했다는 자책을  
안고 선옥이앞으로 다가섰다.

《중대장동지!》

선옥이가 눈물이 글썽해서 덕준이를 쳐다보며 뒤  
말은 잊지 못했다.

《선옥동무, 압축기를 돌려주요.》

《예? …야! 중대장동지, 고마와요…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어린애처럼 덕준이의 팔에 매달려 훌훌 뛰  
다가 압축기실을 향해 영만이가 사라진 갡으로 쏙  
살같이 달려갔다.

《고맙습니다!》 그의 말을 되뇌이며 이윽도록 선  
옥이의 뒤모습을 지켜보고있던 덕준이는 뜨거운것  
을 꿀꺽 삼키며 그들의 뒤를 따라섰다.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들인 우리 시대 청년들이  
제일 바라고 고맙게 여기는것, 그것은 그 어떤 화려  
한 꽃다발이나 값싼 동정이나 명예인것이 아니라  
거창한 시대의 흐름속에서 청춘을 빛내어나갈수 있  
는 제일 어렵고 힘든 자리에 서는것이며 자기들을  
그러한 자리에 세워주는것을 더없는 보람, 더없는  
영예로 여기며 고맙게 생각한다는것입니다. 영만이  
와 선옥이 그리고 꼬마대원 창길이 그들은 바로 이  
런 사람들이였습니다. 불충분하지만 그후에 있는  
이야기를 더 하지 않아도 그들이 왜 이곳을 떠나갔  
으며 우리가 어떻게 것처럼 짧은 기간에 여기에다  
이렇듯 현대적인 대유색광업기지를 꾸리고 어버이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충성의 보고를 올리  
게 되였는가 하는것을 짐작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  
니다. 그들은 오늘도 개발지에서 충성으로 청춘의  
영예와 보람을 빛내여가고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래일은 또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초소에서… 이

렇게 그들은 자기들이 서있는 자리를 충성으로 빛  
내여가면서 3대혁명의 붉은기로 조국의 지도를 아  
름답게 수놓으며 청춘의 영예와 보람을 활짝 꽃피  
워갈것입니다.》

그는 영만이와 선옥이 그리고 창길이들이 걸어온  
길을 조용히 더듬어보면서 그들을 눈앞에 그러보  
듯 깊은 감회에 잠겨 노을이 질어가는 평산마을과  
호안을 이윽도록 지켜보는것이였다.

쿵…쿵쿵…지심을 울리는 막장의 발파소리가 고  
요한 호수우에 은은히 퍼져가면서 아직은 만나보지  
못한 그러면서도 가장 미덥고 친근하게 안겨오는  
주인공들에 대한 생각을 한층 더 짙게 했다. 나는  
내쳤던 결심에 그들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러  
고보니 그후 영만이와 선옥이의 관계가 궁금해나서  
선옥이가 대학으로 가지 않았는가고 물었다. 내 물  
음에 덕준이는 빙그레 웃었다.

《두사람 다 여기서 통신대학에 입학을 하고 함께  
떠나갔습니다. 나는 바로 이 자리에서 러객선을 타  
고 저 호수를 건너가는 그들을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랬습니다. 그때부터 종종 이 자리에 나와 생각에  
잠기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사랑을  
두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 그들  
의 대조적인 성격으로 하여 서로 사랑을 맺게 되리  
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서있는  
자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영예롭고 보람있는 자리  
로 빛내이며 그속에서 청춘을 꽃피워가려는 지향이  
그들을 영원한 길동무로 만들어주었지요. 돌이켜  
보면 그들이 서있던 자리가 더욱 빛을 뿌리게 된것  
은 만발한 들꽃이 이 산관의 정서를 한층더 아름답  
게 수놓고있는것처럼 그들의 남다른 사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남다른 사랑을 두고 남다르다  
고 하는것은 남다른 성격으로 하여 남달리 티각티  
각 하는 속에서 남다른 깊은 인연으로 맺어졌기때  
문입니다. 아마 우리 시대 청년들의 진정한 사랑은  
공원에 있는 의자우에서나 유보도 그리고 극장의  
화려한 산데리밀에서나 아늑한 휴양소가 아니라 충  
성의 한길에서 이렇게 맺어지는가 봅니다.》

《그렇게 됐구만요… 옳은 말입니다. 충성의 길을  
떠나서는 그 어떤 사랑이나 삶의 보람도 있을수  
없습니다. 오직 그길에서만 진정한 사랑이나 삶의  
보람에 대해서 생각할수 있지요.》

나는 새로운 개발지에서 그들에 대한 보다 감동  
적이고 흥미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덕준이와 헤어졌다.



## 접동새

김룡락

피상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울려왔다. 어덴가 멀리 않은곳에서였다. 우리는 수저들을 놀리다말고 눈길들을 마주쳤다. 느닷없이 웬 짐승의 울음소리냐고 서로 묻기나 하듯이, 때마침 한 전사가 나를 보고 아는 소리를 했다.

《곰의 울음소립니다. 부분대장동무, 화전마을이 고향이라 내젠 저 소리가 귀에 배겨있지요. 그전날엔 밤이면 저 소리가 우리 화전막 근처에서 떠나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마치 그 말을 확인이나 해주려는듯 《우-》 하는 그 피상한 소리는 또 울려왔다. 분명히 샘터쪽에서였다. 우리는 식탁을 떠박지르듯이 다급히 일어났다. 그리고는 피여세웠던 총들을 찾아쥐고 등성을 내리달리기 시작했다. 아닐세라 물 길으러 내려갔던 어린 꼬마병사가 숨을 헐레벌떡거리며 달려올라오고있었다. 어디서 없지른 모양 물통은 비었고 온몸이 폭 젖어있을뿐이었다.

《어떻게 된 일이야, 꼬마?》

한시름 놓았다는듯이 저만치에서 걸음을 늦추는 그를 보자 우리는 달려들어 빙 둘러싸면서 이렇게 별명으로 불러대며 물었다.

《아 글썄 물을 길구 막 일어서려는데 뒤에서 갑자기...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러고나서 꼬마는 변명이나 하듯 슬며시 아래쪽을 내려다보는것이였다.

《그래 침입자를 보기는 했나?》

《예.》

그는 겨우 들릴 정도로 낮게 대답했다.

《그런데 총은 왜 휴대하지 않구 내려갔나? 그렇게 경각성이 없으니까 짐승두 알보구 달려드는거란 말이야.》

이럴 때 이번에는 까치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역시 샘터쪽에서였다.

《아니, 이건 또 뭘니까?》

무슨 케속이냐는듯 분대원들은 내게로 눈초리들을 던졌다.

(혹시 분대장동무가?)

언뜻 나는 이런 의혹에 사로잡혀들어갔다.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그럴 법도 한 일이였다. 그가 새 전투임무를 받으러 련대참모부로 떠난게 꼭 다섯시간전이였으니까 그 날랜 걸음으로 이제는 돌아올때쯤도 된것이다. 그래 돌아오다가 그 류다른 입채간으로 또 우리를 들볶는게 틀림없었다.

《차 이거, 또 속았군. 련대부에서 돌아오는길로 한바탕 또 우릴 혼련시키는 모양이요. 더구나 우리 꼬마가 경각성이 해이됐다구 단단히 가르치는 모양이야.》 하고 나는 목청을 낮추어 말했다.

마치 분대장동무가 우리 말을 엿들을가봐 저어나하는것처럼.

《그러니깐 우리두 손을 쓰잔말이요. 분대장동무를 <생포>하잔말이요. 그래야 우리두 체면이 서지.》

이리하여 우리는 곧 《수색전》을 벌리였다. 물론 나는 샘터부근만을 뒤져보도록 일을 조직하지는 않았다. 날 잡아주소 하고 한자리에 눌러붙어있을 분대장동무가 결코 아니였기때문이다. 분대원들은 또한번 속은것이 분하다는듯 입맛들을 다시며 홀려져갔다. 나는 그 뒤모습들을 여겨보다가 문득 전에 없이 분대장동무의 그 남다른 재간을 부러워하고있는 자신을 발견한것이였다. 목청이나 회파람으로 짐승들의 우짖음소리나 새들의 지저귂소리라면 신통히도 그대로 되살려내는 그 류다른 입채간을. 그

입재간마저 쓸모있게 정찰활동에 끌어들이는 숨씨야말로 얼마나 부러운것인가. 그 갓가지 새소리들을 신호수단으로 능란하게 적용하는 분대장이 부러웠다. 가령 부엉이의 울음소리라면 그것은 잠복초를 발견했다는 신호였었다. 까마귀의 울음소리라면 그것은 전방에 나타난 원썩놈을 산채로 잡아 자루속에 집어넣으라는 명령신호로 씌였다. 또 접동새의 울음소리라면 그것은 철수명령인 동시에 철수할 통로의 위치를 알려주는 비밀암호였던것이다.

이런 능란한 재간앞에 우리 자신들도 또 한번 속은것이다...

마침내 풀덤불속에 교묘하게 숨은 분대장동무를 찾아낸것은 반시간은 실히 지난 뒤였다. 세명의 정찰병이 삼면에서 와락 달려드는데는 분대장동무로서도 용빼는 재간이 없는 모양이었다. 결국 《생포》되어 야외식당으로 순순히 《호송》되어온것이다.

《자 이거, 무기두 안메구 다니는 정찰병을 하나 잡으려다가 자기가 도루 잡혔단말인가? 좋-소. 어쨌든 한바탕 훈련을 잘했소. 오늘밤에 또 적후루 들어가야 할 형편에서 훈련은 거듭할수록 좋소. 자 그럼, 땀들을 뺀으니깐 이제는 식사를 해야지. 여기, 분대장동지가 보내준 통줄임두 있소. 전투를 앞두고 단단히 영양보충들을 하라면서 직접 보내준거요.》

이러며 안주머니에서 소고기통줄임통들을 꺼내는 분대장동무의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미더운것이던지. 후리후리한 큰키에 등어리가 곧추 뻗은 그쫘한 몸집이며 구리빛의 기름한 얼굴을 더 윤나게 하는듯싶은 새까만 눈동자며, 초록빛위장복밑으로 드러나는 구김살진데가 하나 없는 푸릿한 군복이며, 그 모습의 어디에 잠을 밀어버리고 밤길 칠십리를 단숨에 조겨댄 피곤의 자취나마 스며있으랴. 그야말로 여전한 모습이었다.

그러한 분대장동무를 둘러싸고 아침식사가 벌어진 식탁둘레에는 더 말할나위없이 명량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어리광이나 부리듯 벌려놓는 꼬마의 다음과 같은 악의없는 톡담도 분위기에 잘 어울리었다.

《그런데 분대장동무는 다 좋지만 한가지만은 아직 멀었어요. 아 글썽 불과 세사람을 못당하다니요. 적어두 혼자서 대어섯은 제껴야 정찰분대장으로서의 체면이 설게 아닙니까. 동무들, 어때요?》

《그런 말루 꼬마는 자기의 실수를 슬쩍 감춰보려는 배포가 아니야?》

이렇게 맞방망이를 치는 다른 한 전사의 말소리도 역시 분대원들속에 즐거운 웃음들을 자아냈고...

적후활동을 앞두고서는 흔히 그렇게 하듯이 그날도 분대장동무는 새소리들을 엮어놓는 그 특색있는 《공연》을 번지지 않았다. 분대장동무자신의 말을 빈다면 그것은 《발성훈련》이라고 이름지어지는 중요한 일과의 하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했던것이다.

《새소리들을 엮어보는 이 훈련을 난 <발성훈련>이라구 이름짓고싶단말이요. 성악가들이 성대를련마하기 위해 부단히 발성훈련을 하는것처럼 나두 훈련을 부지런히 해서 소리를 흉내내는데 실수가 없어야 하니깐. 만약에 원썩들앞에서 자그마한 실수라두 생겨 일을 그르쳐보오. 그땐 조국앞에 씻을수 없는 죄를 짓는 날이거던. 그러니 적어두 전쟁이 끝나는 날까지는 이 <발성훈련>을 게을리할수 없는거요.》

그 《발성훈련》을 그날도 그는 바로 우리를 청중으로 삼아 벌려놓은것이다.

굵은 나무밑동에 앉아 눈을 감은채 맑은 목청으로 새소리들을 연해연방 엮어나가는 그 모습은 얼마나 명상적이던지. 그리하여 들크무례하고 그웁한 향취가 취하도록 그득찬 초여름의 술밭속으로 퍼

저가는 음향의 물결은 그날도 하나의 완성된 음악이나 다름바 없는 그런 깊은 여운을 자아냈다.

필경 정겹게 울리는 그 선율들은 어쩌면 그토록 새생활의 창조로 뚫어번지던 해방후 다섯해동안의 그리운 화폭들로 우리를 이끌어가는것인지 모를 일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땅에 삶의 희열에 넘쳐 첫씨앗발임을 하던 일이며 종달이와 뜰부기의 즐거운 봄노래를 듣던 일을 그 누가 상기하지 않으랴. 그런 식으로 우리들의 눈앞에는 풍년든 고향마을의 고요한 저녁노을이 떠오르기도 하고, 《내 고향》을 관람하러 친구들과 함께 밀려가던 영화관의 채색등이 반짝이기도 했다. 혹은 즐거이 뛰놀던 학교마당이 되살아나기도 하고, 혹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선전사업에 함께 펼쳐나섰던 처녀의 귀여운 모습이 삼삼히 밝히기도 했다...

아니 또 어찌 들으면 환희와 즐거움으로 차넘친 그 선율들은 거리와 마을, 산과 들에 울려퍼질 승리의 환호소리갈기도 하였다. 못새들의 즐거운 노래소리, 그것이야말로 단연 원쑤를 무찌른 조국땅우 방방곡곡으로 퍼져갈 환호소리가 아니겠는가.

적들이 대부대를 포위의 울가미속에 집어넣고 그것을 녹여내는 우리편의 대구경포들과 중기관총들의 위력있는 사격소리도 그 시각에는 《발성훈련》에 짝을 맞춰주는 반주곡처럼만 여겨졌다.

그리하여 마침내 《훈련》을 마무리는 그 고요하고 은은한 속에 정답고 친근한 정서를 풍기는 접동새의 울음소리마저 사라져가는무렵 꼬마는 시를 읊듯하는 애된 목청으로 마음속의 흥분을 터쳐놓고야 말았다.

《종구만요. 또 부르랴요. 분대장동무는 소리를 가지구 아예 요술을 부린다니까요.》

그리하여 우리는 나무와 바위들에 기대여앉은채 숨소리마저 죽여가며 들었다. 들으며 이 전쟁에서 자신들이 차지하고있는 위치에 대하여 깊이 가슴속

에 새겨보기도 하고 승리에 대한 끝없는 열망으로 가슴을 불태우기도 하였다. 그리고 승리한 조국땅우 그 어디에나 펼쳐질, 기어이 펼쳐질, 건설과 전설같은 기적과 사랑의 노래로 충만될 환상적인 생활을 그려보았다.

《그리니깐 오늘밤에두 한바탕 조겨대야지요, 분대장동무?》

필경 어느 한 전사의 이런 말로 《발성훈련》은 끝을 맺었다.

그날밤 분대는 또다시 적들의 뒤덜미로 깊이 뚫고 들어갔다. 포위에 든 제편놈들을 건지려고 부랴 부랴 증강되어온 적 기갑부대의 내막을 송두리채 캐내는것이 그날밤 분대앞에 부과된 전투임무였다.

주변의 산들을 지뢰와 철조망으로 매닥질을 해놓고 흠타기에 깊이 들어박힌 원쑤들의 소굴로 들어간다는것은 얼핏은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일것이다. 하지만 분대장동무의 번개같은 숨씨를 어느놈인들 당해내랴. 지뢰를 해제하고 분대를 통과시키는 숨씨도 번개같았고 그 해제한 지뢰를 흔적이 남을세라 도로 메워놓는 숨씨와 철조망을 해제하는 동작도 역시 번개같았다. 그리고 여름밤의 공간속에 울려퍼진 그 하많은 새소리들속에 인간의 목소리가 합류해있었다는 사실을 어느 원쑤놈인들 감히 짐작이나 할수 있었으랴.

그리하여 그날밤 우리 앞에 차례진 소득은 이만저만한것이 아니였다. 우선 최신행 땅크들과 대구경포들을 비롯한 중요전투기자재들의 수량과 은폐장소들을 죄 탐지해냈다. 통신암호들도 남김없이 뽑아내였다. 그리고 자루 두개는 자그만치 《혀》노릇을 할 장교 두놈이 저마끔 하나씩 차지하고는 썩소리도 못지르며 틀어박혀있었다.

남은것은 철수하는 일뿐이였다.

산마루에 설치된 철조망을 벗어나 그 아래골짜기에 내려서는 일은 그럭저럭 무난히 끝났다. 하나 그 앞에 지뢰들이 매설된 또 다른 산등성이가 가로

길게 뻗어있었다.

《내가 지뢰를 해제하는동안 여기서 기다려주요. 포로 두놈이나 거치장스럽게 달려있는 형편에서 모두가 머리부터 서성거릴 필요는 없소. 자, 그럼 신호는 한시간안으루 보내주겠소.》

분대장동무의 결심이였다. 그는 가지런히 박힌 새하얀 이들을 살짝 드러내면서 미소를 지어보이고는 어둠속에 자리를 감추었다. 이제는 점동새의 울음소리에 의해서만 그와 우리는 다시 만날수가 있을것이였다.

침묵속에 우리는 시간만을 재어나갔다. 처음에는 별나지 않은 마음으로 시간을 스쳐지내보냈다. 그러다가 반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50분이 지나가버리자 더없이 마음들이 조급해나기 시작했다. 하긴 아직도 10분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어떤 임무든지 이처럼 긴장되어 마지막까지 시간을 끌어본적은 여적 한번도 없는 분대장동무였던것이다. 대원들은 말없이 내 얼굴만을 쳐다보았다. 마치 내가 그 무슨 신통한 수라도 찾아낼수 있거나 한것처럼. 어쨌든 여전히 점동새의 울음소리는 울려오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소리는 여러군데서 울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중간휴식을 조금씩 두어가며 다섯번씩 연거퍼 울리는 그 특징있는 울음소리는 땅속에라도 찾아든듯 집요하게 침묵만을 지키고있었다. 시계의 초침소리가 이제 와서는 마치 바늘로 우리의 심장들을 저미는 소리맛잡이로 느껴졌다. 그러나 초침이 정미 한시간을 알리는 바로 그 찰나에 그 낮익은 울음소리는 울리기 시작한것이였다. 고요하고 은은한 속에 정답고 친근한 정서를 풍기며 울려퍼지는 점동새의 울음소리가 이 소굴을 벗어날 통로를 개척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그 통로를 따라서 개선하자고 재촉하는 그 신호소리가. 그 소리가 한초의 에누리도 없이 끝내 울리기 시작한것이였다.

그러나 시름을 거들 겨를이 우리에게는 얼핏 마련되었을뿐이다. 어째서인지 여느때보다 좀 가냘프고 힘겹게 울리는 그 소리를 우리는 놓칠수가 없었다. 그 소리는 처졌으며 때로는 너무 긴것 같이 느껴졌다. 그러다가 되살아나군하는 그 소리는 마치

바람앞의 초불을 연상시켰다. 그 소리는 우리들로 하여금 두놈의 《허》가운데서 한놈을 그자리에 처리해버리고 그 신호가 울리는곳으로 달려갈만큼 커다란 불안을 자아냈다.

우리는 지뢰 하나가 말끔히 해제된 흠타기속에 엮드려있는 분대장동무를 발견하였다. 엮드린채 그는 고개만을 옆으로 돌리고 점동새의 울음소리를 내고있었다. 등이고 팔이고 머리고 다리고 온몸은성한데가 없이 찢든찢든한 피로 젖어있었다. 내가 안아일으켰을 때 그는 납처럼 흐려진 눈에 얼핏 불꽃이 피는가싶더니 인츰 꺼져버렸다. 눈을 꼭 감고는 아예 침묵해버렸다. 흔들어도, 귀에 대고 속삭여도 통 응대가 없었다.

주위에는 미군놈들의 시체들이 지저분하게 널려져있었다. 모두 일곱놈이였다. 시체들옆에는 서술이 푸르른 단검들이 나뒹굴어있었다.

어떤 일이 벌어졌으리라는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지뢰를 해제하다가 불의에 일곱놈의 기습에 걸려들었을 분대장동무. 모름지기 놈들은 한사람이라고 얕잡아보고 사로잡을것을 기도했으리라. 그나마 쥐도 새도 모르게 그 일을 해제끼려고 들었으리라. 그렇게 하여 어김없이 가까이에서 숨어있을 또 다른 조선인민군정찰병들의 개입을 모면하려고 했으리라. 이렇게 되어 결국 혼자 맨주먹으로 그 엄청난게 많은 놈들을 상대로 결사전을 벌리지 않으면 안된 분대장동무였다. 하면서도 은밀성때문에 우리쪽으로 소리 한마디 지를수 없고 총소리 한방 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야말로 어떠했으랴.

그러나 그는 단 몇순간에 련속타격으로 놈들을 모조리 요적넌게 분명했다. 놈들로 하여금 소리지를 겨를도, 총을 뽑아들 겨를도, 도망칠 겨를도 허용해서는 안됐으며 또 허용하지도 않았다.

그러노라니 그자신에게 가해진 피해는 또 오죽했으랴. 모름지기 격투를 끝냈을 때엔 그자신 몸도 의식도 지탱해내지 못했을것이다. 샘처럼 피를 토하는 몸, 암흑의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의식...

하지만 손가락 하나 꼼짝할수 없는 몸을 추스려가며, 꺼져가는 의식을 걸잡아가며 기어이 지뢰도

해제하고 마침내는 신호를 날려보낸것이다.

그리고나서는 지금 오랜 피곤에 물려 깊은 잠에 든 사람마냥 눈을 지그시 감고 침묵만을 지키는것이다...

이미 분대는 개선의 길에 올랐건만 그는 그런 기쁨도 알 까닭이 없이 담가우에 반듯이 누운채 그저 여전히 잠잠할따름이었다.

몇시간후엔 벌써 온 분대가 한사람의 락오자도 없이 모두 우리편 경내로 넘어와 장엄한 해돋이를 맞는 기쁨을 누렸건만 그는 의식조차 차리지 못하며 여전히 침묵만을 지킬뿐이다. 그전같으면 적후에서 빠져나와 우리편 경내에서 아침을 맞게 되는 때면 의례히 또 한번 큰 작전을 성과리에 마친 기쁨을 누르지 못해 어련애같은 표정이 되어서는 류창한 목청으로 다시금 접동새의 울음소리를 내기가 일쑤이던 분대장동무. 그리하여 어둑속에서랴야 기척을 내어 자기의 존재를 알리는 밤새이며 길조인 접동새의 울음소리가 울려퍼지던 일이 아득한 옛일처럼 여겨졌다. 그런 일이 다시는 되돌아올것 같지를 않았다.

이 용감하고 날과람있고 재치있는 정찰병을 자칫 하면 영영 잃어버릴수 있다는 애절한 생각만이 천근무게로 우리의 마음들을 지지누를뿐.

하나 공연한 근심이였다. 나홀이 지나 우리가 다시 병원에 찾아갔을 때 벌써 의식을 회복한 분대장동무는 반토굴식병실 한쪽구석에 모로 누워 우리를 몹시 반겨주었다.

《들었소. 기갑부대를 전멸시켰다는 소식은 여기서두 들었단니까.》

이러며 그는 우리가 자리에 앉는것을 사랑스러운듯이 지켜보고나서 다시 말을 이었다.

《참 그날밤 우리는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겼소. 내가 만약 신호를 날려보내지 못했더라면 일이 어떻게 될번했소? 하긴 그럴수가 없지.》

그는 눈물이 그렇그렇해있는 꼬마의 손을 잡아 그 손등에 자기의 다른 손을 얹고는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그전에 우리 고장에두 접동새에 대한 슬픈 전설이 있었지. 자식 여럿을 남겨놓구 세상을 뜬 어머니가 자식들의 일이 근심스러워 밤이면 접동새가 되어서는 마을 뒤산에 내려와 운다는 전설말이요. 우리 네 오누이두 그 전설을 새겨듣구는 밤이면 울곤 했다고. 두 누나가 종일 샅벌이를 해들여오는 한줌의 난알루 저녁이랍시구 끓여먹구 잠자리에 들면 우리 집 뒤산에두 접동새가 날아와 울었으니까. 그러면 네 오누이는 부자집 머슴살이루 꼴병이 들어 세상떠난 어머니가 생각나서 울었지. 또 왜놈의 무슨 공사관에서 객지죽음을 당한 아버지를 생각해서 두 울었구. 그러다가 해방을 맞아서야 눈물은 말끔히 자취를 감추어버렸지. 아무럼, 어떤 생활이 우리 네 오누이를 찾아주었는가말이요. 장군님께서 부여해주신 땅에서 마음껏 농사를 짓게 되구. 동생과 난 새로 지은 학교에 들어가구. 후에 만두나는 또 너맹일군이 되구. 작은 누난 당사업을 하는 젊은이에게 시가를 가구... 그러는새에 우리의 행복에 맞추어 마을에는 접동새에 대한 새로운 전설이 생겨나더란말이요. 지난날 일찌기 부모를 여의구 가난과 천대속에 버림받다가 이제야말루 행복을 찾은 못사람들을 위해 접동새는 깊은 밤에두 잠들지 않구 은근한 목청으루 조용히 그 행복을 축복해준다는거요. 말하자면 행복의 가수라는거지. 하, 그런데 글썄 저 원썩미체놈들이 우리의 그 귀중한 행복을 빼앗으려든단말이요. 그래 난 절대루 빼앗지 못한다는걸 선포하는 심정으로 자신이 행복의 가수가 돼서는 놈들의 코등을 겨누구 우리의 행복을 시위하군하지. 또 그런 커다란 행복이 우리들의 투쟁으로 해서 저 남녘의 형제들에게두 꼭 차례진다는 심정까지 함께 담아서말이요.》

피창을 거쳐 소리없이 저녁어스름이 스며들었다. 최전방에서 좀 유축진곳이고 더구나 적의 대부대들과 기갑부대를 죽친 뒤끝이라 사위는 그만하면 조용한 편이였다. 다만 쿵쿵거리는 먼곳의 포소리만이 이따금 간간이 들려올뿐이었다.

# 탄부의 손이여

석광희

탄부의 성품은 그리도 소박하고  
그리도 허물없는줄 세상이 다 알건만  
막장에 찾아와 악수를 청하는  
우리 손 뜨겁게 잡으며  
반갑게 웃음짓는 채 탄공이여

탄가루가 묻은 손을 허물없이  
선뜻 내대는 그 심정  
우리 알고도 남음이 있다만  
그 손이 좋다  
탄빛이 스배여 한빛으로 물든  
그대의 손  
어서 그 손 좀 뜨겁게 잡아보자

억센 그 손이 있어  
수수천년 잠을 자던 탄이 깨어나고  
보배로운 그 손이 있어, 그 손이 있어  
북창의 타빈들이 전기를 일구고  
산밭을 넘어 들을 지나 줄줄이 뻗어간  
생명선  
공업에 왕성한 숨결을 주고  
조국을 더 큰 걸음으로 내닫게 하는것이 아니나

아는가, 탄부들이여  
그 손으로 캐내는 한줌의 탄이  
어버이수령님의 수첩에 큼직이 적혀있는  
석탄의 무게를 그만큼 더하여주고

그 손으로 실어보내는 한삽의 탄이  
대건설의 설계도우에 높이 솟아있는  
석탄의 탑을 그만큼 높아지게 한다는것을!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릴  
애오라지 불타는 한마음으로  
진격로 열어가는 그 길우에서  
들에 내리는 보슬비의 속삭임소리와  
산에 물드는 단풍의 설레임소리를  
환희로운 마음의 가락으로 새겨들으며  
열두달을 하루같이 막장을 밀고 가거니

아, 어버이수령님께서 검은 금이라 불러주신  
석탄의 은은한 빛이여  
이 세상의 천만가지 빛갈중에서도  
그처럼 아름답고 보기 좋은줄  
온몸으로 느끼며 서있는 이 마음

탄빛이 스배여 한빛으로 물든  
그대의 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높이높이 쳐들고  
목소리 가다듬어 자랑하고싶노라

이것이 조국에 힘을 주고 빛을 주고 불을 주는  
영웅탄부들의 손이라고  
이것이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  
티없이 맑은 충성의 손이라고  
격정에 들먹이는 심장으로 노래하노라

# 전변의 새 기슭

리정술

녹녹한 밤안개 저멀리 밀어내며  
타오르는 우등불, 뻗어가는 십리제방  
전변의 새 기슭을 따라  
걸어간다, 우리의 관리위원장  
구수한 담배연기 타래쳐올리며...

휘우듬 허리흰 강줄기를 곧추 퍼며  
하얀 돌담으로 제방뚝을 쌓아가는  
돌격대원들의 웨침소리, 기계의 동음소리  
노래처럼 정답게 들으며 걷는  
위원장의 얼굴엔 미소가 어리어라.

어디더냐, 그 옛날 장마비 내릴 때면  
산사태에 허리 끊긴 강줄기를  
꼬리치며 뚝에 철철 넘나들며  
벼꽃피는 귀한 땅을 흘러버릴 때  
가슴속에 근심서리던 굵어진 뚝길은

변덕 많은 하늘날씨 남겨놓은 흔적처럼  
오불꼬불 제멋대로 난 강물길을  
봄날에, 여름날에 걸을 때  
룡천강의 맑은 물도  
언제나 가슴속에 흐려있지 않았던가.

아, 수천년 세월이 자취를 남긴  
등굽은 강줄기들을 곧추 퍼주시며  
시원히 트인 물길우에 풍년기쁨 실어주시며

위대한 수령님 높이 드신 치산치수의 화불아래  
대지에 열려지는 전변의 기슭을  
눈굽이 흐려지며 걷는 관리위원장,

산을 다스리고 물길을 다스려  
검은 구름, 밀려오는 무더기비  
이 땅에서 영원히 밀어내고  
세세년년 만풍년을 안아다주는  
사랑의 기슭, 물소리 넘치는 푸른 기슭을  
꿈속처럼 위원장은 걸어간다

걸어간다, 발걸음도 가벼이...  
만풍년의 금나락 흐느적이며  
무겁게 드리우는 강기슭을,  
구름우에 솟아오르는 황금봉우에  
풍년새도 정답게 손저어 불러들이며...

흐뭇이 바라본다, 미소짓는다.  
자연개조 5대방침의 찬란한 빛발은  
수천년 세월의 비바람이 남겨놓은  
이 땅의 주름살들을 지워버리며  
황금의 새 기슭을 옮겨놓고있구나,  
산은 산마다에...  
강은 강마다에...

아, 관리위원장은  
천만톤의 대지우를 걸어가고있어라

# 분 노

변홍영

머리우엔 아지랑이 정다운 봄하늘이 웃고  
꽃향기를 함뿍 머금은 바람결이  
애무의 손길인양  
102어린이 무덤가  
푸른 잔디를 부드럽이 어루만진다.

거친 파도의 물머리처럼  
내 가슴에 일어서는 사나운 분노를 알길 없는  
세살잡이 나의 귀여운 딸애는  
이 봄날이 그저 기쁘기만 한가보다  
꽃처럼 고운 얼굴에  
밝은 웃음이 찰랑이여라.

아, 가슴이 저려오는구나  
천진한 맑은 눈동자를 지켜보는 내 마음이어  
불속에 쓰러진 어린 녀들이  
눈앞에 환영처럼 얼른거린다.

복된 삶이 무르녹는 이 땅을 못보고  
내 딸애와 같은 나이에 죽은  
나의 동갑세대들  
절통하다, 내 이미 아버지로 되었던만  
그들은 원한을 안은채  
이 봄언덕에 영원토록 누워있나니

내 가슴 허비는 아픔을 누르며  
조용히 딸애를 껴안고 어린 불을 만진다.  
피롭다, 햇빛과 요람과 탁아소의 놀이터가  
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 어린것에게  
이 무덤가에 흐르는 준엄한 분노를  
그 무슨 말로 알려줄수 있단말인가,  
이 행복한 봄날의 락원에서  
딸애는 웃고  
내 가슴엔 피눈물이 고이누나.

이제 방금 삶의 걸음을 떼는 어린 가슴을  
이 땅이 겪은 쓰라린 참화로

잠시나마 흐리게 하고싶지는 않다  
꽃잎에 맺힌 아침이슬처럼 반짝이는 눈동자에  
피에 얼룩진 미제의 추악한 그림자조차 비끼게  
하고싶지는 않다.

아니다, 천진한 꿈이 깃드는 요람과  
이 어린것들이 아버지의 목마를 타고  
아침노을을 마중하는 창가에  
피묻은 총창을 들어밀려는 미제가 살아있는 한  
인간의 삶과 자유를 교살하려고  
저 남녘땅에서 미친 전쟁소동에 날뛰는 한  
똑똑히 알려주리라, 이 신천땅에 흐른 피의 역사를,  
젓먹이 머리우에 불을 단 미제야수들을,

비분에 떠는 증오를 가슴에 묻은채  
나는 마음속으로 부르짖는다  
기억해두라, 나의 딸애야  
저것이 우리 아이들의 무덤이다  
천백배의 복수로도 씻을길 없는  
조국이 겪은 이 수난을  
어느때든 잊지 말아라,

그러나 이 땅에 흐른 피의 대가를  
너희들에게 받아내도록 넘겨주지는 않을테다,  
더는 총과 폭탄과 피비린 살륙으로  
너희들의 앞길을 끊어놓지는 못하리라.  
미제의 화약내가 이 봄날의 꽃들을 질식시키는것  
을 용서치 않으리라.

오, 조국이여! 세계여!  
이 땅우에, 지구우에  
삶을 누리지 못한채  
통분하게 눈감은 아이들의 무덤이 더는 없도록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라!  
나는 웨친다, 102어린이 무덤앞에서  
조선인민의 뚫어번지는 분노를 담아  
소리높이 웨친다.



# 양음천 맑은 물이 령 넘어오네

박창화

산기슭 다락밭을 적시며 물이 오네

암반을 깨내며 철관을 묻으며

물길을 열어온 자옥을 따라

양음천 맑은 물이 령 넘어오네

물마중하러 갔던 농산반 큰애기들

치마폭 젖는줄도 모르는가보네

저마다 두손에 맑은 물 퍼들고

목메여 불러보는 양음천, 양음천...

하늘의 꽃구름도 등실 두등실

얼굴의 웃음꽃도 넘실 너넬실

맑은 물에 실려서 오는 이 아침

땅도 사람들도 감격에 젖네

어제는 금천벌에 생명수 보내시어

대대로 내려오던 물소원을 풀어주시고

오늘은 자연개조 5대방침 밝히시어

마음속 한점의 그늘마저 가셔주신 어버이수령님

온 세상이 축원하는 4월의 명절날까지

소삼정 등판을 걸으시며 발판개를 구상하셨나니

자옥자옥 헤쳐가신 그날의 이슬길이

사랑의 물길이 되어 다락밭에 닿았네

산에서 흘러내려 천리 넓은 벌을 적신 양음천 맑은 물

다락밭 등판에까지 치솟아올라

왕가물에 한포기의 강냉이조차 말라들세라

이랑이랑마다 달디단 즙이 되어 흘러들어

만풍년의 넓은 길이 활짝 열리고...

우리의 생각, 작은 소망마저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채택하시어

온 나라를 발판개에로 불러주신 어버이수령님

그 사랑, 그 은덕이 가슴에 넘쳐나네

정말이지 인제는 두려울게 없어

석달열흘 왕가물도

령 넘어오는 맑은 물에 밀려가고

땅은 어머니 젖가슴처럼 부풀어만 있으리니

아, 물푸는 양수장의 고르로운 동음도

행복의 노래처럼 가슴에 젖어들고

산으로 오르는 물길을 따라

포롱포롱 양음천의 물새들도 날아오르고...

령 넘어오는 사랑의 물길

령 넘어가는 감사의 마음

한데 어울려 노을비낀 다락밭에

물안개로 피어나는 이 아침

층층 다락밭 산우에서 강물을 퍼들고

양음천, 양음천

목이 메여 불러보네

논벌에서만 불러보던 그 이름

오늘은 이 땅의 농민들이 산에서도 부르네

찰랑찰랑 맑은 물 두손에 담아든채

아, 양음천, 양음천

다락밭우에서 사랑의 강을 불러보네